

시로 읽는 성보순례
진전사지 3층석탑
국보 제122호 진전사지삼층석탑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11월 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919호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일어나 앉아라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숫타니파타」

불교 전통문화 살릴 정책 로드맵 수립한다

조계종 문화부, 종단 전통문화 진흥 좌담회

불교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정책 로드맵이 수립될 전망이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진명)은 12월 14일 '불교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로드맵 초안을 소개했다.

현재 국보의 57%, 보물의 62%가 불교 문화재인 상황. 하지만, 국가 정책은 아직도 국유 문화재에 예산이 편중돼 있고, 불교계 역시 이에 대한 종책 방향이 설정돼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문화부가 추진하는 '불교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은 장기적인 정책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부가 제시하는 추진 과제는 △정책 · 제도 △보존 △활용 △무형문화유산 등 4개 분야로 나눠진다.

정책 · 제도 분야에서는 종단 문화유산 행정체계와 국가 정책 방향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앙종무기관부터 교구본말사로 이어지는 문화유산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구본사에 문화국을 설치하고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문화유산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가장 많은 추진 과제가 담긴 보존 분야에서는 △전통사찰 전수조사 및 불사관리위원회 운영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 구축 △불교중앙박물관 보존연구소 설립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활용 기반 마련 △사지 보존 정비 △전국 석조 금석문 조사 △북한 불교문화유산 보존 대책 수립 등이 제시됐다.

불교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대와 전통문화 인력 양성,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활용 방안도 눈길을 끈다.

정책, 보존, 활용, 무형유산 4개 분야 나눠… 정책 추진 행정체계, 방재 등 내용 담아

특히 불교계가 부족한 전통문화 원형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콘텐츠 개발은 주목할 만 하다. 이를 위해 조계종 문화부는 2017년까지 전통문화원형 아카이브 구축과 전통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보존 · 전승 체계 확립과 연등회보존위원회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함께 제시됐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불교계의 전통문화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계종의 장기 로드맵에 공감을 표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스님은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한 정책에는 종단도 관심이 많지만 정작 종단 예산이 전통문화유산에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 수 없다"며 "내부적인 인력과 예산 확충도 필요한 상황"고 밝혔다.

홍윤식 (사)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장은 "전통문화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긴 어렵다"며 "사찰을 유무형 콘텐츠로 보는 인식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다. 이를 유기적으로 엮을 수 있도록 표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상국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도 "불교문화재의 비중이 높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조계종의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은 진즉 만들어져야 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계종 문화부는 이날 좌담회 결과를 정리해 내년 초 '불교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을 확정 · 발표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은사 판전 제 모습 찾던 날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썼다는 편액이 걸린 봉은사 판전(板殿)이 3개월 여에 걸친 보수불사 끝에 제 모습을 찾았다. 봉은사(주지 진화)는 12월 13일 경내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판 이운식과 판전 보수 불사 회향을 알리는 고불식을 봉행했다. 또한 보수 불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전 건립을 기록한 상량문도 발견돼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5면**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평론' 내년 봄부터 속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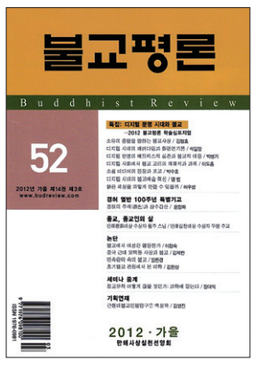
편집위 11일 밝혀… "선양회 측 폐간 방침 철회"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특별기고문 문제로 통권 52호 가을호 이후 폐간이 결정된 〈불교평론〉이 내년 봄호부터 다시 발간된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위원장 허우성)은 12월 11일 "2013년 봄부터 〈불교평론〉을 속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교평론이 벌여온 가을 학술세미나, 열린 논단, 올해의 논문상 등 모든 활동도 내년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는 "폐간 소식이 알려지자 불교계와 학계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뜻을 모아줬다. 전현직 편집위원들도 폐간을 막기 위해 지난 가을부터 최근까지 발행처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서 속간의 필요성을 숙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만해사상실천선양회에서는 폐간방침을 철회하고 2013년 봄호부터 속간하겠다는 뜻을 최근 편집위원회에 알려왔다"고 속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난 가을부터 불교계 안팎의 지식인들을 안타깝게 했던 〈불교평론〉 사태는 일단락됐다"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신중하면서도 수준 높은 잡지를 제작해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평론〉은 올해 가을호에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특별기고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을 실었고, 당해 문중인 수덕사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문제가 커지자 발행처인 만해실천선양회에서 폐간을 결정했다.

하지만, 불교학계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필화 사건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교수들의 발표 거부로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연기되기도 했다.

〈불교평론〉 속간에 대해 관련 인사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홍사성 편집인은 "성원에 감사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분들에게는 죄송스럽다"고 짧게 답했다.

문제의 논문을 기고했던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재발행 결정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면서 "인접학문과의 소통을 이루는 전문 학술지가 외압에 의해 사라져서는 안된다. 이는 불교학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우성 편집위원장(경희대 교수)도 본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불교평론〉은 창간 당시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역사 정치 사회 현상을 분석 조명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독자 제호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 독자와의 약속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술회했다.

한편, 1999년 겨울호로 시작된 계간 〈불교평론〉은 지난 10여 년간 척박했던 한국불교학계에 건전한 논단을 제공해왔고, 2009년에는 제9회 대원상 재가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관련 칼럼 31면

919호 INDEX

종합 2·3
동국대 발전위 토론회
인터뷰 · 조계종 7대 호계원장 일면 스님
사찰음식 우수 사찰 지원사업
대선 직후 쌍용차 국감

시방세계 5
봉은사 판전 보수 불사 회향

강의실 중계 8
고은 시인 동국대 강연



학술 · 문화재 9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실사

화엄만다라 16·17
우승택 생테크연구소 대표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일본 스님들 中 난징서 참회

한국 종걸 스님도 난징학살기념관에 유물 기증

"난징 대학살의 현장을 보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13일 중국 난징대학살기념관에서 열린 평화 추모법회에 한국 불교 인사로서 유일하게 공식 초청된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당시 기념관 관계와 한 · 중 · 일 스님들 앞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 종걸 스님은 1937년 12월 17일 군산에서 일본인들이 열었던 남경 함락 축하 거리행진 사진 원본을 비롯, 남경 함락을 전후한 당시 신문 보도 · 사설 등 사료 120여점을 이날 기념관에 기증했다. 기념관 측은 공식 기증식을 열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종걸 스님은 이날 행사에 지난 9월 동국사에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을 비석으로 세웠던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고(一戸彰晃) 스님과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난징 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이 난징에서 30만명의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으로 매년 난징에서는 지난 12일 밤 8시부터 촛불집회와 거리행진, 평화법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중일 기자**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사진 맨 오른쪽〉은 12월 13일 중국 난징에서 열린 평화 추모법회에 한국불교 스님 중 유일하게 공식 초청 인사로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치노헤 쇼고 스님〈사진 맨 왼쪽〉도 동행했다.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 75mm →
↑ 75mm ↓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원)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22호 진전사지삼층석탑



진전사지 3층석탑

이 상 국

전라도 무안 땅 가지산이
어느 날 그 형제들을 이끌고
설악산 아래 한 석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신라에서는 가지산을 본 사람이 없었다
가지산은 그 속에 절 한 채를 짓고
도의로 하여금 한 천년
밤낮없이 염불을 하게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 후 4백 년쯤 지나 어린 일연이
축발염의하고
둔전골 물소리처럼 흘러들어가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6백 년은 흘렀을까
인민군인지 국군인지 쏜 총알이
천지개벽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의 몸을 뚫고 들어가 집을 짓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탑도 몰랐던 것이다
제 몸 속에 구산선문 대도량과
산하중생 서원보전 기둥뿌리와
쇠불이들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차마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진즉 무너졌을 터인데
탑은 제가 탑이라는 걸 모르고
천년을 서 있었던 것이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이상국 시인은… 강원 양양 출생. 1976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우리는 읍으로 간다〉, 〈집은 아직 따뜻하다〉 등.

동국대 불교대학원 통합인가 세분화인가?

불교대학발전위 10일 토론회… 전공 방안 놓고 격론

세계적인 불교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조계종립대학 대학원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돼야 할까.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영담)와 불교대학(학장 계환)은 12월 10일 동국대 본관에서 '동국대 불교대학 일반대학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인 현각 스님(불교대학발전위원)이 불교대학 일반대학원 교과과정과 편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각 스님이 제안한 일반대학원 개선방안은 학과 통합과 유사강좌 통폐합을 비롯해 교수당 대학원 강좌 수 축소 등이다. 전임이상 교수들이 축소된 강좌만큼 일반 불교교양강좌를 맡는 안도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현각 스님은 개선안에서 학부제로 변경된 불교대학과 같이 대학원도 불교학과로 개칭하고 불교학 · 인도철학 · 선학전공으로 나눌 것을 주장했다.

스님은 각 전공간 개설강좌에서 중복된 부분이 많으며 무분별한 유사강좌 난립으로 외래강사 채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강사 채용에 있어서는 불교대학원을 나온 출신들이 배제되고 원광대 등 타교 출신과 태고종 스님도 강의에 나서고 있음이 지적됐다.

현각 스님은 2013년도 2학기부터 불교학전공 8과목(석사 4과목/박사 3과목), 인도철학전공 5과목(석사 3과목/박사 2과목), 선학전공 5과목(석사 3과목/박사 2과목) 등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또 특정 교수와의 관계로 종합시험에 지속적으로 낙제하는 사안을 막기 위해 국내 저명학술지에 석사 100%, 박사 200%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도 가능케 하는 구제책도 제시됐다.

또 1996년 개설된 '자아와 명상'을 불교문화재 등 불교문화를 알리는 '불교와 문화' 강좌로 변경하는 안도 담겼다.

스님은 "종립학교 건학이념을 알리고자 만든 자아와 명상이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문화재 6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불교문화를 알리는 '불교와 문화'로 강좌를 변경하고 전

현각 스님 "통폐합해 내실화"

반대 교수들 "세분화가 대세"

'불교사회복지학과' 귀속 결론

임교수들도 일반교양강좌 지도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교대학 교수진들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좌 수 축소 시 강좌당 학생수 증가로 인한 지도 미흡과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

논평자인 정승석 교수는 "개설 교과목이 축소되면 강좌당 수강생이 과다됨으로 교수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대학 불교학과장인 우제선 교수는 "이번 학기에도 38명이 입학해 학생들 사이에서 강좌 당 수강생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에서 교수당 대학원 강좌를 2강좌 요청하려 했으나 오히려 축소한다는 개선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12월 10일 대학원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통합과 세분화를 놓고 교수간 격론이 펼쳐졌다.

고영섭 · 황순일 · 김종욱 교수 등도 대학원 통합 방침이 전문성을 저해하며 연구지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모았다.

고영섭 교수는 "불교학, 인도철학, 선학 연구방법은 서로 다른 만큼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며 "불교대학 학부생의 전과를 허용하고 오히려 자유경쟁을 시켜야 한다. 또 조계종 재적 스님만 교수가 될 수 있는 선학과도 재가자에 문호를 열고 경쟁을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내에서 과 소속 학생들의 시위가 진행 중인 사회복지학 전공의 '불교사회복지학과' 변경에 대한 대책마련도 지적됐다.

불교사회복지학과는 당초 불교사회복지전공으로 졸업생 취업을 위한 복수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이후 사회복지학전공으로 변경된 바 있다. 불교대학에서는 당초 불교복지 성격에 맞게 명칭 변경 및 과목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각 스님은 "'불교사회복지학과' 명칭에 맞게 내년부터 '불교학입문' '선의 이해'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등 5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대학 교수들은 불교사회복지학과 명칭변경에 동의하며 사회복지전공으로 변경된데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또 이날 자리에서는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 내 강좌와 불교대학의 중첩 문제도 지적됐다.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은 "불교학술원이 연구프로젝트 수주를 이유로 교육기관을 운영 · 개설한 강좌가 불교대학의 강좌와 중복돼있다"고 말했다.

이날 불교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은 "토론회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안을 다듬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의견수렴과정을 몇차례 갖고 차기 법인 이사회 회의에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계획적 종단 음해는 엄벌할 것"

인터뷰- 조계종 7대 호계원장 일면 스님



"자신의 임의대로 토지를 매각한다던가, 계획적으로 종단을 음해해 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입니다."

조계종 신임 호계원장 일면 스님은 12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호계원 운영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종단 화합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유연성도 함께 가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면 스님은 "평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화합을 권한다"면서 "누구나 살면서 실수는 하는 법이다. 호계원장이 물렁해서는 안되겠지만, 화합하고 조정할 수 있다면 이 역할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애매한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총무원 호법부와 초 · 재심 호계위원,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님은 "양형기준이 둘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종단 호법과 관계되는 스님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당장 3월 종회에서는 힘들겠지만, 올해 안에는 성과를 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종단 판례집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무원장 스님에게 건의해서 판례집을 만들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받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전임 원장인 법등 스님이 너무 잘해서 걱정된다"며 "'원칙과 소신을 따르라'는 법등 스님의 충고에 따라 업무를 보겠다"고 밝혔다.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일면 스님은 1967년 10월 21일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제13대 중앙종회의원과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11월 6일 제192회 정기중앙종회에서는 제7대 호계원장에 선출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종 부장급 인사 단행

총무부장 월도 스님 등 7명



천태종 총무원(총무원장 도정)이 제 16대 집행부를 이끌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천태종은 12월 12일 총무부장에 월도 스님(분당 대광사 주지 · 사진)을 비롯해 △교무부장 도웅 스님(춘천 삼운사 주지) △교육부장 갈수 스님(강릉 삼개사 · 동해 삼락사) △재무부장 월중 스님(원주 성문사 주지) △사회부장 보광 스님(김천 금강사 주지) △규정부장 갈지 스님(마산 삼학사 주지). 종의회 사무처장은 갈웅 스님(여수 장덕사 · 벌교 흥교사)이 각각 임명됐다. 신임 부장단은 12일 오후 종정 도용 스님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주일 기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종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원로의장 보운 평원
원로위원 월현 법산
원로위원 정인 월산
원로위원 정광 송담
원로위원 법등 월각
원로위원 수덕 동곡
원로위원 정허 법운

종회의장 진경

총무원장 법정
행정원장 도경
호법원장 법륜
초심원장 무진
교육원장 청담
문화원장 진송
포교원장 동화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성덕
교무부장 선각
문화부장 한담
규정부장 혜오
사업부장 청명

비구니원장 법화
비구니부원장 현운

법규위원장 설산
인권환경위원장 혜득

경북동부 종무원장 해산
경북서부 종무원장 혜관
경북북부 종무원장 성덕
경북중앙 종무원장 혜득
대구동부 종무원장 법성
대구서부 종무원장 진송
경기도 종무원장 자운
충청도 종무원장 계현
울산 종무원장 현운

중앙신도회장 조태흠
중앙신도회사업부장 청명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1리 1095 동명사 (총무원) 전화(팩스겸용) 054) 974-2605 / 핸드폰 011-544-2605

중앙승가대 이사 향적·지현·능도 스님

승가학원 이사회, 96차 회의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회(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2일 제9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당연직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당연직 일반이사에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 개방형 이사에는 총무부장 지현, 기획실장 능도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임기 만료된 무상 스님은 이사에 재선임 됐으며, 감사에는 경륜 스님이 선출됐다.

또한 올해 중앙승가대 추가경정예산 3억 6천여만 원을 의결했으며, 현재 2학년 2학기인 전공 전환 시기를 3학년 1학기로 대학 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간서명 이사에는 교육부장 법인, 호법부장 정안, 이사 해주 스님이 선임됐다. 신중일 기자

2013 한일대회 공주서

6월 17~ 20일 개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2013년 6월 17~ 20일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12월 12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개최 일정과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앞으로 대회 주제를 일본 측과 상의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 환수사업 △제2차 대전 당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유골 봉환사업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새정부출범 법회 계획

12일 종단협 이사회서 결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이하 종단협) 2013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정기후원' 등의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종단협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열고 위와 같은 내용들의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이날 안건에는 △임원변경의 건 △불기 255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건 △제1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결과보고 건 △대북수해지원사업 진행현황 보고의 건 △신년하례법회 및 총회 일정의 건 등이 상정됐다.

정혜숙 기자

'사찰의 맛' 대중 알리기 본격화

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우수 사찰 지원사업 1차 선정

식문화 위기 시대에 대안으로 손꼽히는 사찰음식의 대중화 사업이 내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사찰음식 우수 사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는 관련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 이하 문화사업단)은 지난 10월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우수 사찰음식 행사 지원사업'을 공모해 최근 1차 선정을 마쳤다. 이름을 올린 사찰은 평택 수도사를 비롯해 총 12곳. 그 중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한 사찰 3곳을 제외하면 9곳이 앞으로 사업을 기획 중이다.

사찰음식 우수 지원사업 1차 선정 사찰

사찰명	일정	행사명	내 용
수도사	2013년 3월 중	한중일 사찰음식대향연	한중일 사찰음식 강의(시연), 전시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템플라이프 사찰음식 경연대회/ 산사음악회
법주사	2013년 4월 20~30일	2013 충북 사찰음식문화대전	사찰음식 대전/ 법주사 사하촌 음식 페스티벌 문화유산 체험 활동
백련사	2013년 1월 25~27일	녹차와 사찰음식 행사	사찰음식 및 다도 강의 녹차음식과 사찰음식 전시 및 시식
용문사	2012년 11월~ 13년 5월	친환경농업박물관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알아가기	사찰 세시풍속 떡 배우기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산나물 축제)
봉은사	2013년 3~4월	사찰음식 도시락 개발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경연대회 및 품평회, 전시회 진행 향후 도시락 상품 및 만들기 체험으로 개발
직지사	2013년 5월 중	사찰음식 사진전 및 전시회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사찰음식 사진 작품 전시
전등사	2013년 5월 3~5일	2013 전등사 사찰음식 대향연	한국, 프랑스 전통등 전시 사찰음식과 프랑스 요리의 콜라보네이션
대승사	2013년 1~5월	대승사 사찰음식 대향연	다문화 가정 죽염, 된장 만들기 장애인 학생, 외국인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문경 찻사발 축제 사찰음식 시식 행사
덕암사	2013년 2~3월	도림 전통사찰음식 강좌 개설	도림 사찰음식문화원에서 5주간 5회에 걸친 사찰음식 강의/ 사찰음식 체험 및 전시회(3월)

내년 상반기에 9곳 집중
다양한 행사와 결합 '눈길'
대중화 위한 자격제 실시
특화사찰 · 나눔행사도 지속

이들 행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축제와 결합하거나 독특한 특화 콘텐츠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수도사의 경우 내년 3월 '한·중·일 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한다. 한·중·일 불교의 전통 사찰음식을 시연, 전시하고 이를 통해 사찰음식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화 전등사는 내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경내 일원에서 '사찰음식과 프랑스 요리 콜라보네이션'이라는 주제의 음식체험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음식체험 행사는 △사찰음식과 와인 그리고 카나페 △사찰음식과 프랑스 자연 식단 △사찰음식의 응용 및 이주민 초청 자국음식 전시 등 매일 소주제를 바뀌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삼랑성 돌기, 위령재, 군악대 협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 중이다.

속리산 법주사는 내년 4월 20~30일 '2013 충북사찰음식문화대전'을, 양평 용문사는 내년 5월 양평군 산나물 축제에 맞춰 사찰음식 체험 및 경연대회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 봉은사는 사찰음식을 도시락으로 개발하기 위한 경연대회를 준비 중이며, 대승사는 나눔을 주요 골자로 한 사찰음식행사를, 직지사는 사찰음식 사진전과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1차 서류 심사를 마치고 관련 대상 사찰에게 세부 사업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사찰음식 우수사찰 지원 사업을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5개 영역에 걸쳐 사찰음식을 세계화·대중화 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사찰음식 자격증 제도 신설 △특화 사찰지원 확대 △사찰음식 나눔행사 지속 △대중화 레시피 개발 등을 계획 중이다.

관계자는 "특화 사찰의 경우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를 상시 결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찰음식 나눔행사를 비롯해 사찰음식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범국민 캠페인도 새롭게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교인 염원 통했다… 대선 직후 쌍용차 국감

33인 원탁회의, 주요 정당 인사 만남 '성과'

대선 직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정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교 등 5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종교계 33인 원탁회의'는 12월 10일, 11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잇달아 방문해 쌍용자동차 문제의 사회통합적 해결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의 주요 관계자들은 △노사정 외 정치권과 종교계까지 참여하는 협의테이블 구성 △대선 후 첫 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이를 위한 여야 협의진행 △정부의 적극적 역할 모색 등에 뜻을 같이했다.

10일에 이뤄진 새누리당 방문에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면담이 성사된 만큼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에 화답하기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열리는 첫 번째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또한 쌍용차 해고자 및 무급휴직자 복직 해결을 위한 노사간 협상테이블 구성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쌍용차 대외 매각, 기술유출, 일방적인 정리해고 등의 문제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방문한 이뤄진 민주통합당에서도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델의 필요성을 공감·동의했다.

민주통합당 환노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국정조사는 필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마힌드라가 법적책임을 승계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노사정의 대화의 틀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속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도 적극적으로 주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대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대선직후 첫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와 사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정 약속을 확실해 해야 함께 하는 것에 진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법 스님 등 종교인들은 양당 면담에서 "쌍용차 문제는 편 가르기와 힘 겨루기를 통한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다"며 "극단적 대립이 아닌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교계 33인 연석회의'는 양당에 이어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강정마을, 상처는 보듬고 아픔은 나누자"

범불교계, 13일 강정포구서 화합을 위한 용왕대재 봉행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양분된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주민을 화합하기 위한 용왕대재가 봉행됐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제주불교연합회(회장 성효)는 12월 13일 제주 강정마을 강정포구에서 마을 용왕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경전 속 사까족과 꼴리야족 사이의 갈등을 소개하고 강정 마을이 원래의 모습을 찾기를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오늘 용왕대재는 어느 한쪽을 편들려는 것이 아니라 반목과 갈등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강정마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러기 위해 주민들이 보살의 얼굴을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20여 차례 강정마을을 다녀가면서 이곳 찬반 주민 모두 예전처럼 이웃으로 형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용왕대재는 강정 마을이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새로운 마을 공동체로 태어나는 큰 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발원문도 발표됐다. 제주불교연합회장 성효 스님은 강정평화기원발원문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둘러싸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돈독한 신심으로 물러나지 않고 큰 원력으로 진일보하여 자타일시 성불도하는 그날까지 정진해나가자"고 기원했다.

글= 신중일 기자, 사진=조계종 기자단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와 제주불교연합회는 12월 13일 제주 강정마을 포구에서 마을의 화합을 기원하는 용왕재를 봉행했다.

"국방부 소속 지원단이 불법사찰 했다"

이용성 10.27 심의관,국가 인권위에 부당 징계 진정

불교계에서 추천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 조사관을 국방부 소속 군인 지원단이 불법사찰하고 징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성 조사심의관은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심의관은 前 법난위원장인 영담 스님이 2010년 7월 임용,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이 씨는 "불교계에서 추천한 자신을 국방부 소속인 지원단이 비밀리에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국방부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자료를 통해 "현재 최동식 법난위 지원단장이 나를 국가공무원법 상 직장이탈 금지, 성실, 복종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갑작스러운 조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동안 이에 대해 시정 조치라도 있었을 것이다. 유일한 조계종 추천 인사인 나를 징계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징계는 현 법난위원장인 지현 스님의 동의 없이 처리한 것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회장 정갑윤) 13명 의원들은 12월 13일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법 효력에 대한 시한 폐지 △가해 주체 국가로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 법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정혜숙 기자

우리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심리 원리들을
쉽고, 빠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처음 만나는 심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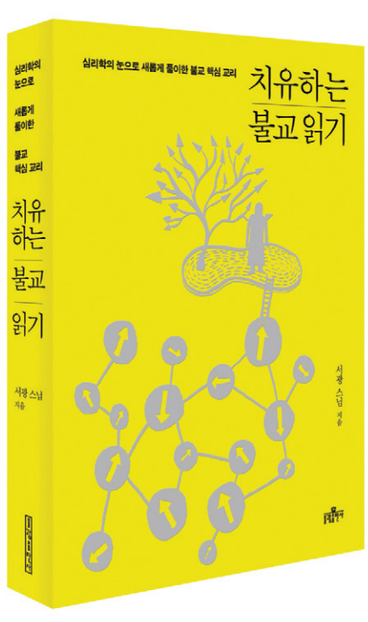
•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소문만 듣고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왜일까?
• 다른 사람이 짜장면을 시키면 "나도 짜장면!"을 외치는 이유는 뭘까?
• 정말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을까?
• 왜 약자를 보면 돕고 싶을까?
• 사랑의 유효기간은 정말 3년을 못 넘길까?

사토 다쓰야 · 와타나베 요시유키 지음
김경원 옮김 | 김선주 감수 | 308면 | 15,000원

하루에 30분 열흘이면
마스터하는 '심리'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불교의 핵심 교리는 마음 치유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되는가?



원래 의학에서 '치유(healing)'라는 말은 손상된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하는 불교 읽기'가 우리가 타고난 본래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여는 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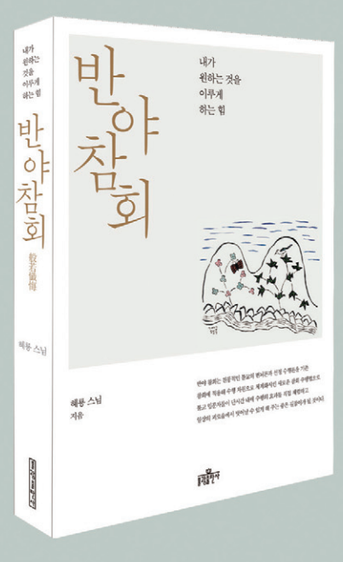
치유하는 불교 읽기

서광 스님 지음
288면 | 14,000원

불광출판사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참회 수행법

반야 참회



'반야 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반야 참회는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수행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혜통 스님 지음
288면 | 13,000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

일 주 문



동국발전기금 기부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1월 2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본관에서 동국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겨울한문학당 개최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1월 12~16일 하동쌍계사 및 인근 문화체험장에서 2013년 겨울 어린이 한문학당을 개최한다.



화엄교육장 및 사찰음식연구소 착공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2월 22일 경내에 화엄교육장 및 사찰음식연구소 기공식을 했다.



화엄산림대법회 입재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2월 1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5000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엄산림대법회 입재식을 개최했다. 법회는 1월 13일까지다.

삼조 · 능원 스님 총무원장 표창



삼조 스님



능원 스님

설악산 봉정암 주지 삼조 스님과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은 12월 12일 특별분담금사찰로서 예산이 증액하고 사찰을 원만하게 운영한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자성과 쇄신 정책에 적극 부합해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며 "모범적으로 사찰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정병조 총장, 대전 · 충남지역총장협 회장 선출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12월 6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대전 · 충남지역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대전충남지역총장협의회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로도 활동하며 임기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이다. **노덕현 기자**

서강대 박사과정 홍진스님 등 3명 장학승 선발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는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3년 조계종 장학승으로 홍진, 혜명, 진욱 스님을 선정했다.

홍진 스님은 서강대 대학원에서 '불교윤리와 생명'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혜명 스님은 일본불교대학에서 '일본불교사' 박사과정, 진욱 스님은 인도 델리대학서 '대승불교'로 박사과정 중에 있다. **신중일 기자**

"'청년붓다' 운동 통해 젊은 불교로"

우리는선우 신임이사장 고려대 조성택 교수 선임



불교 우호적인 청년 많아 정체성 심어줄 수 있다면 청년불자 성장 가능성 커

"청년 불자 양성이 우리 불교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우리는선우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청년불교 운동을 주도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자비와 지혜는 불교를 대표하는 단어였지요. 저는 이런 이미지를 넘어 좀더 젊고 발랄한 불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대 청년 불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불교 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합니다"

(사)우리는 선우 이사장에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이에 선우는 12월 13일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6층서 신임이사장 간담회를 가졌다.

신임 이사장으로 선정된 조성택 교수는 청년 불자 양성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뜻을 펼쳤다.

조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불교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 이는 초교파적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불교도 종파가 여러 갈래로 이는 미국과 한국만이 유일한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변혁의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매우 혼란스러울 뿐"이라며 현재의 한국 불교를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재가불자 운동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선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조 교수는 청년불자 양성이라는 서원을 갖고 '청년붓다' 운동을 펼칠 뜻을 밝혔다. "현재 청년들 중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불교에 우호적인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불교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청년 불자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접근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불교가 젊고 발랄해져야 한다고 조 교수는 말한다. 그래서 현재의 불상의 모습도 좀 더 젊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 불상의 부처님 얼굴은 50~60대 얼굴이잖아요. 저는 불상의 모습도 20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발랄한 이미지가 필요하죠.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는 방법도 매우 중요해요. 가령 제가 이끄는 고려대 불교 학생회에서는 '절 오빠' '절 누나' 이런 글씨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다니면서 포교활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학생회를 찾는 인원이 늘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유쾌하고 신선하게 다가간 거죠. 작은 아이디어지만 파급력이 컸어요.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젊은 불자들과 함께할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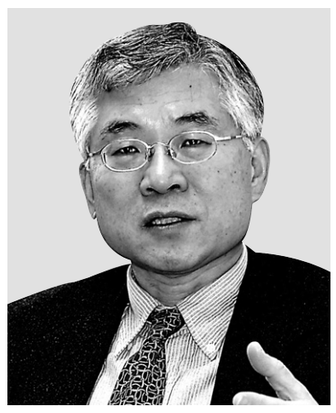
이밖에도 조 교수는 우리는선우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군경 포교운동 확대 등을 구체화시켜 나갈 뜻을 펼쳤다. 이에 선우는 앞으로 TFT를 구성해 선우의 신년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신임 이사장 취임식은 2013년 3월 16일날 진행된다.

한편 선우는 같은날 2013년 주요사업도 함께 발표했다. 내년에는 청년붓다 캠프, 불교인문과학 최고위 과정 개강, 선우창립 22주년 기념행사 및 후원의 밤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시대 소명 다하는 교불련 될 것"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에 최용춘 교수 연임



13 · 14 · 15대 회장 맡아 불자교수 책임성 필요할 때

"이 시대는 다양한 학문간 소통과 교류, 사회 현상에 대한 실천방향 제시 등 교수들에게 사회 리러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교수불자연합회는 교수사회에서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리더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제15대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으로 최용춘 상지영서대 교수가 선출됐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열고 최용춘 현 회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용춘 회장은 13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14대 회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3년 교불련 창립 25주년을 맞아 창립의 마음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1988년 2월 27일 교수불자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신행활동, 불교발전을 위한 연구와 사회 봉사활동을 목표로 창립됐습니다. 이러한 서원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최 회장은 2013년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등 권역별로 교수불자간담회 개최 △불교학생동아리 지도교수 역량 강화 △불교학생동아리 확충 △불교 인접학문 학제 연구 지원 등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최용춘 회장은 "자기 수행은 물론 불교와 제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에 희망을 빛을 던져주는 공동체로 성장해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교수불자들과의 네트워크 확대와 이웃종교와의 대화 등 활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의 교수가 약 10만 명으로 불교에 호감을 갖는 교수님들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정작 신행활동과 불자 학생 지도 등 현장에서의 활동은 미약할 뿐입니다. 불자교수들의 활약이 절실 할 때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계종 방문



문용린 후보는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수호 후보도 12월 5일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신중일 기자**

설법연구원 활동가 지원금 전달



제 9회 활동가지원금 전달식이 12월 12일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설법연구원(원장 동출)은 수상자로 △이주민 활동가 바트보양 스님 △조계사장애인전법팀 원심회 김장경 회장 △전은옥 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 등이 선정했다.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정혜숙 기자**

2012 동국인의밤 성료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는 12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10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이연택 총동창회 회장은 "중앙일보 평가 등에서 연속으로 순위가 오르는 등 동국대 발전에는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문들의 힘이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행사에 이어 '자랑스런 동국인상' 시상식에서는 동국대 연구진흥본부장 공영대 박사가 대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형종호 삼공기어공업 회장, 최진식 심팩 회장, 개그맨 이경규 씨가 자랑스런 동국인상을 수상했다. **노덕현 기자**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 입 생 모 집 안 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 과 과 정 안 내

과정		기간	교 과 목	요일	자 격	시 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 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 · 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 서 접 수

원 서 교 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www.wdu.ac.kr

"그늘지고 소외된 곳, 그들의 삶에 세상의 온기와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아티스트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다문화사회복지사, 이아기치료사 자격증취득가능
• 전국의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실습체계구축을 통한 실습 지원
• 지역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오프라인교육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문가의 꿈을 채우세요

나누는 사랑과 실천하는 삶속에 희망이 존재하듯
당신안에도 수많은 가능성과 미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은 꿈을 펼치어 더 큰 세상의 리더가 되십시오.
사회복지 전문가의 첫 발, 특성화된 사회복지학과,
원광디지털대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성화교육의 Only 원!!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1차모집 : 2012년 12월 1일(토) ~ 2012년 12월 28일(금) 2차모집 : 2013년 1월 10일(목) ~ 2013년 2월 13일(수)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 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한국문화학부 :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통장학과, 원불교학과 실용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엘굴경영학과, 서비스경영학과

입학상담 1588-2854 ※ 자세한 사항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홈페이지(enter.wdu.ac.kr)를 참조하세요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이 선두로 경판을 돌고 미륵광장을 돌아 판전으로 이동했다. 봉은사 신도 500여 명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보수 불사의 원만회향과 소원성취를 발원했다.



총무국장 진경 스님(맨 앞)과 대중 스님들이 신도들이 가져온 경판을 판전으로 옮기고 있다.

봉은사 판전 156년 속살 드러내다

서울 봉은사, 판전 보수불사 회향 고불 이운식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쓴 편액(扁額)으로 알려진 봉은사 판전(板殿)의 3개월여 보수불사가 완성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12월 13일 경내에서 판전 보수불사 회향 고불식과 경판 이운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화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신도 500여 명이 참가해 미륵전에 임시 보관됐던 경판을 판전으로 옮기는 이운식을 가졌다. 경판을 든 진화 스님이 선두로 영산전과 북극보전을 거쳐 미륵광장을 돌아 판전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동안 신도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보수 불사의 원만 회향과 소원성취를 발원했다.

"건립 이후 처음 이뤄진 불사"

진화 스님은 고불식에서 "1939년 일어난 화재로 판전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불에 타 사라졌다. 봉은사에서 판전은 150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이라며 "판전 건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보수불사를 통해 경판의 소독과 훈증처리를 마쳤다. 앞으로 경판 판본에 대한 조사와 인경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회향 고불식과 이운식을 통해 다시 한 번 정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향후 봉은사 경내의 조경을 가꾸고 석등을 달아 많은 불자들과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총무국장 진경 스님이 경과보고를 통해 "조선 말기 봉은사의 역량 있는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1856년 화엄경 80권 판각 불사의 회향"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전 뒷 마당에 습기가 생기고 경판과 탱화에 충해가 발생해 올해 7월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수리에 상정돼 8월부터 보수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경 스님은 "판전에서 보관중이던 현판 3502판을 훈증(燻蒸) 소독했고, 공사 과정 중인 11월 13일 경판의 제작과 판전 건립을 기록한 상량문도 발견됐다돼 문화재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았다"며 "3개월 여간

현존 유일 화엄경소초판 봉안
3개월여 훈증 · 소독 등 보수불사
보수 중 판전건립 기록한 상량문 발견

진화 스님과 대중 스님, 그리고 강남구청과 봉은사 신도회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지붕해체 대보수 불사를 도와 원만하게 봉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추사 최후의 절필이 걸린 봉은사 판전

판전이란 불교 경전을 새겨 놓은 목판을 보관하는 건물을 말한다. 1856년 영기 스님(1820~1872)은 〈화엄경수소연의본(華嚴經隨蔬演義本)〉 80권을 직접 손으로 베껴쓰고 이를 목판으로 찍어 인출하는 작업을 했다. 이 화엄경판이 완성되자 이를 봉은사에 안치하기 위해 법당을 지었다. 1896년 9월말 영기 스님은 판전 현판 글씨를 당시 봉은사에 기거하던 추사 김정희(1786~1856)에게 부탁했다. 김정희가 쓴 현판의 크기는 세로 77㎝, 가로 181㎝이다.

김정희는 1852년(철종 3년)에 북청(北靑)의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 과천(果川)에 있는 과지초당(瓜地艸堂)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봉은사를 왕래하다가 1856년 10월 10일에 별세했다.

이 현판은 그가 별세하기 사흘 전에 썼다고 전해진다. 현판의 글씨는 어리숙하면서도 굳센 필세를 드러낸다. 특히 '殿(전)' 자의 왼삐침을 곧게 내려 누른 점이 돋보인다. 말미에는 '칠십일과병중작(七十一果病中作, 71살 과천 늙은이가 병중에 쓰다)' 라고 낙관했다. 꾸밈이 없는 졸박(拙樸)한 글씨에서 김정희 말년의 청정무구한 심상을 엿볼 수 있다. 유홍준 교수는 현판 글씨를 "추사 최후의 절필"이라고 표현하며 "'板殿(판전)' 글씨를 보면 추사체의 졸(拙)함이 극치에 달해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판전에는 1857년(철종 8년)에 그려진 신중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30호)와 1886년(고종 23년)에 그려진 비로자나불화(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32호)가 모셔져 있다.

현존유일 화엄경소초판

판전에 보관된 경판인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목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4호)은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화엄경소초판으로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는 7세기 말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권의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해 징관 스님(澄觀: ?~839)이 주석한 것을 말한다.

전라도에서 태어난 영기 스님은 1855년(철종 6년) 가을 망월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하다가 함께 공부하던 스님들과 함께 이를 판각(板刻)하기로 해 이듬해 9월에 완성했다.

당시 사용된 저본(底本)은 성총 스님(1631~1700)이 명나라 판본을 입수해 1690년(숙종 16년)에 간행한 것이었다고 한다. 경판은 모두 3,175매로 크기는 24.7×50.9㎝이며, 한 면에 10줄씩, 각줄 20자씩 새겨져 있다.

이 경판은 19세기 중기의 것이지만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화엄경〉의 주석본으로서는 규모가 크고 희소성있는 불교 유산이다.

한편 보수 불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1월 13일 경판의 제작과 판전 건립을 기록한 상량문도 발견됐다. 회향 고불식에 앞서 최초로 공개된 판전 상량문은 가로 111.4㎝×세로 91.8㎝, 크기의 한지에 826자가 쓰여진 것으로, 기름종이로 된 봉함지에 싸여 상량구에서 발견될 당시 전혀 훼손이 없는 상태였다.

판전 건립 당시 지조 스님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상량문의 내용은 판전 내부에 걸려 있는 '경기좌도광주수도산봉은사화엄판전상량문' 현판과 동일하다.

봉은사는 상량문 사본을 제작해 보수불사 상량문과 함께 판전에 재봉안 했으며, 상량문 원본은 별도로 보관할 예정이다.

봉은사 측은 "보수를 진행하는 과정 중 자문위원을 통해 화엄경판의 가치가 부각됐으며 봉은사판전만의 독특한 판가의 구성과 기하학적 미감이 역시 새롭게 조명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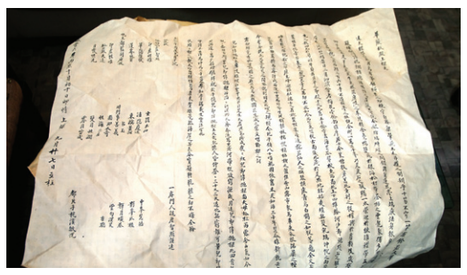
글=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0@hyunbul.com



이운을 마친 스님들과 신도 500여 명이 고불의식을 하고 있다.



판전내 벽면에 마련된 보관 선반에 이운된 경판을 쌓고 있는 모습



보수 불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1월 13일 경판의 제작과 판전 건립을 기록한 상량문도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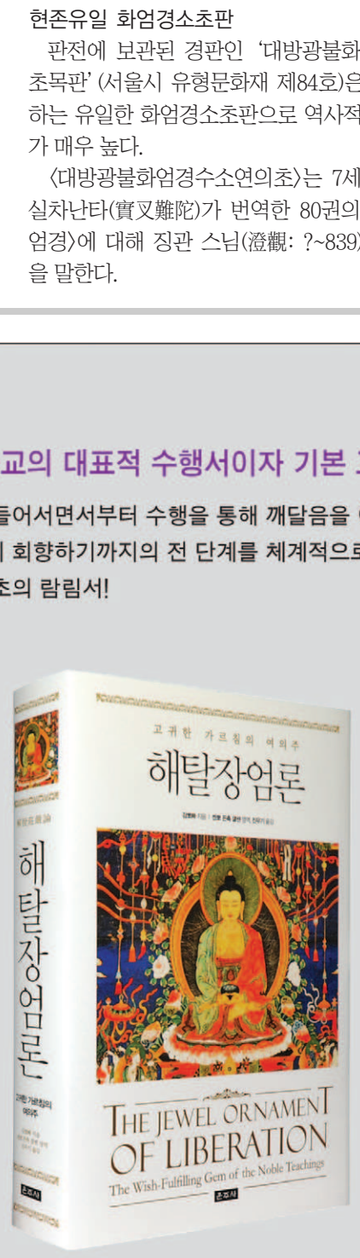


불교 공부 사전

곽철환 편저/국판 양장/404쪽/20,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되는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서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해탈장엄론

감뽀빠 저, 진우기 역/ 신국판 양장/ 628쪽/28,000원



선과뇌

아리타 히데호 · 겐유 소큐 지음 | 이성동 옮김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선과뇌 禅と脳

아리타 히데호 · 겐유 소큐 저/이성동 옮김/국판/252쪽/13,800원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포교 다변화…부부 · 남성 프로그램 시급

2012 불교 신행 · 포교 결산

2012년 불교 신행 · 포교는 내실과 외실 모두를 다지는 한해였다. 도심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강좌, 지역법회가 활성화 됐으며, 스마트폰 대중화로 다양한 앱개발을 통한 포교에 나섰다. 또한 여성 · 어린이 · 청소년 등 계층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들이 개발돼 주목을 받았다. 밖으로는 한국불교와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시행 1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기를 얻은 것. '힐링' 열풍으로 이효리, 배수지 등 연예인들이 템플스테이 체험을 하면서 일반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외국인들은 템플스테이 체험으로 한국문화의 긍정적 이미지를 안고 돌아갔다. 올 한해 동안 교계 신행 · 포교의 패턴은 어떠했고 또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나은 기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자원봉사와 스마트폰을 통한 법문 지원 서비스가 새로운 포교방식으로 떠올랐다. 또한 20 •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평생교육원 및 교양강좌가 인기를 끌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랑봉사단의 필리핀 봉사활동 모습/ 팟캐스트 종교분야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영상/ 조계사 '마인드 케어' 평생교육원의 '도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강좌/ 흥국사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미혼남녀를 위한 템플스테이 '산사의 싱글파티'

스마트폰 포교 '활발'

신행활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스마트폰 서비스다. 절에 직접 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법회현장을 확인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바쁜 회사생활로 인해 주말법회 등 각종 법회 참석이 어려운 불자들이 늘어가면서 스마트폰 등 인터넷을 이용한 법회가 늘어난 것.

서울 삼보사는 스마트폰을 통한 법회 중계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용화선원은 팟캐스트를 통해 초심자를 위한 법어 및, 생활속의 참선법, 스님의 영상 법문을 실시간으로 업로드 하고 있다. 부산 흥법사 역시 전용 앱을 만들어 흥법사에 관련된 소식을 알리고 법회 영상 등을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동국대 정각원은 매주 열리는 법회와 명사들의 강연을 팟캐스트에 업로드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유투브에서 '정토회 법륜 스님',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주제로 법문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강좌 · 교육 통한 포교 활성화

전국 주요 사찰 들이 평생교육원을 개원하면서 불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더불어 포교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서울 조계사는 3월 평생교육원을 수탁,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기관으로 취업 교육뿐만 아니라 학점,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정식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조계사는 마음공부에 중점을 두고 가족 · 부부 · 노인행복 캠프를 비롯한 CEO 자유행복 캠프 등 마인드케어(마음치유) 과정을 개설하고 청소년 상담사, 스트레스 관리사 과정 등 교육지도사 양성 과정도 마련한다.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지난 4월 '참좋은 평생교육원'을 개설해 문학논술, 미술음악, 심리상담사 등 20여 개의 전문강좌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교육지도자를 양성한다. 최근 통도사도 '마인드케어지도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위해 '불교적인 마음산업'을 선도했다.

템플스테이 10주년…프로그램 다양화

템플스테이가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으면서 내 · 외국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발간한 '템플스테이 성과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 91.2%가 템플스테이를 타인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 내국인 역시 81.0%가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남녀,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고양흥국사는 취업난 · 경제난 등으로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매월 '산사의 싱글파티'를 개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수원 용주사와 해남 미황사, 파주 대원사 등은 산모와 태아를 위한 불교식 태교수업 및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아동 · 청년 · 여성 포교 세분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계종 포교원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실질적 활동에 나섰다. '나를 찾는 선'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 양성에 힘쓰는 것. 교사들이 호흡명상, 마음수련 등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구성됐지만, 불교색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비불자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포교원은 서울, 경기, 강원, 경남 지역 등 26개 사찰에 불교스카우트 창단을 통해 어린이청소년법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여성불자를 위한 교육 열풍도 거셌다. 국제선센터는 '명상과 불교 상담의 기초'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재단은 여성리더십아카데미를 진행해 이 시대 필요한 여성정신에 대해 강의했다. 이 밖에 불교여성개발원은 차세대 글로벌 여성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선센터에서 'GEP(The Way to Be a Global Buddhist Leader)'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불교 종립대학과 사찰서 실시하는 해외봉사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은 매학기 방학마다 필리핀과 카자흐스탄에서 봉사할 학생을 모집했다. 35명의 학생이 선발되는 지원모집에는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할정도였다. 이밖에 조계사 대학생회, 금강대, 정토회 등이 필리핀 · 인도 등에서 해외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동국대 손재현 교수(참사랑봉사단 부단장)은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알려주는 최고의 교육이다. 아직까진 불교를 드러내지 않고 봉사활동을 펼쳤지만, 앞으로는 종립학교니 만큼 불교포교를 위한 해외봉사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풀어야할 과제는 없나

불교계는 부부 관련 프로그램들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서 이혼예방센터 및 전문상담 교육을 진행해 온 것이 전부다. 불교는 템플스테이, 명상, 참선 등 대표적인 수행법이 있음에도 부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각 사찰에서도 부부를 위한 법회보다 가족법회 · 어린이법회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부부보다 가족,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포교활동이 신도확장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명예회장은 "부부관계개선을 위한 법회 및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찰과 단체에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홍보효과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남성불자를 위한 신행활동 프로그램들도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남성불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법회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경원 여성개발원장은 최근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교회다니는 남자들은 변호사 · 의사 등 직업을 가리지 않고 주차관리 등 봉사활동에 열심인데 절에 오면 여성 불자들 밖에 없는 이유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불교 조기교육과 남성들의 신행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가는 해, 오는 해를 사찰서

문화사업단, 계사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개최

이제 2012년도 달력 한 장이 채 남지 않았다. 이제 다사다난한 한해를 마무리고 신년을 맞을 준비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즈넉한 산사만큼 신년 소망을 기원하기 적합한 곳은 없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에서도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소망을 기원할 수 있는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해맞이 템플스테이에서는 명상을 통해 지난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산과 바다가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사찰에서 이색적인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향기로운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시간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더해준다.

먼저, 명산에서의 새해 첫 일출을 맞는 템플스테이를 추천한다. 강원 속초 신흥사의 '설악산 권금성 해맞이 템플스테이'와 강원 평창 월정사의 '비로봉 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에서는 한국의 명산 설악산과 오대산의 맑은 기운과 함께 새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 인제 백담사는 동해바다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해넘이,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소망을 담은 발원문을 적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프로그램으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대구 동구 파계사에서는 '그대의 봄을 준비하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사에서의 해맞이와 탑돌이, 소망 담은 풍선 날려 보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는 밤 12시, 사찰 내(內) 제야의 종을 직접 타종해볼 수도 있다.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은행나무로 유명한 경기 양평 용문사의 '해맞이 템플스테이'에서는 은행잎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흥미롭다. 천 년의 시간을 간직한 은행나무 잎에 소원을 적거나, 은행나무 잎으로 열쇠고리를 만들어볼 수 있다. 사찰식 해맞이 음식을 함께 만들며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해돋이, 소망 기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그 외에도 강원 영월 법흥사의 '은빛 날개를 찾아라' 템플스테이는 꿈 주머니 만들기, 108염주 꿰기, 새벽 타종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의 새해 소망을 응원한다. 전북 김제 금산사의 '새해 맞이 희망 템플스테이'에서는 소원 등 만들기, 탑돌이, 모악산 해맞이 등산, 내비둬 콘서트로 유명한 일감 스님과의 차담도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해맞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현불뉴스(www.hyunbulnews.com) 상세 안내〉

사찰	일정	프로그램	연락처
금선사	12. 29~12.30	명상, 절 수행	02-395-9955
	12.31~1.1	북한산 산행, 떡국 나눠먹기, 주지스님과의 만남	
금산사	12~29~12.30	일감스님의 토크쇼, 스님과의 대화, 108배, 숲길 명상, 참선	063-542-0048
	12.31~1.1	스님과의 대화, 소원등 만들기, 탑돌이, 모악산 해맞이 등산	
송광사	12.31~1.1	조계산 대장봉 산행과 함께 해맞이 서원 세우기, 예불체험	061-755-0108
파계사	12.31~1.1	소원등 만들기, 참선, 타종식, 새해 걷기명상, 풍선연꽃 날려 보내기, 사찰음식(오색떡국, 연잎밥) 나누기	053-984-4500
신륵사	12.31~1.1	윷놀이, 고구마 구워먹기, 행복명상, 소원지 쓰기, 108배, 타종체험, 소원등 띄우기, 동사섭 행복론 특강, 10대 행복 마중물, 맑은물 붓기 명상, 새해 비전 세우기	031-885-2505
동화사	12.31~1.1	타종식, 떡국 만들기, 해돋이 소원지 달기, 유서쓰기 체험	053-982-0223
월정사	12.31~1.1	스님과의 대화, 탑돌이, 비로봉 산행, 소원풍선 날리기	033-339-6606
용주사	12.31~1.1	소원 염주꿰기, 참회와 정진의 시간, 타종체험, 스님과의 대화	031-235-6886
	12.31~1.1	오리엔테이션, 예불, 다담, 해맞이 산행	055-934-3110
골굴사	12.31~1.1	동해안에서 해돋이, 해맞이 기도 및 선무도 수련, 선무도 공연관람	054-775-1689

파라미타청소년, '라오스 지원' 사업 파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가 올해 라오스로 떠난다.

파라미타는 12월 22~31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한국 의료진 파견 및 교육보건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파라미타는 정여 스님과 덕조 스님(조계종 포교위원), 송묵 스님(포교원 포교부장)을 비롯해 동국대의료원 의료진, 파라미타 소속 대학생 및 중 ·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파견단을 꾸렸다.

파라미타는 라오스의 비엔티엔 외곽에 위치한 참파마을과 사방마을에서 의료봉사 및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들이 활동할 참파마을 홈파이초등학교와 사방마을 스님 중학교는 대표적인 빈민지역으로 해외구호의 손길이 단 한차례도 미치지 못한 곳이다. 파라미타 파견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홈파이 초등학교에는 책상 100여 개를 교체하고 중학교에는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2월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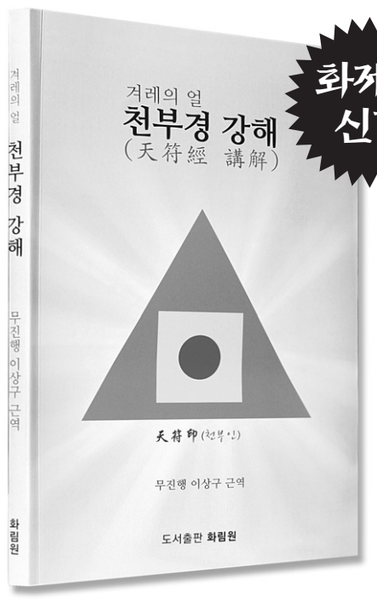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법수행의 관점에서 본

겨레의 얼 천부경 강해 (天符經 講解)

유불선 삼교(三敎)에 능통하신 무진행 스님이 명산 800일 기도중 천부경을 자득하시고 마음의 실체와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고 환희임을 깨달아 부처님 교법으로 명료하게 펴내신 "겨레의 얼 천부경 강해"



무진행 스님 지음 / 정가 12,000원

이 책의 요점은 천지는 나와 더불어 본래 하나라는 뜻이며 마음은 시공을 초월한 유일자로 불생불멸하며 우주만물의 인식주체로써 마음과 물질이 하나임과 (心物一元)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지혜광명은 그림자가 없어 태양보다 밝음을 자각하고(光明理世) 사람이 천지중에 제일 중하니 남을 도와서 살면(弘益人間) 지혜와 복덕을 구비한 인격자, 즉 성인이 될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경문중 天一一 地一二 人一三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인데 이를 깊이 이해하고 수행하면 내면에 기쁨이 가득 차오르고 환골탈태하게 되며, 막힌운이 열리고 아름다워져 살아서 행복하고 임종에 편안하며 사후에 좋은 곳에 날 수 있다"

- 경문 중에서 -

구입 문의 02)2272-4398 (주간) 010-2271-4398 (야간)

내용문의 상담 054)531-3439 017-336-7933 (무진행스님)

복지관, 한파 대비한 겨울나기 나선다

전국 15만 독거노인 집중보호 실시

올 겨울 혹독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생활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해 전국 시 · 도가 나섰다.

폭설 · 한파 등에 대비해 돌보미가 매일 방문하고 고립 예상지역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겨울에 취약한 15만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보호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 동절기 보호대책에는 지난해 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간마을 등 폭설 · 한파로 인한 전국 고립예상지역 339곳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대피소 설치가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파악한 고립예상지역에 숙식이 가능한 경로당 등을 활용한 임시대피소를 지정 · 운영토록 했다.

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공동생활가정을 임시대피소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경남 의령, 전북 김제, 충남 논산 등 82개 시 · 군, 총 437개소에 독거노인이 함께 모여살 수 있도록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독거노인가구의 전기, 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했고 전국 5500여명의 돌보미를 통해 일일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서울시는 폭설 · 한파를 대비해 자치구별로 경로당 및 센터 등 2개소씩 5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임시대피소 50개소를 지정해 24시간 운영하며, 이에 따른 난방비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

또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집 단열보수, 난방기 사전점검을 하고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집 단열보수의 경우 외부 창문에 비닐 보호막을 설치해 바람을 차단하게 하고 보일러는 '희망온돌 따뜻한 방 만들기 사업'과 연계에 일체 점검을 받고 부품교체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는 독거어르신은 4만 2천명으로 서울시 전체 독거어르신의 20%를 차지한다. 서울시

인근 경로당 '임시대피소' 마련
결식아동위해 급식 지원

는 돌봄기본서비스를 받는 1만 8000명의 독거어르신과 재가 서비스를 받는 7000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상시 돌봄서비스를 강화했다. 기본적으로 돌보미가 주1~2회 이상 직접 방문과 안심폰으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한파가 발령될 경우엔 중앙재난본부와 소방방재청에서 돌보미에게 SMS 문자로 일괄적으로 알려 어르신들에게 전달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불교계 복지관은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 효림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사회복지사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댁에 방문해 문풍지와 단열시트를 붙이고 안부를 묻는 등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파 대비 실내 · 외 건강수칙

1. 겨울철 한파에 적절한 수분섭취를 해야 한다. (따뜻한 물이나 단 맛의 음료는 체온유지에 도움이 된다.)
2. 적정 실내온도 18~20℃로 유지하고 하루에 2~3차례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준다.
3. 조금 크고 가벼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다.
4.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가벼운 실내운동을 해 신체활동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5. 외출이 꼭 필요할 시 신체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를 기상예보로 확인한다.
6. 오한(惡寒)이 느껴질 경우 즉시 실내로 들어간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송파노인복지센터 등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침체로 개인 및 기업의 후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결식아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취사 장비를 갖춘 지역 내 시설 아동프로그램과 연계해 급식, 난방비 및 겨울내의 구입비 등을 제공한다. 불교계 어린이 · 아동 복지시설로는 연꽃어린이집, 반야어린이집,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가까운 복지관 및 센터를 찾으면 된다. 또한 각 복지단체 및 복지관은 결식아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결식아동을 발견할 경우 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단체들, 소외이웃에 온기 더해

흥국사 · FC붓다 · 진각복지재단 등 참여

폭설과 한파로 인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코끝과 눈을 시리게 한다. 날씨가 궂을수록 소외이웃들의 근심은 늘어나기만 한다.

이런 가운데 소외계층을 위한 불자들의 손길이 이어져 조금이나마 추운겨울에 온기를 더했다.

조계종 흥국사(주지 대오)는 12월 11일 고양시청에서 저소득계층을 돕기위한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해 백미 108가마(10kg 864포대)를 고양시에 기부했다.

대오 스님은 "불교적 의미를 담은 108가마로 추운 겨울을 지낼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 이사장을 맡고있는 대오 스님은 2009년부터 고양시지역 저소득계층에게 자비나눔 공양미 20kg들이 1200포대를 기부했으며, 2011년에는 10kg들이 400포대를 기부했다. 또한 지난 5일 1000만원 상당의 쌀 10kg들이 400포대를 고양시청에 전달했다.

재가불자로 구성된 축구동호회 **'FC붓다(회장 이동격)'**는 12월 8일 용인 무법정사(주지 무봉) '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자선축구행사를 열고 난방비 지원과 축구용품을 후원했다.

이날 폭설로 교통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FC붓다 16명의 회원들이 동참했다. 눈 쌓인 운동장을 달리고 학교강당에서는 공연과 먹거리를 나누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이동격 회장은 "청소년의 집에서 겨울 난방비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포츠를 통해 자비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 무법정사 청소년의 집은 현재 50여 명의 어린이 ·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성장해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들도 있다.

FC붓다는 "회원들이 축구를 통해 모였지만 사회와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한 신체 가꾸기를 첫째로 삼아 스포츠를 통해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쿠쿠사회복지재단(이사장 구자신)과 12월 11일 아름다운동행 1층 사무총장실에서 쿠쿠전기압력밥솥 77대(10인용 밥솥), 약 2000만원 상당의 물품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쿠쿠사회복지재단의 전달식은 '쿠쿠사랑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방의 소외된 계층에게 밥솥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서울지역의 다문화가정에게 밥솥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아름다운동행은 12월 10~17일까지 서울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기압력밥솥 배분신청을 모집하고 21일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혜정 정사)은 12월 7일 성북구 관내 수급자 부부세대 및 독거노인 등 2세대에게 연탄 2000장을 지원하는 '진각복지 119' 행사를 마련했다.

진각종 통리원장이자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혜정 정사를 비롯한 기획국장 및 종무원 25명은 직접 성북구를 찾아 연탄 배달 릴레이 봉사에 나섰다. 진각복지재단은 각 세대 내 연탄을 쌓아놓을 공간이 협소해 1 · 2차로 나눠 연탄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탄은 혜정 정사 1000장, 청소년육성회 성북지부 1000장 후원으로 마련됐다.

진각복지재단측은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된 문○○(73), 이○○(74) 어르신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정릉 산동네에서 살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제능력이 없어 극심한 한파에도 연탄을 구매할 수 없어 현재 전기장판에 의존해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진각복지 119'는 사회복지응급서비스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에게 119와 같이 신속하게 인적 · 물적 지원을 하는 진각복지재단의 특화사업이다. 현재까지 150여 대상자가 선정돼 6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금강정사가 위탁 운영하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는 지난 10월 열린 '철산바자회' 수익금을 통해 겨울나기용품과 후원물품을 지역 내 130여 저소득 가구에 지원했다.

또한 12월 1일에는 저소득가정 밀집지역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7가정에 연탄 2000장을 배분했다. 이밖에 지역 봉사회와 주미 등의 후원을 통해 1800kg의 김장김치를 확보해 경로당 및 저소득 가구 7곳에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흥국사(주지 대오)는 12월 11일 고양시청에서 저소득계층을 돕기위한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해 백미 108가마(10kg 864포대)를 고양시에 기부했다<좌>.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혜정 정사)은 12월 7일 성북구 관내 수급자 부부세대 및 독거노인 등 2세대에게 연탄 2000장을 지원하는 '진각복지 119' 행사를 마련했다.

흥국사…3년째 쌀 보시
FC붓다…축구용품 후원
진각복지…복지응급서비스

암투병 엄마에게 미안한 사지마비 아들

생명나눔, 12월 선정환자 여정호 씨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한 여정호(28 · 남) 씨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휴학을 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고 학비를 벌면서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생활을 꿈꿔온 착실한 청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2011년 9월 14일 일어난 사고로 사지마비와 뇌내출혈 및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게 된 것.

설상가상으로 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지만 업무상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산재처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모는 2년 넘게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만 하다. 월세 사는 형편에 1000만 원이 넘는 아들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24시간 교대로 간병하느라 경제활동도 못하고 건강상태도 안좋아지는 부모님을 보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올해 6월 어머니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어머니는 자신도 환자이면서 아들 간병을 하느라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여정호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 후 아내마저 암 투병을 하게 돼 한 가정에 두 명이나 치료를 받는 상황이 기가 막혀 한숨을 쉬다가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이라도 건강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호 군은 관절구축에 따른 지속적인 관절운동과 근력강화 운동, 기도절대 상태에 대한 훈련 및 식이연습, 화상치료를 위한 피부이식 치료가 필요하다. 아직 젊으니 잘 견디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임을 의심치 않지만 문제는 치료비다. 1000만 원이나 더 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여정호(28 · 사지마비) 씨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심봤다! 대풍수 한국명당터 만산도집 출간!!
21세기 최대이슈 양반은 씨가 있어도 제왕은 씨가 없으며 누구나, 도인, 신선, 득도로 대풍수가 될 수 있다

역대 풍수지리는 중국 오행멸망경과 삼류서적 짜집기를 초월 중국천하를 통일시킨 감여진본 곽박 도인과 당일행 도인을 비롯 동양삼국 옥룡자, 도선국사, 일사보감 무학대사에 이어 불불이박박 태일대사와 대각 조장희 도인은 육경신 도통으로 영안 신안 도안 혜안을 열어 평생 동안 전국산천에 숨어있는 대혈과 은형 금시발복 대명당을 진광의 빛으로 난해한 비법을 한국 명당터 만산도집을 출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풍수지리 저변확대는 물론 앞서 갈 수 있는 풍수지리에 한층더 밝은 미래를 밝히는 바이며 천기, 지기, 수기, 양기, 음기 권력 출세 명예통치 제왕 거부장자가 대대로 자손만대 문무장생 만복이 이어지는 이 한권의 천기누설에 도전 하시옵고 정사, 야사, 비사 등으로 지역 산천에 들어있는 비전과 역대 도선국사, 나옹선사, 무학대사, 박상희 선생은 원두표를 도끼정승으로 만들고 조풍선생이 잡은 최효문의 딸 무술이가 금시발복 하여 왕비로 영조대왕을 탄생시킨 전국명당과 양반은 씨가 있어도 제왕은 씨가 없는 명당을 천기누설 하는 바이오니 출세 거부장자 성불득도 명예 권력 제왕 통솔에 뜻이 있는 재야인에 등불이 되는 단 한번 기회

충청도에 있는 자미원터



당대 금시 발복하는 천하대명당 제왕출현 일만이천도인 출현하는 천하대지터

心 천하대도 임진년 루진통으로 비구 비구니 보살들도 성불한다

천지개벽에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천하제일의 득도비전 임진년 누진통 입문으로 심안, 도안, 신안, 영안, 천안 득도로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천하제일의 스승이 되고 비구, 비구니 보살들도 성불득도 한다. 이 기도로 누구나 대풍수가 되어 자기주변을 관리관장 할 수 있는 도인이 되는 금강진법 사구계, 수육보영, 진동도, 민족염, 봉천명진법, 욕다즉 패안이요, 욕서즉 개안이로다. 심즉 덕이요, 덕즉 복이니라. 영육합일, 즉심시불이로다.

● 이 기도는 2012년 12월 24일 밤 9시부터 25일까지 1박 2일 / ● 준비물 : 간편한 옷, 필기도구

心 천지공사 불선도 달마경신 도통회 총본산 心
02)821-6622,7767 / 010-3239-3110 불불이박박 합장

판매처 : 보련각 02)733-0333 금액 : ₩150,000원

“보고 들을 줄 알아야 진면목 만나”

고은 시인 초청 동국대 정각원 교직원 법회

주제 ‘불교와 더불어, 시대와 더불어’

동장군의 기세가 무서운 겨울날인 12월 10일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고은 시인 초청 교직원법회가 열렸다. 한국 문학의 거장이라 일컫는 시인의 강연을 듣기 위해 추운 법당에 구름처럼 대중들이 몰려들었다. ‘불교와 더불어, 시대와 더불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 강연에서 시인은 자신이 출가를 했던 경험과 문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 진리의 길 등을 시대에 비추어 얘기했다. 스스로 ‘내가 걸어온 산길’이라는 소제목을 붙인 이 강연에서 온몸으로 시대를 살아온 시인의 삶과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을 한번에 들을 수 있었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고은 시인은 … 고은 시인은 1933년 군산 출생으로 1952년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1958년 시 ‘폐결핵’으로 등단했다. 1962년 환속한 시인은 1970년 이후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해 자신만의 문학세계와 가치관을 전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인 25년 역작 시집 〈만인보〉를 출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편하게 ‘불교와 더불어 시대와 더불어’라고 지어 봤습니다. 따지고 보면 매우 애매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고쳐봤습니다. ‘내가 걸어온 산길’이라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불인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는데 그 스님과 소동파 시인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당나라 때 시인은 꿈을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때는 꿈보다는 해석하는 시를 많이 썼죠. 송나라 최고의 시인은 소동파입니다. 세계를 해석하는 대가죠. 또 길 가다가도 스님들을 만나면 수작을 거는 시인입니다. 이런 소동파가 불인 선사를 만나죠. 법을 청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하죠.

“여보 유정 설법을 들으면 뭐해.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지”

그 뒤로 소동파는 길 가다가 어떤 풍경을 보고 바로 무정 설법을 깨칩니다.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들은 팔만 사천의 그 소식을 뒷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까’라는 내용의 시를 씁니다. 이분은 또한 시련도 많이 겪지요. 말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배도 가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했지요.

고생한 사람 얘기를 하다보니 숭산 스님 생각이 나네요. 숭산 스님과 저는 1961년 지금의 불교신문인 ‘대한불교’를 창간했습니다. 숭산 스님이 발행인이 되고 제가 주필 겸 교정 겸 해서 그렇게 인쇄소 다니며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첫 살림을 차린 거죠. 이후에 숭산 스님은 홍콩에 가서 교단을 차리면서 세계 불교를 주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서 버클리 쪽에 집을 한 채 빌려서 작은 법당을 차리고 포교를 했지요.

그러다가 보스턴 쪽으로 가 세탁소를 차렸는데 거기서 하버드대 학생들을 만나서 최면술을 걸어주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죠. 스님이 최면술을 할 줄 알았아요.

스님이 이렇게 하나둘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숭산 스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소련(리시아)까지 들어가서 전법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서도 우리 불교가 알려져 있습니다.

숭산 스님은 궁극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오직 모를뿐’ 이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지요. 자신이 걸어온 길로 개척한 화두입니다. 이 화두는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숭산 스님처럼 우리도 화두를 개척해야 합니다. 중국 것만 가지고 와서 화두라고 하지 우리의 화두가 없습니다.

제가 허튼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불교에서는 아는 것만 법문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들을 중생으로 규정하는 거지요. ‘내 아는 바를 너희들은 들어서 터득할지어다’ 이런 거지요.

삼보에서 말하는 승보는 스님이 중심이 아니라 스님 재가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서 꽃잎 하나하나 잎사귀 하나하나가 함께 피어오를 때 그것이 진정한 승가의 의미일 것입니다. 비구 혼자 승가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요 비구니 혼자 성립되는 것도 아니며 우바이 혼자서도 우바새만으로도 승가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이 넷이 합해져야 그것이 승가가 형성됩니다.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계급이 없습니다.

‘오직 모를 뿐’ 숭산 화두 처럼 우리만의 화두 개척 해야

“부처되면 부처라는 이름 없어 가는 과정이 부처의 길이죠”



12월 10일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100여 명의 대중들이 모여 고은 시인의 강연을 경청했다.

부처가 되면 부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부처의 길이지요. 우리 불교가 결과, 값 매겨진 것만 높이고 그 과정을 잘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얼마쯤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다 알 수 있어도 아는 것을 조금씩 줄이세요. 천천히 아세요.

흔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합니다. 천기누설하지 말라고. 참 멋진 말이에요. 근대의 악은 천기누설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근대 문명이라는 게 심하게 얘기하면 악이에요. 지혜를 쉽게 누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이치 우주에 대해서 훤히 알면 그건 실례에요. 이집트의 여신 중에 이시스가 있지요. 얼굴이 가려져 있지요. 베일을 걷자마자 죽습니다. 이처럼 너무 발가벗겨져 있는 것보다 옷을 두껍게 입고 저 뒤에 숨어 있어야 좋아요. 부처님 복장 속에 여러 가지 들어있지만 다 안 열어 봐도 돼요.

절에서 풍경소리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풍경소리가 들리죠. 말 하자마자 귀가 듣자마자 알아듣는지도 몰라요. 충분히 이런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들립니다. 내부는 항상 외부를 지향합니다. 팽창을 꿈꿉니다. 내부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천천히 나갑니다. 문을 열어 놓으면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옵니다. 교류를 합니다. 이 세상은 늘 움직이고 변하하지요. 이게 무상입니다. 진리 자체도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진리만이 진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교의 진리는 가설입니다. 새로운 진리는 계속 와요.

제가 출가한 얘기를 잠깐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당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전후방이 모두 전쟁터였어요. 한반도 한국 전쟁 모두 전쟁터였지요. 한반도는 초토화가 됐어요. 산천이 초토화되고 절도 타버리고 그런 아비규환의 세상이었지요. 여기서 제가 살아남은 거예요. 제 또래 젊은이 절반이 죽었는데 말이죠.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자책감이죠. 가는 곳마다 시체였어요. 시체를 너무 많이 봤어요. 길을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지요. 모든 게 폐허였어요. 그때 스님 한 분을 만났지요. 출가는 선택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석 같이 붙듯이 스님을 따라갔어요. 스님께서 이렇게 물어셨죠.

“너 왜 따라오니?”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길가에서 선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그 스님한테 ‘효봉한테 가거라’라는 명을 받았어요. 거기가 통영의 미래사였어요. 그곳에 법정 수좌도 있고 그랬지요. 거기서는 좋은 가사도 없었고 양말은 구멍나고 칫솔도 없어 소금으로 양치하는 그런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효봉 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된 거죠.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루 한 끼만 먹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중이 될 수 없는 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구석으로 가서 엉엉 울었어요.

물론 바로 나온 건 아니었어요. 불교정화 운동이 있을 때 비구종단 대변인으로 일도 하고 그러다가 문인이 돼요. 제가 1958년 시 ‘폐결핵’으로 〈현대시〉에 추천을 받으며 문단에 등단하고 〈피안감성〉이라는 처녀시집을 해인사에서 내게 되죠. 그렇게 저는 환속을 하게 됐죠.

오늘 제가 소주제로 ‘내가 걸어온 산길’이라는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수행의 길은 어렵습니다.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추사 김정희는 조선후기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당시는 승려와 친해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사가 초의를 친구로 선택한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추사처럼 참다운 것을 알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나율 존자가 꾀를 부리다가 혼나고 눈을 떠 열심히 공부해 천안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금강안의 눈이 있으면 진면목 진리를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 미인이지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해골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진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타력의 힘을 통해 자력의 위대성을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불함으로써 부처님을 느끼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금강’도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스킨십 같은 거 말입니다. 만나서 껴안거나 악수해야지 실감납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건져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내 것으로 긁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없는데서 있는 것을 꺼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야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어야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냇물 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부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질 때 소리가 오는 것입니다.

진면목은 소리로 옵니다. 눈을 거치고 몸을 거쳐 귀로 옵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말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말하기 앞서서 많이 들어 둡시다.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남성용 여성용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스마트폰, 음성 이용해 사찰 재해 예방

사찰방재예측시스템 살펴보니

"현재 비상구역에 이상 행동이 감지됐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주십시오."

12일 서울 봉은사 삼성각에서는 비상벨과 함께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이성진 파슨텍 대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연신 화재발생을 알리는 안내문구와 경고음이 울렸다.

이성진 대표가 차분히 경고방송 버튼을 누르고 통화하듯 말을 하자 그 말이 그대로 삼성각에서 흘러나왔다.

12월 12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개최한 사찰방재예측시스템 시연회의 한 장면이다. 전통사찰 방재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조계종이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938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첫해인 2012년에는 98개 사찰이 선정됐다.

봉은사 사찰방재예측시스템은 조계종 인증업체인 새턴정보통신(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파슨텍(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의 지능형 통합방재 예측시스템이다. 특히 이 지능형 통합방재 예측시스템은 전기 화재의 주원인인 아크(온도 5000~1만 5000도의 불꽃)를 감지한다. 아크는 스파크와 달리 벽 속에서 일어나며 누전차단기 등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전각 내부에서 얼굴 정밀 판독이 가능한 200만 화소급 CCTV와 온도와 습도, 연기를 감지하는 복합감지기, 적외선 온도로 작동하는 재실센서 등이 도입됐다. 각 전각에는 한눈에 각종 상황을 볼 수 있는 지능형 분전반이 설치됐다.

봉은사 경비실에 마련된 관제실에 마련된 대형 모니터에는 연신 CCTV가 돌아가며 각 상황을 알리고 있었다.

관제실 위쪽 응향각에 화재 발생상황을 설정하자 관제실 대형 모니터의 전각 배치도의 응향각 부분이 붉게 표시됐다. 또 시스템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서는 화재발생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떴다. 스마트폰의 현장 버튼을 누르자 고화질 영상이 전송되며 안내방송과 연계됐다. 하단에는 119, 경찰서,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에 바로 통보할 수 있는 버튼도 눈길을 끌었다.



이성진 파슨텍 대표가 사찰방재 예측시스템 관제장면을 봉은사에서 설명하고 있다. 원안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실시간 경보 및 현장감시

초고화질 카메라, 센서로 정밀 판독
화재 주원인 아크 감지, 원격 차단
비상 · 경계 · 생활 구역 상시 감지
절 부담금20%…올해 98사찰 선정

사찰방재예측시스템은 사찰 건강검진

"현재 봉은사 법왕루 1층에서 과전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관제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서 시스템 앱을 설치한 이성진 파슨택 대표의 스마트폰에서는 쉴새없이 경고음이 울렸다. 겨울철 종무소가 위치한 법왕루에서 용량을 초과하는 전기 사용이 일어난 것이다.

언뜻보면 귀찮을 만도 하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런 과정이 오히려 사찰을 화재로부터 지켜낸다고 강조했다.

전기 설비를 담당한 이승원 새턴정보통신 과장은 "탕비실 등에 누전 등을 잡아내는 등 전기설비가 잘돼있는 봉은사만 해도 안정화에만 6개월이 걸렸다"며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위험들이 정밀한 시스템으로 인해 드러나는 과정으로 하나씩 원인을 제거해 나가면 화재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설치한 사찰의 평은 좋은 편, 특히 주지 스님 홀로 있거나 상주인원이 작은 사찰일 수록 시스템 활용도가 높다.

이성진 파슨텍 대표는 "주지 스님이 홀로 있는 음성 가섭사의 경우 스님께서 출타 시 사찰 상황을 바로 알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따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사찰방재예측시스템을 구축한 사찰은 미미하다. 12월 10일 기준으로 준공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조계종 사찰은 올해 사업 목표의 50% 수준인 41개에 불과하다.

이유는 20%인 자부담에 대한 사찰 측의 부담감. 전각이 많은 봉은사는 사업비 중 1억원을 부담했다.

박희승 조계종 문화부 차장은 "아직 시스템의 유용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찰 홍보를 통해 시스템 필요성과 활용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조계종은 시공업체와 함께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문명대 교수,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수상

학술 · 연구 분야 수상자로 선정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사진〉가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학술 · 연구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2월 5일 2012년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은 문화유산 보호 관리에 공로가 큰 관계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문명대 교수는 〈한국의 불화〉, 〈한국조각사〉, 〈한국불교미술사〉, 〈석굴암〉 등 수십 권의 전문저서와 400여 편에 이르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우리나라 불교조각사 및 불교회화사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한국 미술사 정립과 후학 양성에 앞장서온 서왔다.

특히 국내 최초로 반구대 암각화를 발견했으며, 지난 1993년과 1994년 2차에 걸쳐 러시아 연해주 지역 발해 유적지에 대한 러시아, 북한, 대한민국 3국 공동발굴 조사 책임을 맡아 총괄했다. 또 지난 2002년에는 한국미술사연구소 주관으로 고대 인도지역인 파키스탄 간다라에 대한 해외 발굴, 세미나 및 학술교류를 통하여 국위선양에도 기여했다.

이밖에도 문명대 교수와 함께 김정동 목원대 교수가 학술 · 연구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보존 · 관리 분야에는 임동조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부회장과 윤봉택 서귀포시 공무원이, 봉사 · 활용분야에는 정의연 남해역사연구소장이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2025년 황룡사 9층탑 복원한다

경주 남산 암각화 기반 10분의 1 축소 모형 제작, 예산 2500억원

신라 선덕여왕 14년 경주에 세워진 황룡사(皇龍寺) 9층 목탑의 최종 복원안이 확정돼 축소모형이 만들어졌다. 이 모형탑을 토대로 문화재청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경주 황룡사지에 79.2m 높이의 목탑을 복원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건축조영연구소장헌덕 교수팀은 지난 8월부터 황룡사 9층목탑 재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최종복원안이 확정됐으며 2월부터 10분의 1 모형제작에 들어간 상태다.

복원 모형은 가로 · 세로 3.4m 길이의 바닥면 가운데 심주(心柱 · 중심기둥)를 포함해 65개의 기둥이 세워지며 4면 7칸 구조로 만들어진다.

층마다 마루가 깔리며 층과 층 사이엔 텅비어 있는 암층(暗層)을 만들어 충격을 방지한다. 현재 10개월 동안 진행한 부분은 2층 높이로 모형 완성은 2013년 말로 예정돼 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12년(643년) 자장(慈藏) 율사의 건의로 2년 만에 지어졌다. 9개의 층은 신라 주변 9개 나라를 뜻하며 신라가 불국토이며 경주가 그 중심임을 의미한다. 1238년 몽고 침입으로 전소돼 당시 건축 방식이나 설계 방식 등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모형탑의 외형은 황룡사 옛 터가 보이는 경주 남산 옥룡암 부근 부처바위(탑곡마애조상군)에서 발견된 9층 탑 암각화를 바탕으로 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이번 모형탑이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실제 탑의 1대1 복원작업을 2016년부터 10년간 진행한다. 복원사업 예산은 총 2900억원으로 이중 1500억원이 목탑 건설에 사용된다.

노덕현 기자

궁예가 출가한 사찰 최초 발견

중부고고학硏, 14일 발굴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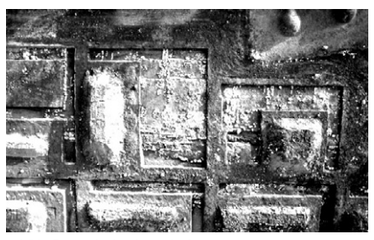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가 머리를 깎고 출가했던 통일신라 사찰이 최초 발견됐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중부고고학연구소(소장 김무중)는 12월 14일 강원도 영월 흥교사터 주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흥교사(興敎寺, 이전 사찰명 세달사)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문헌기록에서 보이는 궁예(弓裔, ?~918)의 초창기 세력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변이 방치된 상태였다.

문화재청 긴급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발굴에서는 당시 사찰 관련 건물지 10여 동을 비롯해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의 기와 조각, 청자 조각 등 다량의 유물이 발견됐다.


영월 흥교사터 발굴현장

연구소 측은 조선시대 건물지도 확인돼 흥교사의 중창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흥교사는 통일신라 때부터 오랜 기간 영월지역의 중심 사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록도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강릉 굴산사지서 선방자리 첫 확인

중원문화재硏, 13일 발굴결과 발표

신라시대 구산선문 중 사굴산문의 본산이었던 굴산사지에서 선방 흔적과 함께 고려와 중국 요나라 간 교류관계를 밝히는 명문기와가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범)는 13일 강릉 굴산사지(江陵 ?山寺址, 사적 제448호) 발굴조사 현장에서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2년도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결과 조사구역 내에서 총 7개의 건물지와 담장지, 계단, 보도시설과 배수로, 다리(石橋), 디딜방아 시설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방형초석 건물지(정면 5칸, 측면 2칸)와 북쪽의 대형 건물지(정면 6칸, 측면 4칸)를 중심으로 동 · 서에 긴 행랑지가 확인됐다.

중원문화재연구소는 "이와 같은 건물지의 배치와 내부 온돌시설들로 볼 때 조사구역은 굴산사의 승려들이 생활했던 승방지(僧房址)와 참선 등을 위한 선방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天慶三年'(천경삼년) 명 기와가 추가로 발견됐다.


강릉 굴산사지 발굴현장

중원문화재연구소는 "이 명문와를 통해 고려와 요나라 간에 활발한 교류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영주 부석사, 의상 화엄사상 학술대회

12월 22일, 부석사 설법전서

화엄사상연구원(이사장 근일)은 12월 22일 오후 2시 영주 부석사 설법전에서 제7회 의상 화엄사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화엄사상과 연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상현 동국대 사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필원 동국대 연구교수의 '초기불교 상좌부의 연기설',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화엄의 법계연기설', △김도공 원광대 교수의 '통일신라 화엄연기사상의 수용 양태' 등이 발표된다.

또 토론자로 임승택(경북대), 이자랑(동국대), 장진영(원광대), 이상옥(동국대), 석길암(금강대), 유정업(원광대) 박사가 나선다.

화엄사상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시대의 갈등과 문제들을 진지하게 조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4)633-3464

노덕현 기자

설 법 · 화 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8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특별지도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종교)위원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2012년 동계정진법회 안내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보림선원 서울선원에서는 2012년 동계정진 법회를 실시합니다.
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셨습니다. 재가자는 생업에 종사하고 혈연을 돌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짜내어 공부해야 합니다.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거사풍의 공부방편입니다. 특히 이번 정진에는 백봉선생님의 육성설법과 녹취집을 교재로 하며, 아울러 일심행 서울선원장의 법문과 함께 학인들과의 개별면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2년 12월 28일 (금) 오후 8시부터
2013년 1월 1일 (수) 오전 12시까지
■ 내 용 : 참선, 백봉선생님 설법, 선원장 법문과 면담
■ 주 제 : 예불송 반야심경 선문염송
■ 장 소 : 보림선원 서울선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33)
선릉역 7번 출구 나와 200미터(3분 정도 거리)
커핀그루나루 좌회전, 오른쪽 두번째 빌딩 2층
■ 회 비 : 1일 2만원 (참석기간에 따라 자유로이 납부가능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010-8751-6611 / 02-3452-3033
■ 준 비 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개인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참석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공부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보 림 선 원 서 울 선 원 장 합장

불자님들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 지키기 위한
전통 뜸,침술,한약 대특강

『동양의학방송국』이사장이신 덕운스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한 일환으로 불자님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19일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대강당(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강의일정
▶오후 2시 ~ 4시 : 한방약초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약차 및 한약재 강의)
▶오후 4시 ~ 6시 :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회 비 : 각 과목당 월 15만원(불교인 30%할인)
▣ 문 의 : 02)3487-2311

강 사 약 력
• 덕운 스님 법계 : 대덕 / 중국 한의사
• 박정아 한약사
한의학 석사. 의과학 박사 / (사)대한한약사회 여한약사회장 / 저서 한방차 다이어트

전남·북 불교단체 사회봉사 빛났다

광주전남불교계 2012 결산



광주전남불교신도회는 지난 7월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광주콩종합센터'를 수탁받았다(좌).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올 한해 많은 홍역을 치렀던 광주전남불교계는 올해의 교훈을 밑거름 삼아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모습이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찰과 별도로 불교단체에서는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다.

올해 많은 회원사업을 실시한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는 부설로 운영하는 '저절로생협'을 통해 지난 7월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광주콩종합센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성과를 내었고, 수미산 산악회(1월), 카일라스 합창단(11월), 찬불가 교육사업, 108배 기도회 모임 등을 잇따라 설립하면서 많은 회원사업을 펼쳐나갔다. 또한 어등산 절터에 대한 불교문화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지역사회에 불교계 역할을 확장시켰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쳐내고 있는 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최근 '행복한 쉼터'를 지난 9월부터 개설했다.

지역 사찰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행복한 쉼터는 생활이 힘든 어른들 100여 명에게 매일 점심을 대접하는 무료급식소로 지역복지단체와 관공서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기존 차문화아카데미, 장학사업, 재가화엄학림, 외국인센터 외에도 차문화체험학습장을 광주시내에 열어 차문화를 보급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2012년 어린이, 청소년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단체를 꼽으라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를 들 수 있다. 환경연대에서는 올 한 해 10대의 뉴스를 선정했다. △불교환경연대 사무실 확장 이전 △광주시교육청 후원 자따마따 1박2일 매달 진행 △청소년을 위한 지리산마음캠프 첫 진행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대표 연광 스님 선임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 선정 △광주불교방송에 환경캠페인 연중 진행 △소모임 산애들애 활성화를 위한 김정식 단장 선임 △회원증대 사업 지속적 진행 △김정분 회원 회갑기념 후원기금 전달 △지속적인 연계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담보 등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2013년 연계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은 올 한 해의 가장 큰 사업으로 지난 10월 송광사에서 개최된 8재계 행사를 꼽았다.

전국적으로 10번째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역대 행사 중 가장 잘 진행됐다는 자체평가와 함께 30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 개최됐다.

광주전남포교사단은 또한 외부 지원금이 없이 자체적 재원을 확보해 암태도 로만사, 가거도 섬포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목포교도소, 장흥교도소에서 매월 1회씩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군법당(목포 지산부대, 함평 군부대병원) 장성 11전차대대 지원활동, 광주소년원(고령정보고등학교) 교화활동, 염불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영균 단장은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님과 재가자들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불교 내에서 포교사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대비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광주 동구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법림사 주지)는 최근 외부의 후원들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자체적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세대 집을 방문해 진행하는 청소봉사와 각 마을 경로당 점심제공 및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사업, 생필품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무진 스님은 "최근 호스피스 병동에 불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스님들의 지원활동이 절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대표적 복지관인 송광종합복지관(관장 도제)은 2012년에 많은 지역 밀착사업을 전개해 호응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복지관 등급인 가형으로 선정돼 기존 운영비 지원액에 8천만원이 추가됐다.

대표적 지역사업으로 푸드마켓, 장애인쉼터 및 작업장 개설, 광주 하나원쉼터, 북카페 개설은 특히 눈에 띈다.

탈북자인들 쉼터인 하나원쉼터는 탈북인 2명을 고용하여, 아직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한 탈북인들의 쉼터로 광주시 5천만원, 행정안전부 8천만의 지원금으로 16평 규모의 아파트 5채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다.

푸드마켓은 광주 광산구의 35000명의 수급자중 600여명을 선정하여 매달 2만원씩 마켓에서 구입해 갈 수 있는 곳이다.

북카페는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누구나 쉽게 책을 빌리고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방과후 지역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신도회 '불교인의 밤' 개최


익산불교신도연합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수행·포교·복지·자원봉사 분야 등 신행활동을 정리하고 계사년 익산불교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 한해 신행활동에 노력해온 익산 지역의 불자들을 격려하고 새해 익산불교의 발전을 다짐하는 '익산불교인의 밤' 송년법회가 12월 9일 익산 연리지 웨딩 컨벤션에서 열렸다.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지광, 숭림사 주지)가 후원하고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한 해동안 수행과 포교, 복지, 자원봉사 분야등의 신행활동을 정리하고 계사년 익산불교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지광 스님, 익산 사암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한수 익산시장, 김대오 익산시의장 등 내빈과 불자 800여 명이 참석해 풍물패와 범패 공연에 이어 송년법회의 여흥을 즐겼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자들이 모두 일심 단결해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지역사회에 회향하는 모범적인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지광 스님은 "항상 진실되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선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주 스님은 지역 사회내 봉사활동에 노력한 마한 거사림(회장 오창록)과 대원회(회장 모순영)에 격려금 3백만원을 희사하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 개소


총무원 청사 개소식에는 종정 지암 스님, 총무원장 법산 스님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임제불교조계종은 총무원 청사를 개원하고 지역 포교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임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법산)은 12월 9일 경남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삼정사에 총무원 청사 개소식과 부처님 삼존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정 지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새롭게 조성된 총무원과 삼존불 조성은 많은 종도들과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지암 스님(임제불교 조계종), 법산 스님, 신풍 스님(대한불교대원종 종정), 법민 스님(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나용수 회장(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위원회)을 비롯해 300여 명의 종단관계자와 신도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포교열정 담은 수필 '코끼리 발자국'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이며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이택회 씨가 수필집 〈코끼리 발자국(도서출판 고요아침 刊)〉을 펴냈다.

늦깎이로 수필을 쓴 글쓴이는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다.

독서와 여행, 답사 등을 통해 느낀 진솔한 이야기들을 '삶[人生], 깨달음, 여행, 옛것' 등 네 마당 86편의 수필로 펼쳐 보이고 있다.

문장이 매우 짧고 쉬우면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공감과 깨달음을 준다. 이 책은 '읽는 재미와 깨달음을 주면서도 새로운 것을 아는 기쁨'을 일러주고 있다.

글쓴이는 수필집과 함께 익산문화와 불교문화 관련 논문을 엮어서 〈익산문화연구〉도 함께 펴냈다. '미륵사지 사리봉안기에 나타난 불교사상', '간다라 미술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등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회관 자원봉사자 대회 열어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연)는 12월 12일 전북불교회관 지하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북불교회관 무료 경로식당의 급식 봉사와 도시락 배달 봉사에 동참한 30여개 봉사단체와 후원자 등 200여명이 동참한 이날 자원봉사자 대회는 한해 경로식당 봉사활동에 동참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무료경로식당은 매일 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공양을 제공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100여개의 도시락을 각 가정에 배달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송광사 스님들 김장불사 회향

순천아동센터 500포기 전달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무상)는 12월 12일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순천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들에게 나눔의 김치 500포기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김치는 지난 12월 2~4일 3일간 송광사에서 '스님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김장불사'에서 마련된 것.

행사에는 무상 스님, 허홍량 회장(순천지역아동센터협의회)을 비롯해 아동센터장 40여 명이 참여했다.

송광사는 지난 여름 지역아동센터에 나눔의 쌀을 지원하고, 이번 겨울에는 김치를 후원했다.

특히 아동센터장들과의 환담을 통해 지난 여름 나눔의 쌀 전달식에서 주지 무상 스님이 약속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송광사 방문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매월 1주씩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요청하여 방문할 경우에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악산 청련암 중창불사 회향



김제 금산사 산내암자인 청련암이 3년여에 걸친 복원중창불사를 회향했다. 〈사진〉

12월 8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해 관법 스님, 보승 스님,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을 비롯한 불자들과 포교사들이 참석했다.

청련암 극락전에서 열린 중창불사회향법회에서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랜 수행터를 복원하게 된 것은 오로지 원력과 신심으로 가능했다"고 치하했다.

청련암은 한때 청사굴로 불렸으며 1598년 정유재란과 한국전쟁 중 소실된 것을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 불기2554년부터 삼성각 해체 보수, 요사채와 극락전을 완공하고 이날 3년여에 걸친 중창불사를 회향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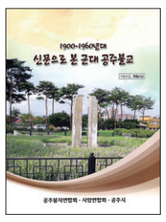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공주 불교 역사 한눈에 본다

공주불자聯 〈1900…〉 발간



계룡산 갑사 팔상전 내에는 계룡풍덕원이라는 공주 최초의 고아원이 있었다. 복덕월 보살이 경영하는 이곳에는 7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노인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은 상급학교를 보내고 결혼 연령에 달하는 이들은 시집장가를 보내주었다.

공주 지역 근대 불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공주불자연합회(회장 김국환)와 공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중하, 신원사 주지), 공주시(시장 이준원)는 〈1900~1960년대 신문으로 본 근대 공주불교〉를 펴내고 찬란했던 공주의 불교문화유산을 담아냈다.


공주불자연합회는 〈1900~1960년대 신문으로 본 근대 공주불교〉를 펴내고 찬란했던 불교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사진은 1960년대 마곡사 스님들의 모습.

이웃 종교에 비해 역사 빈약
지역 불교 자료 남기고자 기획

135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자는 원효사 주지 해월 스님이 기획하고 자료수집 편집 등을 담당했다.

해월 스님은 "그동안 공주시가 편찬한 지역 책자에는 이웃 종교에 대한 내용은 많은데 불교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 사실 불교계 활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자에 실리지 않은 것은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지역 불교계의 역사도 알아주었음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 책에는 계룡산 갑사 복덕월 자비행, 마곡사 본말사 기사 모음, 공주불교 포교당 등의 기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다.

특히, 1920년대 공주불교 포교당은 능인야학 운영 등 1천 여명의 대중들이 모일 만큼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한다.

스님은 "자료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쉽지가 않았다. 다행히 출판사에 다니는 신도의 도움을 얻어 신문 검색 기능을 알게 되어 풍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진 자료 등은 많이 아쉬웠다. 특히 90대의 노스님을 찾아 갔더니 신변을 정리하며 두 달 전에 사진을 태웠다고 하더라. 정말 그때는 참 난감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공주불자연합회 김국환 회장은 "공주지역은 마곡사 신원사 갑사 동학사 등 천년 고찰과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돼 있다. 특히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로 1932년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 되기 전까지 충남 불교문화의 본산지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불교계에서 필친 활동상은 수없이 많다. 이번 발간을 계기로 찬란했던 불교문화유산을 보존·계승·발전시키는 일에 더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공주불자연합회는 앞으로 1960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공주 불교 역사를 정리한 책자도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부산 불자 화합 단결에 최선"

부산불교승가聯 창립

부산지역 '초종파 스님'들의 모임 사단법인 부산불교승가연합회가 창립됐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는 12월7일 부산 삼광사 지관전에서 창립 법회를 열고 이사장으로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을, 초대회장으로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민 스님을 추대했다.

이번 법회에서 부산불교승가연합회는 부산불교연합회의 연등축제, 사명대사 추모행사, 팔관회 행사시 지원 등 부산지역 종단간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은 "종단과 사찰을 대표하여 모인 승가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부산의 모든 시민과 불자가 화합하고 단결해 서로를 존중하고 빛내줄 수 있는 진정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자"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부산지역 '초종파 스님'들의 모임 사단법인 부산불교승가연합회가 12월 7일 창립했다.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민 스님은 "부산지역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범종단적 승가연합체를 탄생시켰다. 부산불교와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파수꾼이 되자"고 말했다.

증명대법주 정각스님은 회장 법민스님을 비롯한 임원진에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이사장 화산스님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영남불교 봉사단 '임정회' …송년법회 개최

포항과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스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영남 불교 봉사단 '임정회'가 12월 10일 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창립 후 첫 번째 송년 법회를 가졌다.

이날 송년법회에는 '임정회' 소속 스님과 신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승호 포항시장, 이병석 국회부의장, 이칠구 포항시의장, 채중훈 포항불교신도단체연합회장 등 기관과 관련 단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영남불교 봉사단 임정회는 지난 4월 창립 해 지역 복지시설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곳에 방문 봉사와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해인사, 화엄21천도법회

17일 혜남 스님 초청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경남 합천 해인사는 12월 17일 오전 11시, 경내 대적광전에서 제5회 화엄21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다. 또 불자들이 여든 장의 '화엄경 변상도'를 49일마다 네장씩 사불해 완성한 변상도 20장을 전시하는 사불전도 경내 구광루에서 마련한다.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 조형물 불교적 의미 담아야

사찰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마당을 지키는 탑, 법당 안에 모셔진 불상,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경전, 눈이 맑고 단정한 스님, 스님이나 신도들이 들고 있는 108염주, 스님들의 묘탑인 부도, 마당에서 불을 밝히는 석등, 골기와를 씌운 건물들, 길에 연달아 서있는 문, 연꽃이 가득 핀 연지 등이 생각날 것이다.

이렇게 사찰하면 기억되는 것들은 하나같이 불교를 표상하는 상징물들이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불교가 교단을 이루고 사찰이 지어지면서부터 존재해온 것들로 지역에 따라서는 요소별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도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물상(物像)으로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근본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불교적 상징물들의 특징은 우리들에게 친근하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장소성을 가진다. 즉,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고,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관적 정체성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생경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다 싶은 것은 불교적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언제부터인가 옛 사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조형물들이 사찰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환하게 웃음을 짓는 포대화상이나 천진난만한 모습의 동자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조형물들은 신도들에게 위안을 주고 즐거운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신앙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불교적 상징성을 가진다.

대구에 있는 오래된 사찰에도 새로운 조형물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악어가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조형물이다. 악어는 보통 열대지방의 늪이나 강가에 서식하는 악어목의 파충류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찰에는 더욱이 인연이 없는 동물이다. 그런데 왜 이 악어가 사찰에 만들어져 있는 것일까? 아마도 신도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신선한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선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을 것이다.

사찰에 도입되는 조형물은 모두 불교적 상징성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현대의 불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새롭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형작업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즐거움을 주고 사찰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교의 사상이나 교리에 맞지 않는 조형물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찰은 어디까지나 종교적 장소이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대구 ㅇ사찰에서 볼 수 있는 악어상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경을 일부씩 공부하다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며 기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이센스 경전학습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염송경과 염송의범을 일관성 있게 편집하여 탑재하므로써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화면을 보면서 듣고 반복할 수 있도록 체계성과 정확한 강사의 음성을 들어 학습할 수 있도록 짜여진 시청각 경전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⑱ 남한산성 둘레길 그리고 망월사 장경사



〈남한산성 둘레길〉

청의 군사는 삼전도 들판에 자리를 잡았다. 조선의 군사들은 성문을 잠그고 군포지(軍舖址 · 초소)에 올랐다. 궁을 버린 조선의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 청의 군사는 산성을 포위했다. 47일 후, 조선의 임금 인조는 새벽바람에 삼전도에 나가 청 태종의 발아래 엎드려 백성을 내주었다. 병자호란.

'남한산성 둘레길' 이다. 사적 57호 남한산성은 신라 문무왕 12년(672)에 최초로 토성이 구축됐다. 오늘날의 성곽 모습은 조선 인조 때 만들어졌다. 청량산(해발 500m)의 험준한 지형을 따라 쌓아올린 성곽의 둘레는 11km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본성은


성벽을 따라 걷는 남한산성 둘레길은 구간마다 길의 모양과 주변 환경이 변화무쌍해서 잔잔한 걷기와 다소 힘든 걷기까지 다양한 '걷기' 를 즐길 수 있다.

조선의 임금·스님들의 슬픈 역사가…

9km이고, 나머지 2km는 옹성(甕城)이다. 성곽을 따라 걷는 둘레길은 5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성벽을 따라 걷는 남한산성 둘레길은 구간마다 길의 모양과 주변 환경이 변화무쌍해서 잔잔한 걷기와 다소 힘든 걷기까지 다양한 '걷기' 를 즐길 수 있다.

동문에서 시작해서 동장대터까지 걷는 2구간을 걸었다. 길이는 약 1.4km로 걷는 데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남한산성 둘레길은 보통 남문에서 시작해서 성곽을 따라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남문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한산성 안에는 9개의 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4개의 절만이 전해온다. 2구간에 망월사와 장경사가 있다.

"청의 유군들이 남한산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좁혀왔다. 산세가 가파른 서문 쪽으로는 보병이 다가왔고, 물이 흘러서 들에 잇닿은 동문 쪽으로는 기병이 다가왔다."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을 보면, 조선의 임금 인조는 "그 해 겨울은 일찍 와서 오래 머물렀고, 바람은 빠르고 날카로웠다."고 했다고 썼다. 동문(좌익문) 앞에 섰다. 성문은 며칠 전 내린 눈을 이고 꽁꽁 얼어 있었다. 몇 십 년 만에 찾아온 추운 겨울이 그 해 겨울과 비슷하다.

둘레길 초입에 망월사가 있다. 둘레길을 시작하기 전에 망월사에 들렀다가 다시 성문에서 둘레길을 시작하면 된다. 가파른 길을 약 150m 정도 걸으면 망월사다. 백구 두 마리가 멀리서부터 짖는다. 망월사 역시 며칠 전 내린 눈으로 도량이 온통 하얗다. 마당에 들어서자 백구가 달려와 앞뒤로 경중거린다. 망월사는 성 안의 9개 사찰 중에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적멸보궁이다. 13층 석탑에 진신사리를 모셨다. 망월사는 누가 언제 창건했는지 모른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세울 때 서울의 장의사를 헐은 뒤 그 곳에 있었던 불상과 〈화엄경〉, 금솥 등을 이곳에 보냈다고 한다. 이후의 연혁은 남아 있지 않다. 남한산성은 1624년(조선 인조 2) 벽암 각성 스님이 팔도도총섭이 되어 전국에서 스님들을 모아 2년 만에 완성한 산성이다. 본래 산성 내에는 옥정사와 망월사 2개의 사찰만이 있었으나, 산성 축조에 동원된 스님들의 숙식과 훈련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한흥사와 장경사 천주사 국청사 개원사 남단사 동림사 등 7개의 사찰을 더 지었다. 억불의 시대. 본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스님들의 슬픈 역사가 오래된 지층의 단면처럼 산성을 채우고 있다.

망월사는 일제강점기에 폐사됐다가 1990년부터 중창불사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망월사와 함께 장경사, 국청사, 개원사가 복원됐다. 망월사를 나와 동문에서 다시 둘레길을 시작했다. 성문에 이어진 성벽 위로 잔설이 길게 얹혀있다.

2구간에는 비교적 가파른 길이 많다. 시작부터 가파르다. 성벽 밖으로는 무례한 발자국에 짓밟혔던 조선의 슬픈 산하가 펼쳐져 있고, 성벽 안쪽으로는 조선의 임금과 신하와 군사가 초조하게 걸었던 숲이 길을 따라왔다. 겪지도 않은 역사가 먼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무의식의 형질처럼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 유추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신기한 일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역사일 뿐이고 성벽으로 나뉜 산성의 안과 밖은 '안' 과 '밖' 일 뿐이었다. 성 밖의 지난날이 어떠했든 먼 하늘엔 구름이 떠 있고, 성 안의 남겨진 것이 무엇이든 숲에선 새들이 지저귀고 있다.

가팔랐던 길이 조금 무뎌질 때 쯤 장경사가 보였다. 장경사는 동문에서 약 800m 지점에 있다. 장경사는 성내에 존재했던 9개의 사찰 중 당시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다. 역시 축성 시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위해 세운 군막사찰이다. 다시 말하면 축성 당시 나라에서는 각성 스님을 도총섭으로 삼고 전국의 스님들을 번갈아 징집하여 사역에 더했고, 각성 스님은 1638년(인조 16)에 이 절을 창건했다. 효종이 북벌을 계획했을 때는 이 절에 총섭을 두어 승군을 단련시키는 한편 성내의 사찰뿐만 아니라 전국의 승군을 지휘하는 국방사찰의 역할을 담당케했다.

장경사를 나와 다시 성벽을 따라 길을 걸으면 완만하던 성벽길은 모퉁이 하나를 돌면서 돌변한다. 동장대(지휘와 관측을 위한 누각)터로 오르는 약 300m 길은 급경사 길이다. 한바탕 땀을 쏟으며 길을 오르면 동장대터가 있는 산성의 꼭대기다. 성 밖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고요하기만 한 성 밖의 설경은 고단했던 역사의 실존을 의심케 하고 측은한 마음을 일으켰다. 어찌 조선의 임금은 이곳까지 종묘사직(宗廟社稷)을 들고 와야 했을까. 남한산성 둘레길은 개인적인 사색만을 허락하는 길은 아니었다. 겪지 않았지만 영혼이 물려받은 역사의 유산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성벽을 따라 걷는 남한산성 둘레길은 지난날과 함께 걷는 길이다. 성벽 위로 한바탕 칼바람이 지나간다. 김훈이 〈남한산성〉에서 다시 적는다. "칼바람이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눈 덮인 봉우리에서 회오리가 일었다. 긴 바람 속에서 마른 나무들이 길게 울었다. 주린 노루들이 마을로 내려오다가 눈구덩이에 빠져 얼어 죽었다. 새들은 돌멩이처럼 나무에서 떨어졌고, 물고기들은 강바닥의 뻘 속으로 파고들었다. 사람 피와 말 피가 눈에 스며 얼었고, 그 위에 또 눈이 내렸다.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산성축조시 스님들의 숙식과 훈련을 위해 세워진 망월사는 성안의 9개사찰중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장경사는 성내 현존하는 4개 사찰중 당시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다.

WORLD BUDDHISM LEADER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과 연방승가회의
지원 아래 고승 및 원로 수행 일정을 종교성내
불교대학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께서
역시 그 분이라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심사 후 우선 세계불교와 한국 불교 승가 정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출가 의식을 초발심의
행자로 돌아가 1주일간 종단불문, 법납, 속납 까지 불문하여 남방불교의 연방승가회 스님들의
지도하에 종교성의 불교대학에 입소하여 단기수행을 완료한 스님 중에
우선 108명의 고승 및 원로 큰스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 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 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한국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만이 추대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성 장관과 불교 수호 지도자협회 우킨쉐이의 박수와 격려속에 구족계 및 품수식도 함께 봉행합니다.
108분의 고승 및 중진 스님들께서 500인 추대위원을 심사 위촉하게 됩니다.

구족계 자격자
1. 구족계 자격 : 한국의 모든 종단소속 비구 스님.
2. 법납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 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종사 대종사 품수식
1. 법납 25년 이상 : 종사
2. 법납 30년 이상 : 대종사
* 1차 서류 심사후 면접 2차 : 심의의원회 최종심사

최종 추대되신 큰스님 명단을 불교계 신문에 사진과 함께 공고합니다. (추대 의식 봉행일 추후 발표)

신청기간 : 2012년 12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 (음력 정월 19일) 6박 7일간 소승불교 체험 수련 정진

법납, 속납 일체 평등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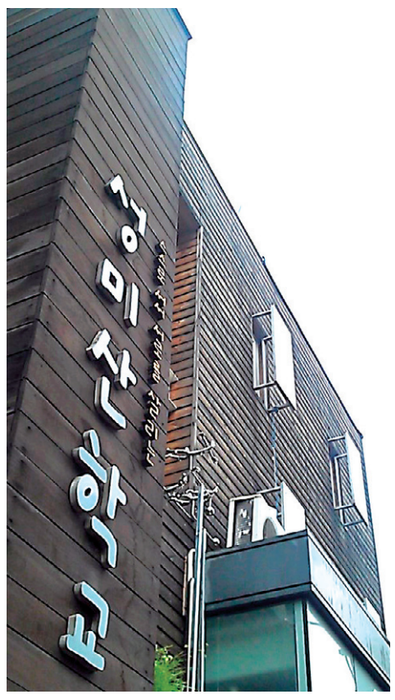
구족계 수계자 전원 종교성 불교대학에 입소 구족계 봉행
남방불교 전통의 불명수여. 수행 결사 (위빠사나, 발우공양 예불의식) 체험
일 시 : 2013년 2월 28일 ~ 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 행사 이후 한국에서 재 추대행사 계획

미얀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팩스 02)733-5671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적 대안사회의 모색, 공동체운동(1)

공동체 구현, 산업사회 해방돼야 가능





대표적 불교 공동체 정토회의 일일 장터<사진 오른쪽>와 성미산 마을 공동체의 성미산 학교 전경.<사진 왼쪽> 이제는 작은 지역단위에서 생산과 소비, 교환과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을 이루며,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태주의자들은 왜 공동체를 꿈꾸는가

최근 안성의 금광저수지 근처에 '들꽃피는 마을'은 10가구가 3년간의 토론과 준비를 거쳐 집을 짓고 입주했다. 충북영동의 백화마을도 역시 3~4년여 준비를 통해 40가구가 산 기슭에 집을 짓고 2012년 2월에 입주했다. 서천의 산너울마을, 홍동면 문당리 생태마을, 함양의 청미래 마을, 산청의 안솔기 마을 등 모두 생태공동체마을이거나 코하우징공동체이다.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는 코하우징공동체는 3~40명이 조합을 결성하여 도시인근에 토지를 매입하고 계획하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다. 개별적 공간은 최소화하고, 공동체공간을 만들어 매주 같이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같이 돌보고, 협력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할까? 그 이유는 우선 공동체에 사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기꺼이 협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만한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아웃집끼리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생활하기도 편하고 어린이들이 여기저기 놀 곳도 많고 편안하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고, 덜 외롭게 느끼게 된다. 사람끼리 사랑으로 관계맺으며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많이 갖게 한다. 그리고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끼리 같이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 곳이며, 함께 한다는 소속감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웃간에 필요한 물품들을 거의 교환이나 빌려쓰는 일, 때로는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이 많아 적은 돈으로 공동소유하며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잇점은 돈이 없어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의 꿈과 그 역사

생태적 대안사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거대한 국가단위보다 작은 지역단위에서 생산과 소비, 교환과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을 이루며,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궁극적 삶으로 꿈꾼다. 인류는 항상 어려운 자연조건내에서 서로 협동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나갔고, 더불어 협력하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나갔다. 공동체는 위기의 시대에 미래의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결사를 이루어 내는 단위가 되기도 했다. 특히 종교의 역사는 가히 공동체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전통을 갖고 있다.

공동체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부처님의 승가공동체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에세네파의 쿰란공동체와 이후 예수의 정신을 유지하며 살았던 초대기독교공동체, 그리고 가톨릭의 수많은 수도회도 바로 이러한 신앙적 결사를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들이다.

이뿐만 아니다. 홍길동전의 '율도국', 여인들만의 이상촌 '이어도', 티벳의 '샹그릴라', 유럽의 '유토피아', 기독교의 '에덴동산'이나 불교의 '정토'등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할 사회이기도 하지만, 중생이 도탄에 빠지거나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꿈꾸어 온 이상사회이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할 때, 사회의 단순한 개혁만으로 난국을 헤치고 갈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인류는 오히려 처음으로 돌아가 항상 삶의 근본을 찾아 머리를 맞대고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모색해왔던 전통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과거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사회주의자들과 시오니즘이 결합되어 '키부츠'라는 공동체로 시작된 국가이다. 대체로 4~600명으로 구성된 각각의 키부츠 공동체는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공동생활, 공동생산, 공동판매의 무소유공동체로 현재에도 약 270개가 있다. 그리고 사유재산은 허용하되 공동생산을 하는 공동체 '모샤브'가 360개 있으며, 공동노동기업체인 '모샤브 쉬투피'는 70여개, '모샤바'라는 농촌공동체가 100여개가 있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근본 동력이 되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에 대한 정치적 판단 여부를 떠나 사막이라는 황무지, 외부의 공격이라는 악조건속에 상호부조하며 발달된 새로운사회를 만드는데 바로 공동체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데 공동체는 아주 유용한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공동체 선행연구는 승가공동체
생태사회 지향자들 공동체적 삶 꿈꿔
이스라엘…새 사회 건설에 주요역할
대안적 공동체는 경제로부터 독립

현대의 공동체의 흐름

19세기는 가히 공동체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공동체들이 만들어 졌다. 로버트 오웬과 같은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이 완전사회를 꿈꾸며 만든 뉴하모니공동체로부터, 1787년 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쉐이커공동체, 하모니 공동체, 후터파공동체, 드호볼파공동체 등이 있고, 아난다협동마을, 르네상스공동체있다. 1950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발전되어 온 일본의 야마기시회 등, 세계의 공동체는 현재 수만개에 이른다.

그러다 60년내 말과 70년내 반전운동, 반문화운동에 힘입어 새로운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19세기의 공동체운동이 '무엇에 대한 추구'를 위한 공동체로 엄격한 질서와 구조, 원칙을 갖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반면, 70년대 만들어진 공동체는 '무엇에 대한 도피'로서의 성격 때문에 질서잡히지 않고 혼돈스러운 형태여서 오래 지속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1980년 약 3만여개의 공동체가 있다고 쥬드슨 제롬(Judson Jerome)은 그의 책 "Families of Eden에 추측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동체가 자신들을 대중에 드러내길 꺼려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동체의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대략 이보다 약 10배 20배정도의 공동체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새벽의 건설자들 (Builders of the Dawn)〉의 저자는 말하고 있다.

실제 드러난 공동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계획공동체 (Intentional Community) 인터넷사이트 'www.ic.org'에는 2011년 2월 현재 미국에만 1,827개의 공동체, 미국 이외의 나라는 795개 등 총 3,600여개의 공동체사이트가 모여져있다. 그곳에는 각기 공동체의 성격와 규모, 인원, 역사와 위치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격월로 공동체잡지도 발행하고, 격년으로 공동체편람(Directory)를 발간한다. 이 사이트에서도 대략 2/5는 종교공동체이고 나머지 3/5는 일반공동체로 보여지며, 이 종교 공동체 중에는 여러 개의 불교공동체도 포함되어 있다.

공동체의 종류

공동체의 종류로는 우선 종교공동체가 있다. 같은 공간에서 무소유의 삶을 기반으로 고도의 정신적인 깨달음을 추구해온 승가공동체와 같은 정신적 공동체이다. 또한 가톨릭의 수도원의 다양한 종교공동체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수도원의 개수는 하나님도 알수 없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많고, 오늘날 가톨릭을 이끌어 온 것이 바로 수도원의 전통이었다.

두 번째는 계획공동체 (Intentional Community)로 일종의 코뮨적 공동체, 공동소유공동체이다. 일정한 공동의 공간에서 배타적인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이곳은 무소유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 부분적으로 개인소유를 인정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소유보다 공동소유의 부분이 더많고, 따라서 집단적인 결속력이 아주 높다. 승가공동체나 이스라엘의 키부츠, 우리나라는 화성의 산안회나, 불교의 정토회, 부안의 변산공동체, 태백의 예수원, 울진의 한농복구회, 화성의 두레마을 등이 있다.

세 번째는 공동주거공동체 (Co-housing)로, 공동으로 집을 짓고 사는 것이다. 개인적소유를 기반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공동소유하며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귀빈래마을이나 안솔기마을, 홍성 문당리공동주거, 영동의 백화마을, 안성의 들꽃피는 마을 등이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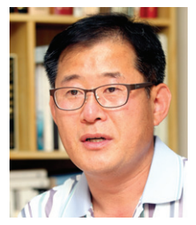
네 번째는 마을공동체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두레나 기타 부족사회, 씨족사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마을끼리의 공동체적 상호지원과 협력을 통해 자치와 자립적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의 두레, 일본의 마을만들기 (마치쓰구리)운동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사 한생명공동체, 부산의 물만골공동체, 괴산의 솔뫼농장, 홍성문당리의 마을공동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 번째는 생산공동체이다. 생활이 아니라 생산을 중심으로하는 공동체로,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생활협동조합의 경우를 말한다. 마을공동체중에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곳은 대부분 생산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의 모샤브나, 우리나라의 솔뫼농장, 장성의 한마음공동체, 원주의 협동조합, 홍성의 문당리등의 농업을 중심으로한 생산공동체가 있고, 스페인의 바스크지방의 '몬드라곤협동조합공동체', 이태리의 볼로냐 등도 지역내에 다양한 산업을 협동조합화하여 생산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는 네트워크 공동체이다. 함께 생활하고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부조하면서 협력하는 공동체이다. 대체로 온라인상의 네트워크와 같이 동반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사회변화와 관련된 의미있는 것만을 본다면 LETS(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으로 불리는 '지역통화(Local Money)'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의 한밭레츠의 '두루' 서울의 미내사(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의 'FM money', 서초와 송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서초품앗이', '송파 품앗이', 과천의 '과천 품앗이, 어울림 품앗이', 성남의 '문화통화', 대구의 '희망품앗이', 구미의 '사랑고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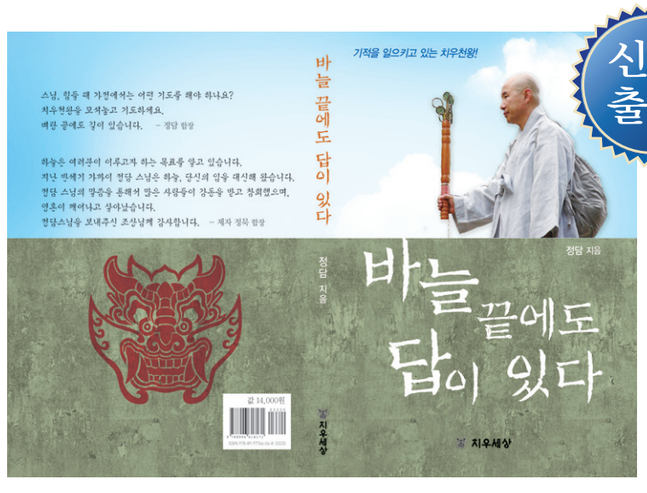
새로운 사회를 위한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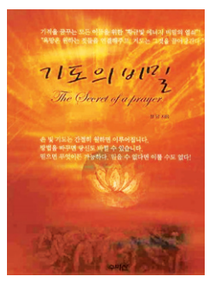
오늘날 인류는 환경위기를 목전에 두고 현재의 개인주의적이며, 소비적이고 수탈적인 생활양식의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요구를 강제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류가 시도해온 방식은 지향하는 방식대로의 작은 모델을 만들어 살아보는 것이며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름붙이고 있다. 독일의 초기 녹색당이론가 였던 루돌프 바로(Rudolf Bahro)는 '공동체 전략은 근본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산업사회에서 해방된 영역을 건설해야 한다.' 고 하면서 대안적 공동체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로 부터 독립적 사회형태'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오늘날 수많은 개량주의적 시도는 결국 '산업사회의 구멍을 메우면서 결국 산업사회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며 오히려 이러한 산업사회에 포섭되지 않은 '섬', '해방된 영역'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씨앗을 만들어나가는 시도를 동시에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눈"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1. 이것 저것, 어느 곳에 점을 봐도 신통치 않을 때
2. 이사, 매매, 부부, 자식문제 궁금한 분
3. 사업성공, 주식, 선물옵션 대박비법
4.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되는 사람은 되는길이 있습니다.



치우기도상 출시

스님!
가정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되나요?
이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약 력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총무원장
· 주요저서 : 기도의비밀, 불교척척박사

055)932-4103, 010-9537-0034
Daum 카페 주소창에 합천용문사 검색 를 쳐보세요!

용문사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산18-1번지
(영상테마파크와 합천댐중간지점)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광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라후라야 발 씻은 물 마실 수 있느냐?”
(장애)

⑩ 밀행제일(密行第一) 라후라 존자

〈상〉아버지의 유산

부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인 라후라 존자 이야기다. 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게 되는 그는 승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받게 되고, 자신의 부족한 행동을 계율로 극복해가며 드러내지 않는 수행을 이어가는 그를 밀행제일이라 했다.



그림 · 김홍인

부처님의 아들 최초의 사미로 출가
부처님 설법으로 대중생활 극복
인간존재의 근본인 오온과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깨우쳐

라후라는 부처님이 태자 시절 출가를 결심하고 기회를 찾고 있을 때 태어난다. 출가를 결심하고 있었던 부처님으로서는 아들의 출생이 괴로움이었다. ‘라후라’, 그 이름은 부처님의 탄식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그 뜻은 ‘장애’다. 출가 목전에서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라훌라(장애)!”라고 탄식했다. 그리고 이레 째 되던 날 궁을 나섰다.

아버지의 유산

9년 만이었다. 마가다국에서 전법을 펴고 계시던 부처님과 교단의 소문은 부처님의 고향 카필라국까지 전해진다. 태자가 부처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은 사자를 보내 부처님을 고향으로 불렀고, 드디어 부처님은 고향 땅을 밟는다. 고향에 오신지 7일째 되던 날이었다. “라후라야, 잘 들어라.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여라.” 부처님의 부인 야소다라였다. “아버지!” 부처님과 비구들의 행렬이 멈췄다. 잠시 멈췄던 부처님은 9년 전을 생각하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라후라는 부처님의 뒤를 따르며 어머니 야소다라가 시킨 대로 말했다. 니그로다숲에 들어선 부처님은 사리불을 찾았다. “사리불이여, 이 아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원하니 라후라를 사미로 받아 주거라.” 목련 존자가 라후라의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혔다. 스승은 사리불 존자가 맡았다. 라후라의 출가였다. 최초의 사미다. 부처님의 유산은 자신의 법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니그로다숲에 모인 비구들이 법왕의 계위를 이은 라후라를 축복했다. 아버지로부터 출생을 축복받지 못했던 아들 라후라. 아들이지 못했고 아버지이지 못했던 두 사람.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다.

라후라의 출가 소식을 알게 된 정반왕은 니그로다숲으로 달려왔다. 머리를 깎고 발우를 든 손자를 본 정반왕은 기가 막혔다. “태자인 네가 궁을 떠났을 때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단다. 너의 빈자리를 채우려던 난다마저 출가했고, 이제 저 어린 것마저 데려가려느냐?” 정반왕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했다. “나에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아이의 출가는 받지 말아다오.” 정반왕이 돌아간 뒤 부처님은 계율을 보탰다. 〈율장〉 대품에서 전한다.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부모의 동의가 없는 아이의 출가를 금하겠다.” 부처님은 이튿날 라후라와 함께 고향을 다시 떠난다.

아홉 살 라후라

부처님의 아들, 라후라. 그에게 특별한 배려 같은 것은 없었다. 똑같은 부처님의 계율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하지만 라후라는 아홉 살이었다. 라후라가 감당하기엔 쉽지 않은 변화였다. 아울러 아직 어린 라후라의 행동은 수행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방해가 되기 일쑤였다.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라후라는 대중을 놀리거나 장난삼아 한 거짓말로 주위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궁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라후라의 행동들이 대중 생활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라후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썽꾸러기가 되어 있었고, 대중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다. 사리불과 목련 존자가 각각 화상과 아사리를 맞고 있었으나 쉽지 않았다. 〈유마의기〉 권2에서 전한다. “라후라는 출가 후 웃음이 많고, 입이 거칠었으며,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자주 그를 희롱하였는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계율로서 훈계하여 계율을 지킬 것을 약속 받았다. 이에 라후라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성내는 것을 영원히 단절하니 부처님께서 라후라의 인욕과 지계를 찬탄하여 밀행제일이라 했다.” 어느 날, 걱정하시던 부처님이 결국 라후라를 찾아간다.

아버지의 첫 가르침

라후라는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자리를 깨끗이 정돈하고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부처님은 라후라가 준비한 물로 발을 씻은 뒤 대야의 물을 조금 남기시고 라후라에게 물으셨다. 〈맛지마니까야〉 ‘암발랏티까에서 라후라를 교계한 경’에서 전한다.

“라후라야, 너는 이 대야에 물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을 보느냐?” / “그렇습니다.” / “라후라야, 고의로 거짓말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조금 남은 대야의 물처럼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은 그 조금 남은 물을 가리키며 라후라에게 물으셨다. “이 발 씻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후라가 놀라며 말했다. “발 씻은 물은 더러워서 마실 수 없습니다.” / “그대도 이 물과 같다.” 라후라의 눈이 커졌다. “사문이 되었는데도 수행을 게을리하고,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며 삼독의 더러움이 몸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 더러워진 물처럼 쓸 데가 없는 것이다.”

다시 부처님은 그 조금 남아 있는 물을 쏟아버리시고 라후라에게 다시 물으셨다. “라후라야, 너는 그 조금 남은 물이 버려진 것을 보았느냐?” / “그렇습니다.” / “라후라야, 고의로 거짓말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버려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엔 대야를 밖으로 내던지며 말씀하셨다. “라후라야, 너는 지금 저 대야가 깨질까봐 걱정이라도 했더냐?” / “아닙니다. 어차피 값싸고 하찮은 물건입니다.” / “그렇다. 그대는 사문이 되어 몸과 입을 함부로 하여 대중을 힘들게 했으니 끝내는 어느 누구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담으로라도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후라가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의 설법이 이어졌다. “라후라야,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들어 안 것을 내일도 또 다음 날도 잊지 않는 것이다. 라후라야, 거울의 용도를 아느냐?” /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 “그렇다. 거울을 보듯이 쉬지 않고 자신을 반조하면서 행동을 해야 하고, 말을 해야 하며, 생각을 해야 한다. 라후라야, 행동이 청정했고, 말이 청정했고, 생각이 청정했던 과거세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해 행동과 말과 생각이 청정했다. 그러므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고 라후라는 수행자의 삶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오온과 마음챙김

라후라가 열여덟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라후라는 탁발을 위해 사위성으로 향하는 부처님을 따랐다. 라후라는 부처님의 뒤를 따르며 생각했다. “만약 부처님께서 전륜성왕이 되셨다면 나도 왕위를 잇고 전륜성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 부처님께서는 라후라의 마음속에서 속세에 대한 갈애가 일어남을 보시고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맛지마 니까야〉 2권 ‘라후라를 가르친 경’에서 전한다. “라후라야, 물질(色)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물질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라후라에게 오온에 관해 설하려 한 것이다. 색(色)이 무상함을 설하자, 라후라가 물질(色)만 그런 것인지를 여쭙는다. 부처님은 느낌(受), 생각(想), 결합(行), 알아차림(識)까지도 그러하다고 설하신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라후라는 가던 길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지금 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후라는 곧바로 근처 나무 아래로 가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그 때 스승 사리불 존자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라후라를 보고 다가가 말했다. “라후라여,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라.” 저녁이 되어 라후라는 부처님께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해 여쭈었다. 부처님은 우선 물질에 대해 설하신다. 부처님은 라후라의 몸에 열망과 욕망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앞서 간략하게 설한 물질에 대해 다시 마흔두 가지 측면으로 욕망을 분해하여 그와 관련된 열망과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긴 설법을 한다. 그 과정에서 라후라는 인간 존재구조의 근본이 되는 오온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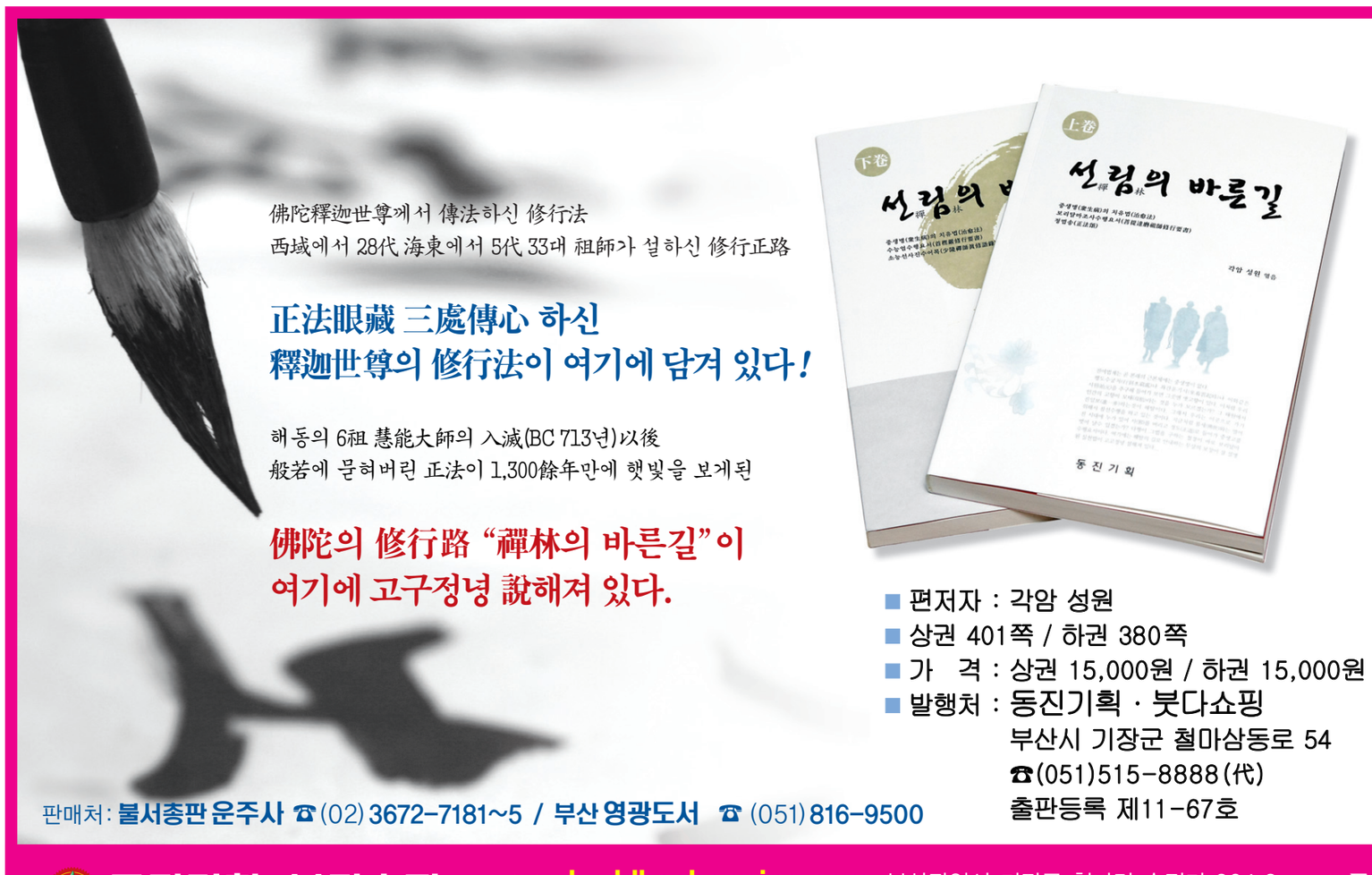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은 16단계의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해 설한다. “라후라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이와 같이 (16단계) 수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에도 ‘멸한다고’ 알 것이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 이 16단계는 〈맛지마 니까야〉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경’과 〈쌍윳다 니까야〉 6권 ‘낌빌라 경’에서도 자세히 설하고 있는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은 사념처의 첫 걸음이기도 하고 위빠사나수행의 첫걸음이기도한 중요한 수행법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라후라 존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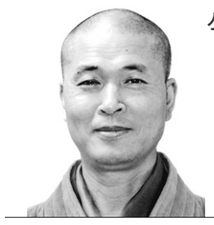
부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또한 십대제자 중 유일하게 사미로 출가해 사미의 효시가 된다. 라후라, 갈라호라, 하라고라 등으로 음사한다. 라후라는 부처님이 짧은 고향 방문을 마치고 다시 고향을 떠날 때 사리불 존자를 화상으로, 목련 존자를 아사리로 출가한다. 어린 나이인데다 본인의 발심으로 이루어진 출가가 아니었기에 출가 초기 그의 대중생활과 수행생활은 여법하지 못했으며 대중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보이지 않는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밀행제일로 불리게 된다.

(그림은 조향숙씨의 석굴암 라후라 판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납의'를 입었는가

조주 스님이 어떤 학승에게 물었다.
"자네는 〈법화경〉을 읽은 일이 있는가?"
학승이 말했다.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경속에 '납의(衲衣)를 입은 승려가 한적한 곳에 살면서 거짓 아란야(阿練若; 적정처)로 세상 사람을 속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자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학승이 짐짓 예배하는 척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 납의를 입고 왔는가?"
학승이 말했다.
"입고 왔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를 속이지 말게."
학승이 말했다.
"어떻게 해야 속이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스스로 살아갈 계책을 세워라. 내 말에 붙어 다니지 말고."

師問僧 你曾看法華經麼 云曾看 師云 經中道 衲衣在空閑 假名阿練若 誑惑世間人 你作麼生會 僧擬禮拜 師云 你披衲衣來否 云披來 師云 莫惑我 云如何得不惑去 師云 自作活計 莫取老僧語

학승이 '예배하는 척(擬禮拜)' 한 것은 적정처를 얻은 척하는 모양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법화경 문장의 뜻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천하장부는 부처나 조사를 따라다니지 않는다. 자기의 색깔, 자기의 교화를 펴야 부처와 조사가 기뻐한다.

조주 스님이 좌주에게 물었다.
"어떤 학업을 익히고 있는가?"
좌주가 말했다.
"유마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물었다.
"유마의 조부는 누구인가?"
좌주가 말했다. "저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찌하여 거꾸로 손자의 말을 강의하는가?"
좌주는 대답이 없었다.

師問座主 所習何業 云講維摩經 師云 那箇是維摩祖父 云某甲是 師云 爲什麼卻爲兒孫傳語 主無對

유마의 조부가 누구인가 물었을 때 "저입니다"라고 말한 것까지는 좋은 대답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꾸로 손자의 말을 강의하는가?" 라는 물음에는 대답을 못했으니 공연히 선을 아는 척하다 한 방망이 얻어맞은 꼴이다. 말로써 선사를 이기려하면 안 된다. 참선을 오래하면 논리도 넘어가고 직관도 넘어가는 달관자가 되기 때문에 어설픈 논리로 선사를 이겨낼 수 없다.
조주 스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묘해야 한다.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쪽저쪽을 다 넘어서 자기의 말이 튀어나와야 한다. 납의를 속이지 않는 천하의 납자들이여! 이때에 뭐라고 해야 조주를 넘어뜨리겠는가? 본 납자라면 "나는 단지 내 말을 할 뿐입니다"라고 말하겠다.

조주 스님이 하루는 법당에 올라갔다.
한 학승이 나와서 예배하자 스님은 합장하고 '안녕히!' 하고 말했다.
또 어느 날 한 학승이 예배하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잘 물어보아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선(禪)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오늘은 흐렸으니 대답하지 않겠다."

師一日上堂 僧纔出禮拜 師乃合掌珍重 又一日僧禮拜 師云好好問 云如何是禪 師云今日天陰不答話

조주 선사는 자비심이 많아서 물으면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 단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주 선사의 잘못이 아니다. 조주 선사의 답은 명확하다. 어느 때는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초심자가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무엇이 선(禪)인가 물었는데 조주 선사는 "오늘은 흐려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명확한 대답이다. 그런데 내일 날씨가 맑아진다면 과연 대답할까?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44〉

번뇌 벗어나는 수행내용 시대별로 달라

수행도 – 총론

불교는 번뇌로 괴로워하는 중생들의 의지처로서의 종교이기도 하면서 매우 심오한 철학체계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부처님이 45년간의 설법을 통해 중생을 깨우치고자 한 뜻은 단지 불교의 철학적이고 교학적인 사상을 가르치려는데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그랬듯이 중생들도 개개인이 스스로 마음의 움직임을 통찰하고 행동을 다스려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팔만사천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르침들은 모두 이를 위해 설해진 것이다. 바로 이점이 원시불교와 아비달마 불교, 그리고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수행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시대별로 수행도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원시불교나 아비달마 불교에서 수행도는 자신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던 반면에 대승불교에서는 자신보다는 타인의 구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처음 역사적인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원시불교시대와 원시불교의 경전들에 해석과 주석을 더해 감으로써 대단히 교학적이고 학문적인 철학체계를 확립한 아비달마 불교시대에서 수행도는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으로 대표된다. 삼십칠보리분법은 사념처(四念處)·사정근(四正勤)·사신족(四神足)·오근(五根)·오력(五力)·칠각지(七覺支)·팔정도(八正道)를 말한다. 이 숫자를 전부 합하면 37가지가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회부터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팔정도는 앞 회에서 이미 설명했으므로 제외하기로다.
또한 사념처는 팔정도 중의 정념(正念)이고 사정근 역시 팔정도 중의 정정진(正精進)에 해당함으로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생략하기로 한다.
원시불교경전에서는 본래 삼십칠보리분법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의 다양한 수행도가 설해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부처님의 설법방식이 상대방의 이해도나 성격,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서 설명하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이었기 때문이다. 삼십칠보리분법도 이와 같이 여기저기 설해져 있던 것을 아비달마불교시대에 정리해서 체계화 한 것이다. 그런데 아비달마 시대에 이르자 부처님이 성도 이후에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평생을 중생을 위해 교화하고 설법했던 실천수행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출가자 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접근했고 수행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완성에 집중하게 되었다. 아비달마 불교의 이러한 성격은 불교의 본래 의미로 되돌아가 부처님의 참뜻을 실천하자는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대승불교시대에서는 자신의 깨달음 보다는 다른 사람의 구제에 무게중심을 두었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곧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도라고 하는 대승보살사상이 생겨나게 됐다. 그 수행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육바라밀(六波羅蜜)이다. 여기에 네 가지를 더해 십바라밀(十六波羅蜜)로 설명되기도 한다. 육바라밀의 바라밀은 범어 '빠라미따(pāramitā)'의 소리 그대로를 번역한 말로 번뇌에 가득 찬 중생세계인 이곳[此岸]에서 깨달은 열반의 세계인 저곳[彼岸]으로 건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하자면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지혜(智慧)의 여섯 가지 실천수행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이 중에 지혜는 팔정도의 정견(正見)과 정사유(正思惟)에 해당하고 지계는 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에 해당하며 정진은 정정진(正精進)에 선정은 정념(正念)과 정정(正定)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육바라밀은 팔정도에 보시와 인욕이라고 하는 대승적 실천행이 추가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㊾



내게는 머리에 이런 것이 생겨났다. 수명을 갉아먹는 하늘의 심부름꾼이 나타난 것이다.

〈본생 이야기(자타카)〉

백세시대라는 말이 있다. 백세라니, 설마? 자칫 '백세'라는 말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다. 그보다 좀더 이른 시기에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면, 자칫 그런 유행어(流行語)가 때를 놓치게 할지도 몰라서이다. 노후대비라는 측면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같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우리사회의 노후대비에 대해서 진단하고 분석하면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역시 제일 큰 일이 경제적인 대비와 건강이라 말하는 데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길어진 시간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노후라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디에서 삶의 보람을 찾을 것인가?
첫 번째의 직업생활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다시 재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일을 하여서 다소라도 수입을 올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회적인 보람을 찾음으로써 다시 건강에도 기여하게 되는 선순환(善循環)을 그린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노후대비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같다. 다시금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나같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문제는 따로 있으리라. 생업을 위한 노동 이외에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노동을 하든 안 하든 노년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불교의 기본적 입장은 사실 노후대비를 준비하는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노후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 말이다. 비데하(Videha) 왕국의 왕 미틸라(Mithila)는 평소에 이발사에게 부탁해 둔 말이 있었다. 새카만 머리카락 사이에 흰 머리카락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노후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서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날, 드디어, 마침내 왕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생겨났다. 이발사가 즉시 상황보고를 했음은 물론이다. 이에 왕은 결단을 내린다. 흰 머리카락을 뽑아들고 말했을 것이다. "내게는 머리에 이런 것이 생겨났다. 수명을 갉아먹는 하늘의 심부름꾼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 이야말로 집을 나설 다시없는 기회가 아닌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불교에서는 흰 머리카락이 생기기도 전부터 '수명을 갉아먹는 하늘의 심부름꾼'이 오는 것으로 말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싯다르타 태자는 노후, 즉 흰 머리카락이 생기기도 전에 출가의 길로 들어섰던 것 아닌가. 그렇게 시간의 유예를 두지 않았다는 점은 출가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핵심적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림 · 박구원

그러나 우리 재가자의 입장에서는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생기고 나서라도, 즉 노후가 되어서라도 '집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전통에서 '집을 나선다'는 말은 출가를 의미한다. 몸이 편해지고 싶어지는 노후에 고행(苦行)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 그러한 전통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재가자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재가의 생활을 유지하더라도 수행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도 과거세에 그러한 노후수행을 쌓은 공덕으로 금생에 이르러 부처님이 되셨노라, 말씀하시고 있지 않은가. 수행하는 노후생활, 불교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노후대비다.

(이미령 옮김, 〈붓다의 과거세 이야기〉, 민족사, p.224참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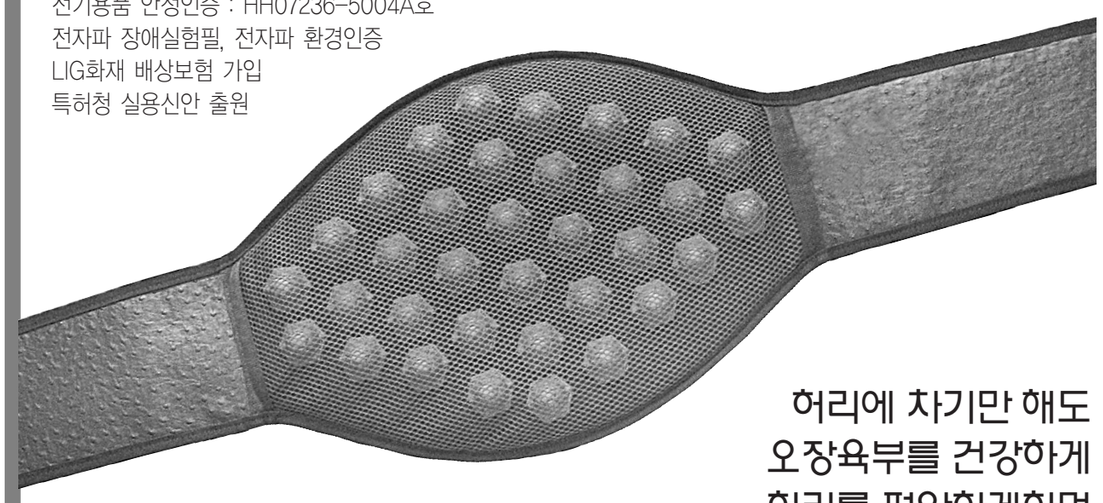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두륜산정 높아 사다리 걸쳐도…”



〈완당전집〉 ‘벽해타운첩’의 시가

초의 1830년 상경해 추사집서 묵어
추사 좌부승지 제수돼 다시 초청

1830년 두 번째 상경 길에 오른 초의스님. 그는 추사 댁에 머물며 경향의 사대부들을 만나 스승 완호의 탑명을 받고자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마장이 생기는 법. 추사의 부친 김노경이 고금도로 유배되는 불운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불원천리(不遠千里)를 달려온 초의로서는 우선 추사 댁의 우환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러나 만나야할 인연은 우연처럼 다아 오는 법이다. 그가 흥현주의 별서 청람산방에 머물며, 경향의 문사들과 문재(文才)를 뽐내고, 세상에 초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이로부터 혹발된 것이다. 초의가 쓴 〈주상운타(注想雲朶)〉 후발(後發)에는 그가 제자 취련과 함께 상경했으며, 흥현주와 신위가 완호의 탑명과 서문을 짓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두었다. 아울러 초의가 추사 댁의 불운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이 해 겨울에서 봄까지 추사의 집에서 머물렀던 당시 상황도 이 후발에 의해 밝혀졌다. 한편 대흥사로 돌아간 초의는 추사와 내왕이 한동안 뜸했는지, 1835년 2월 초의의 상경을 재촉하는 추사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草衣木食又經一臘 麤甲亦滿五十 師當有不歡者在顧此流轉 齒不勝刺 髮未盈梳 今日之日不如昨日之日 亦足浩歎 一領之後 消息阻隔忘 頭輪山頂 甚於夜摩切利 非聲聞所可梯接歟 香誰供養年後更如何 佾人抱痛 窮山萬念尤灰 惟老親開襟懇嵌 感戴蹈慶 不知應副何以報答也 雖遁迹世外 跟影林間 山哀浦思理當同情 不欲一來以效奔赴之義耶 須圓之也 邇間鄙便甚妥 暮付數字 亦望寄答於此回也 鐵船無恙耶 無以各幅 輸照亦佳 留 不宣

草衣를 입고 나무 열매를 먹으며 또 한 해가 지나니 나이 또한 오십이 다 되었습니다. 그대는 당연히 주름지지 않을 방법이 있겠지만 이리저리 떠도는 나 같은 사람은 이빨이 성글어져 이쑤시개도 감당하질 못하고, 머리까락조차 빠져 빗질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이 어제만 못해 몹시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별한 후 양 편의 소식을 다 잊었습니다. 두륜山頂이 야마천이나 도리천보다 높아서 불제자인 그대는 사다리를 걸쳐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인가요. 수행은 해가 지난 후 다시 어떠신지요. 나는 아픔을 꺼안고 궁벽한 산에서 온갖 생각에 더욱 사위어지는데 늙으신 부친께서는 잠시 벽을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 감격과 경사를 입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에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세상 밖에 자취를 감추고, 산림으로 그림자를 숨겼다할지라도 산도 슬퍼하고 강물도 시름겨워하는 이치는 같은 것이니 한번 와서 분부의 의미를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는 것을 계획해 보십시오. 마침 감영에서 온 인편이 매우 편하다고 하니 대략 몇 자를 적어 부칩니다. 돌아오는 이편에 회답 주시길 빕니다. 철선스님은 별고 없는지요. 각자에게 쓰지 못했으니 돌려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초의가 대흥사로 돌아 간 것은 1831년 가을이후이다. 당시 초의는 금강산 유람을 계획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내왕이 소원했는지 ‘이별한 후 양편의 소식을 다 잊었다’고 하였다. 초의와 추사는 동갑이다. 추사의 나이가 오십이 다 되었다고 하니 초의의 나이 또한 오십이었으리라. 불제자 초의와 불로장생의 비방을 터득하여 주름도 없겠지만 이미 ‘이빨이 성글어져 이쑤시개도 감당하질 못하고, 머리까락조차 빠져 빗질할 것도 없다’는 추사의 푸념은 늙어감을 통탄하는 속인의 심사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해학이 묻어난다. 또 추사가 ‘늙으신 부친께서는 잠시 벽을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 감격과 경사를 입었다’고 한 것은 그의 부친 김노경이 7월19일 판의금부사에 제수된 것을 말한 듯하다. 나라를 위한 그의 충심이 조정에 알려졌는지 이 해 8월 추사 또한 좌부승지에 제수되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부고를 받은 사람처럼 달려오라는 것은 집안의 경사를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 편지는 〈완당전집〉) 〈여초의〉 5신과 〈벽해타운첩(碧海朶雲帖)〉에 수록되었다. 〈벽해타운첩(碧海朶雲帖)〉을 통해 이 편지를 쓴 시기가 밝혀지게 되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진짜 부자는 마음 살피는 불자”

우승택 생테크연구소 대표

세계 경제에 불경기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 땅과 같은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 재산 증식을 위한 방법이 신뢰를 잃고 있지만 역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이러한 세간의 분위기 속에 종교관련 코너에서도 불자들의 시선을 끄는 책이 있으니 바로 〈우승택의 생테크 - 남종 원각경〉이다.

재테크를 불교적으로 해석한 책인 〈남종 원각경〉은 MBC경제야 놀자 고정패널로 유명해진 우승택 생테크연구소 대표가 재테크를 불교적으로 해석해 2010년 내놓은 책이다.

2003년 불교의 무소유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금융가로서 금강경 해설서 〈심상사성 금강경〉을 출간하기도 한 그가 말하는 불교 안의 돈 버는 방법은 무엇일까.

12월 12일 서초동 생테크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돈의 흐름을 보는 ‘재테크’와 마음의 흐름을 보는 ‘불교’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실 세상 어디에도 부자 되는 답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못되는 이유는 뚜렷하죠. 세상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승택 대표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살피라고 말했다. 투자는 결국 ‘돈과 심리’이기 때문에 마음조차 모르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느 사찰에서 기도 잘해 땅을 산다 던지, 전문가나 용한 스님을 만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돈’이라는 강력한 원에 의해 쓰이는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살피고 더 나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 씀의 이치를 볼 수 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원각경〉일까? 우 대표는 “〈원각경〉은 부처님이 문수·보현 등 12보살들에게 관법의 실천으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설하는 경전”이라고 소개했다. 세상 흐름을 살피는 지혜는 모든 경전에 있지만 특히 〈원각경〉에서는 관법과 그 실천을 설했기 때문이다.

우 대표는 “원래 〈금강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심상사성 금강경〉이죠. 이 책을 읽은 한 스님이 〈원각경〉을 추천해 주셨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다른 투자전문가들과 달리 ‘무슨 주식 괜고, 무슨 종목 사세요’, ‘어느 지역 아파트가 유망합니다’는 식의 정보보다는 돈에 대한 철학을 깨우쳐주는데 역점을 둔다.

“저도 과거에 감당하기 힘든 실패를 겪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재산도 늘어납니다.”

〈금강경〉으로 마음 잡고 실패 극복

우승택 대표는 대학생 때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한국외대 재학시절 불교학생회 활동 외에는 딱히 불교공부를 하지 않았던 우 대표가 불교에 심취하게 된 것은 2001년 9·11 테러를 겪으면서부터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금융쇼크가 몰아쳤다. 이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는 멍뷸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 대표에게도 이런 바람이 예외 없이 몰아쳤다. 우 대표의 나이가 이미 40대 중반을 넘어섰을 때였다.

우 대표는 얼타 스님의 〈기도〉라는 책을 보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싶은 마음에 천수경과 관음경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우 대표는 “관세음보살이 정말 계신 것인가, 안 계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 흔들림은 수행정진에 걸림돌이 됐다”고 털어놨다.

‘잘 할 수 있을까’는 불안감과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대학 시절 ‘머리 쓰는 사람은 꼭 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금강경〉이 생각이 났다. 한쪽에 놓아둔 〈금강경〉을 편 순간 우 대표의 마음은 새롭게 거듭났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

우 대표는 〈금강경〉의 아리아인 사구게 게송을 읊으며 〈금강경〉에 대해 설명했다.

“억지로 경전 공부를 해나가던 중 ‘관세음보살이 있네 없네’를 떠나서 ‘도대체 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풀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무아(無我)라는 데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당연한 관세음보살도 없는 거지!”

우승택 대표는 내가 환(幻)이고 공(空)이라면 돈도 환이고 공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우 대표는 “환으로써 환을 잡으면 되겠구나 생각했다. 나중에 다 없어지든지 놓고 가든지, 아니 내가 없어지면 돈도 없어지므로 일단은 나를 알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흔히 사람들은 불교를 세간을 넘어선 것, 나쁘게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경전을 공부하며 느낀 것은 불교야 말로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이란 것이었습니다. 불교는 성공학인 것입니다.”

세상 눈밝은 이가 바로 부자

불교 공부를 하며 우 대표는 자신감을 찾고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막혔던 일과 꼬였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우 대표는 당시 부자고객들의 마음씀과 성공여정이 깨달음의 여정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발심 이후 지금까지의 어리석은 마음을 참회하고 부처님이 제시한 깨달음의 과정을 따라 걷는 수행이 부자들의 성공과정과 똑같았던 것이다.

불교는 가장 현실적 가르침 ‘성공학’
탐진치 걷어내면 자기 운명 개조
불교+재테크 〈원각경〉 책 펴내
부자 재가자들이 종단 외호해야

“예를 들어 금강경에는 ‘어디에도 매임이 없이 마음을 쓰라(應無所住 而生其心)’ 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본 부자들은 세상을 선악의 관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한, 이른바 ‘눈이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 대표는 〈원각경〉 중 “게조명운(改造命運) 심상사성(心想事成)” 부분은 부처님이 세상사람들에게 그 가능성을 알려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원각경〉에서는 모두가 원만구족한 깨달음을 갖고 있기에 탐진치를 걷어내면 자신의 운명을 개조해 자신의 생각대로 이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희로애락에 허송세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 대표는 “부처님의 10대 명호 중 세간해(世間解)가 있다. 세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상, 또 나를 알아야 참된 불자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니던 직장의 상품부터, 또 주변사람의 행동과 마음상태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다.

“〈원각경〉을 공부하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법, 돈 버는 법, 사랑 받는 법 등이 머릿속에 흔란 없이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었습니다.”

우승택 대표는 불법에 기반을 둔 돈 버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발원했다. 우 대표는 먼저 2003년 〈금강경〉 해설서인 〈심상사성 금강경〉을 출간한다. 본격적으로 불교계 활동에도 나선 그는 2004년부터 불교신문에 ‘영어로 읽는 화엄경’, ‘불자들을 위한 재테크 코너’, 월간 불광에 ‘우승택의 경복경제’ 불교TV에 ‘우승택의 유식으로 하는 투자클리닉’ 등을 연재했다. 또 불교인재개발원에서 교육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활발한 강연도 이어갔다. 2010년에는 〈남종원각경〉을 펴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책임질 수 없는 이들에게 맡기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면 100명의 전문가, 만권의 책이 말하는 것보다 상황을 여실이 볼 수 있고 방법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한다는 우문에 우 대표는 “지금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믿으십니까? 팔아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인연의 소치로 잠시 머무는 것이다. 주식을 사고파는 마음은 얼마나 믿을 만하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우 대표는 “업이 욕망을 재료로 돈에 대한 갈망을 낳은 것”이라며 그 욕망을 바로볼 것을 지적했다.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 이는 어떡해야 하나. 우 대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 업을 쌓을 것을 강조했다.

우 대표는 “ ‘재물’도 결국 신·구·의 삼업에서 오는 하나의 환(幻)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에 걸쳐 새 업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돈이라는 놈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평소 경전 등을 통해 마음을 챙겨 깨어있다면 그 지혜가 경제생활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근검·절약해 남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부자업”이라고 말했다.

10억 기부 장자 100명이면 불교산다

우 대표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일까. 수많은 불자들이 그러하듯 불법 아래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다. 우승택 대표는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가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1년에 10억 이상 기부할 수 있는 장자들이 100명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장자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다짐했다.

“종교도 돈, 재정규모에 따라 교세가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님이 바쁘어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재가자들이 종단을 외호해야 합니다.”

우 대표는 기윌정사를 보시한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일화를 들며 불교 외호를 위한 장자 배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매년 10억 이상 기부하려면 최소 300억이 필요합니다. 300억 자산가 100명을 키우던지 찾던지 불교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자산가를 키우기 위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생테크 연구소 지하에 마련된 아나타핀티카 교육관이 그 것이다. 매주 수요일 오프라인 유료강좌와 온라인 무료강좌로 진행된다. 강연 소재는 경제심리학자 사아나 로만이 지은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과 〈원각경〉이다.

우 대표는 이 책들을 이용해 각 경제활동 중 닥치는 마음경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금융권에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은 우 대표의 일화가 함께 결들어진 강의다.

“무릇 눈에 보이는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현상이 진실한 것이 아닌 줄을 알면 여래를 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이를 평생의 도반으로 함께 마음공부를 해가면 각자에게 허락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행복 아닐까요. 모두 부자 되십시오.”

우승택 대표의 환한 목소리에 새해에는 불자모두가 부자가 될 것만 같은 희망이 묻어나왔다.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우승택 대표는 … MBC ‘경제야 놀자’에 고정 출연하며 널리 알려진 우승택 대표는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경복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에서 공부했다.
캐세이 패시픽, 유화증권을 거쳐 1993년부터 삼성증권에서 일하며 PB소장, 호텔 신라 자산클리닉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생테크연구소 대표로 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 PB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금강경〉을 성공학으로 풀이한 ‘심상사성(心想事成) 금강경’과 금강경의 가르침을 주식투자에 응용한 ‘사랑하면 보인다, 우승택 투자’ 등이 있다.



지하 아나타핀디카 교육관에서 강연하는 우승택 대표. 강연에는 2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우승택 대표가 쓴 책과 강의 교재들. 우 대표는 지속적으로 교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법일기

저의 담임스님이 되어주시겠어요?

고집스러운 유발상좌와의 인연

조금은 고집스럽고 집착이 강한 신도가 있었다. 평소에는 원만하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언행을 유지하지만 한 번 고집이 발동하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성격이었다. 그런데, 이 신도님이 어느 날 자신의 아이를 내게 유발상좌로 입적시키고 싶다고 청해왔다.

이전까지는 신도들의 이런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신도님의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아야겠다고 하고 가까운 도반들과 상의를 해보았다. 결론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다른 스님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그 불자님은 얼마간 하소연과 불만을 토로했지만 내가 소개한 스님에게 아이를 유발상좌로 인연 맺었다.

지금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마을에는 수양아들, 수양딸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가족과 친척이 없어서 서로 위로가 되어주려고 인연을 맺는 경우도 있었지만, 각자 가족과 친척이 있어도 서로 보고 만나면서 애틋한 정과 믿음이 쌓이면 “우리 엄마아들 하자거나 엄마 딸 하자.”고 해서 인연을 맺기도 했다.

이런 비슷한 인연이 불교의 유발상좌이다. 달리 마을상좌라고도 하는 유발상좌는 자신 스스로나 자신의 자녀를 스님의 제자로 입적시키는 것이다. 유발상좌는 단순한 사제관계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혈연에 준하는 깊은 인연으로 여긴다.

유발 상좌제도가 좀 더 보편화되었으면 해서 범문을 통해 제안한 것이 ‘답임스님’이다. 학교에는 담임선생님이 있어서 담탁해생들을 좀 더 가까이 신경을 써서 돌보곤 한다. 하지만 불자들은 수 년 또는 수 십 년씩 절에 다녀도 스님들과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부처님이 좋고 절이 좋아서 불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스님들로부터 직접적인 상담이나 지도를 받을 수 없다면 바른 신행의 길에 점어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개인적인 인연이 너무 깊어도 좋지 않겠지만 스님들과 불자들 간의 거리가 지금같이 너무 먼 것도 문제다.

어느 날, 아이를 다른 스님의 유발상좌로 입적시킨 불자님이 내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 정말 인연을 잘 맺어주신 것 같아요. 스님께 거절당한 것 같아 처음에는 섭섭하고 속이 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스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그리했지만 그래도 저는 스님신도 할거예요.” “하하, 그렇게 하세요.”

수년 전 방송에서 했던 법문을 엮어 책으로 내었는데 그 책의 ‘답임스님을 모시라’는 글을 읽고 가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나 문자가 오곤 한다. “스님, 저도 스님을 답임스님으로 모실 수 있나요?” 그럴 때 마다 흔쾌하게 답을 보낸다. “네, 당연하죠. 부처님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스님들께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가까이 자주 갈 수 있는 절의 스님들과 인연 맺기를 권하곤 한다. 근처의 절에 가까이 있어야 답임스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터이니까 말이다.

세월이 쌓여가면서 유발상좌의 인연도 늘어가고 답임을 맡아달라는 요청도 많아진다. 처음에는 사랑들과 깊은 인연을 맺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사양을 하곤 했지만, 이제는 이런 인연이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니고 또 피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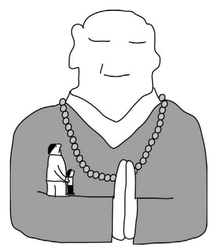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수양아들 같은 유발상좌
인생상담해 가며 바른길 인도
부담스러워도 피하지 말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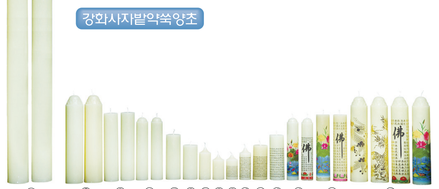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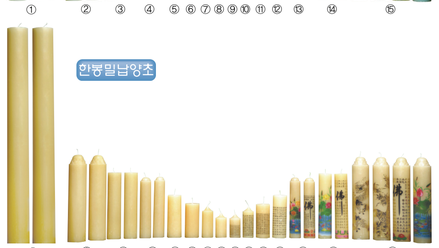
모든 스님들이 “스님, 저의 답임스님이 되어주시겠어요?”라는 물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불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대답했으면 좋겠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① 약촉초 90cm×90cm
② 약촉초 연봉 원기둥 7.0ｒ×34cm
③ 약촉초 돈타레 5.6ｒ×27cm
④ 약촉초 밀대 4.7ｒ×25cm
⑤ 약촉초 1호 5.9ｒ×18cm
⑥ 약촉초 2호 5.9ｒ×14cm
⑦ 약촉초 3호 4.7ｒ×13cm
⑧ 약촉초 4호 4.7ｒ×10cm
⑨ 약촉초 4호 반아심경 4.7ｒ×10cm
⑩ 약촉초 3호 반아심경 4.7ｒ×13cm
⑪ 약촉초 2호 반아심경 5.9ｒ×14cm
⑫ 약촉초 1호 반아심경 5.9ｒ×18cm
⑬ 약촉초 밀대 전사지반아심경, 연화)
⑭ 약촉초 돈타레 전사지반아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촉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아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강화사자발약쑥양초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ｒ×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ｒ×27cm
④ 밀납초 밀대 4.7ｒ×25cm
⑤ 밀납초 1호 5.9ｒ×18cm
⑥ 밀납초 2호 5.9ｒ×14cm
⑦ 밀납초 3호 4.7ｒ×13cm
⑧ 밀납초 4호 4.7ｒ×10cm
⑨ 밀납초 4호 반아심경 4.7ｒ×10cm
⑩ 밀납초 3호 반아심경 4.7ｒ×13cm
⑪ 밀납초 2호 반아심경 5.9ｒ×14cm
⑫ 밀납초 1호 반아심경 5.9ｒ×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아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아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아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번 국도로 4km 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항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얻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요.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와불국와축제



▷ 진신사리 증과



▷ 만사형통 문수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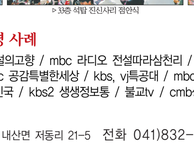
▷ 쌀바위(운수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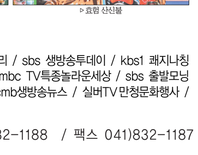
▷ 정업노천불 공원



▷ 10년만의 자손득남



▷ 3층 석탑 진신사리 점안식



▷ 효령 산신불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게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패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

英, 아프간·이라크 참전병 명상 치유

심신의학센터 보고 주목
"전사자보다 자살 병사 더 많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했던 영국장병들(좌). 영국 정부는 인도 비하르 주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월부터 부다가야에서 명상 힐링 캠프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영국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했던 장병들의 정신적 치유의 길을 인도 비하르 주의 부다가야에서 찾았다.

데일리 메일(Daily Mail) 온라인판은 10일 "영국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교전지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전투병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인도 비하르 주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월부터 부다가야에서 명상 힐링 캠프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보도했다.

계약에 따르면, 명상 힐링 캠프에는 매년 4000명의 영국 장병이 참여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 주둔하며 전투에 참여했던 장병(전역자 포함)들 가운데 전투로 인한 사망자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로 인한 자살이 더 많다"는 심신의학센터(Center for Mind-Body Medicine)의 보고서에 주목,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고심해 온 영국 국방부가 불교 명상에서 그 길을 찾은 것이다.

이에 대해 "부피 큰 책이나 저널에서나 찾을 수 있는 PTSD가 아프가니스탄과 아라크 주둔 장병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풀이한 데일리 메일은 "영국 국방부의 결정은 동일 지역에 전투병을 파견해 온 미국 프랑스 등의 정부에서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며 "명상은 장병들의 병영생활은 물론 전역 후 일상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두었다.

국방부, 印 비하르주와 계약
매년 4천명 규모 명상캠프 운영

영국 국방부와 인도 비하르 주 정부와의 계약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매년 4000명의 영국 장병들이 비하르 주를 방문해 부다가야에서 6일, 사르마트(Sarmath)에서 1일 동안 운영되는 명상 및 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쟁의 상흔을 치유한다는 것.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했던 영국 장병들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명상 힐링 캠프에는 매회 100~150명의 장병들이 비하르 주를 방문, 일주일간의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보도한 데일리 메일은 "2013년 1월 처음 열리는 명상 힐링 캠프 참여를 희망한 영국 장병들이 12월 중 인도를 방문, 부다가야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러와의 전쟁에 지친 영국 장병들이 부처님의 깨달음 성지인 이곳에서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길 바라고 있다"는 인도 수닐 쿠마르 핀투(Sunil Kumar Pintu) 비하르 주 관광장관은 "주 정부는 영국 장병들이 머무는 동안 그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닐 쿠마르 핀투 장관에 따르면 명상 힐링 캠프는 지난해 1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관광박람회(World Tourism Mart)'에서 국방부 관계가 비하르 주의 관광 부스를 찾아 PTSD 치료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 것에서 가능했다.

"2010년 이후 명상은 영국 사회에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치유 수단"이라고 전제한 영국 국방부는 "명상 치료를 희망하는 장병들 가운데 불교도는 70% 정도이며, 나머지는 타종교인이거나 무신론자들"이라며 "프로그램 참여 장병들은 종교의 굴레를 벗고 부다가야에서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단초를 찾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 유력 일간 가디언(Guardian)은 지난 6일 "2010년 이후 영국 사회에서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명상은 이미 국립보건임상연구원으로부터 우울증 치료법으로 지지받고 있으며, 메이저급 정신건강 자선단체들은 명상치료에 대해 영국의 료보험이 좀 더 광범위하게 적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권의 날' 티베트 독립시위 확산

미국·뉴질랜드서 수천명 시위…中, "티베트 독립은 헛된 꿈"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유엔본부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며 거리시위를 벌였다.

12월 1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다.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앞에서는 수천 명이 티베트 분신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며 거리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티베트는 유엔이 필요하다(UN: Tibetans need you)'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최근 분신자살한 티베트인의 사진을 들고 '티베트를 위한 연대 집회'로 불리는 시위에 참가했다.

뉴욕 경찰 당국은 이날 시위 참가자 수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한 경찰 관계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시위대는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티베트 지역에 과거보다 더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고,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 인쇄된 전단지를 시민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뉴질랜드에서도 티베트 독립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린 것으로 전해진다. 뉴질랜드에 있는 티베트 독립 지원 인권 단체는 북섬 오클랜드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 티베트 지역에 대한 폭력적 통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세계 인권의 날' 전날인 12월 9일 최연소 분신희생자였던 16세 소녀가 목숨을 잃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칭하이(青海)성 황난(黃南)주에 사는 16세의 티베트 소녀가 분신자살했고 당국은 약 4시간 후 그의 시신을 화장한 다음 가족에게 돌려줬다.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프리 티베트'는 이 소녀가 분신자살한 티베트인 가운데 최연소자라고 확인했다.

티베트 분신자살자수가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이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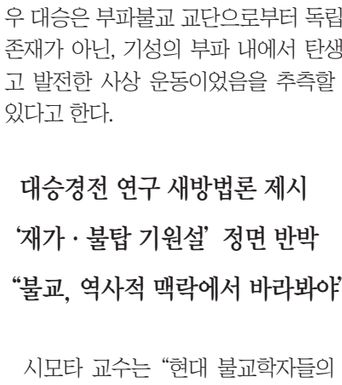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2월 10일(현지시간) "2013년을 시짱(西藏·티베트) 독립의 해로 만들겠다는 것은 달라이 라마의 헛된 꿈"이라며 "달라이 라마의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일(12월 10일)을 계기로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달라이 라마가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나 투사로서의 존재감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서 "티베트인들의 분신은 달라이 라마가 배후에서 선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승 기원 재정립…학계 시선 끌어

세계의 불교학자(44)

시모타 마사히로 日 동경대 교수



시모타 마사히로(下田正弘·55) 일본 동경대 교수는 대승경전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인물이다.

특히 시모타 교수는 1967년 일본 히라카와 아키라 교수가 주장한 '재가·불탑 기원설'이라는 대승기원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성전의 지속적인 제작운동'이라는 가설을 제시하면서 대승불교 연구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불교학자들은 대승불교의 기원을 지금까지 주로 '대중부 기원설'과 '재가·불탑 기원설'을 중심설로 세워 논쟁을 벌여왔다.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 초기에 대승비불설론(大乘非佛說論)이 일본 불교학계에 큰 영향을 미쳐 대승의 기원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다 1967년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교수가 〈초기대승불교의 연구〉라는 저서에서 '재가·불탑 기원설'을 주장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됐다.

시모타 교수는 대승의 기원에 관한 기존 연구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전의 지속적인 제작운동'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대승불교의 기원은 불탑을 중심으로 한 재가집단이 아닌 경전을 통해 새로운 사상을 전개하려고 하는 전통적인 부파 교단의 출가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승이 적어도 5세기 이전까지는 독립된 교단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고 전통적인 부파 교단 내에 속해 있었으며 사상적으로만 대승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일본 학계가 주로 의존하던 '재가·불탑 기원설'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견해다.

이 같은 시모타 교수의 새로운 가설은 그의 독특한 연구방법에서 시작됐다. 그는 불교를 현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인도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 경전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택했다. 현대적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당시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간과한채 텍스트에만 의존할 수 있어 불교를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시모타 교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근거해 "대승불교가 초기에는 부파불교 교단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닌, 기성의 부파 내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사상운동"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문헌과 문헌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승의 존재 연대에 매우 큰 차이가 보여진다. 최근 발견된 인도 〈팔천송반야경〉 단편의 연대나 한역 경전의 연대를 고려할 경우 대승이 늦어도 2세기 경에는 존재했음을 문헌상에서 알 수 있다. 한편 비문 등의 고고학적 자료에서는 5세기 이후가 돼서야 비로소 대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대승이 적어도 5세기 이후가 돼서야 비로소 대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며 5세기 이전까지는 대승이 독립된 교단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고 전통적 부파 교단 내에 속해있었음을 의미한다.

빨리 상좌부가 전승하는 문헌 자료나 부파불교의 분열사를 그린 역사서에 대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법현의 〈법현전〉과 현장의 〈대당서역기〉등 중국 역경삼장의 여행기에 기록된 대승과 소승의 구별 기준이 출가의식이나 일상 생활 형태 등에 관한 것이 아닌, 교단에서 독송하는 경전의 종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대승은 부파불교 교단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닌, 기성의 부파 내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사상 운동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대승경전 연구 새방법론 제시
'재가·불탑 기원설' 정면 반박
"불교,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시모타 교수는 "현대 불교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교를 현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라며 "수많은 부처님의 교설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성되고 사라짐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불교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57년 후쿠오카(福岡)겐에서 출생한 시모타 교수는 동경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인도 델리 대학 대학원에 유학했다. 이후 '열반경의 연구-대승경전의 연구방법시론'으로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1994년에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책으로 출간돼 일본종교학회상을 수상했다.

이후 시모타 교수는 일본 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동경대 조교수를 거쳐 2007년 동경대 인도철학 불교학 교수가 됐다.

그는 인도불교 연구에 뜻을 둔 많은 학생들이 기존의 상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양한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경전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藏文和譯·大乘涅槃經(장문화역·대승열반경)〈原始涅槃經(원시열반경)의 존재〉 등과 다수의 논문이 있다.

이나은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대강백 무비스님 대학승 성본스님의 본격 경전 강의 교재출간

불자라면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을 늘 가까이에 두고 읽어야 한다. 원문을 막힘없이 외우는 불자들은 많지만 그 뜻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불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훌륭한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강의를 듣는다. 그러나 문제는 마땅한 교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근 도서출판 민족사에서는 대강백 · 대학승으로 유명한 무비스님의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와 성본스님의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을 펴냈다. 이 경전강의시리즈는 불자들의 오랜 바람에 부응하여 경전 강의 맞춤으로 기획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경전의 원문과 독음, 번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고, 원문 옆에는 어려운 한자 풀이를 배치해 옥편이 없어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강의 내용을 직접 필기할 수 있는 메모 공간도 충분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강의자와 수강자 모두에게 편리하여 강의 교재용으로 적합하다.

두 경전 모두 한국불교에서는 매우 중시하는 경전으로 우리나라 불자들이라면 그 참뜻을 확실히 알고 실천하여야 한다. 대강백 · 대학승인 무비스님과 성본스님께서 온전히 담아낸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와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은 우리나라 불자들에게 보리심을 구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서출판 민족사는 앞으로도 불자들이 좋아하는 경전을 골라 경전강의시리즈를 계속 낼 계획이다.

대강백 무비스님이 『유마경』에서 찾은 큰 뜻 '생명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의 저자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무비스님은 '유마경은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 라고 표현한다. 유마경의 중심인물인 유마거사는 불교의 높은 경지를 체득하고 청정한 행위를 실천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다. 또 불량한 사람들에게는 훈계를 주어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자 노력한 분이다.

유마힐은 재가신자(在家信者)의 이상상(理想像)이며 모든 불자의 이상상이다. 세속에 있으면서 불도(佛道)를 실천하고 나아가서 불도를 완성할 수 있음을 설하는 것이 유마경의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여진다' 라는 말을 비롯하여 명언이 아주 많은 경전이다. 특히 중국에서 널리 읽혔으며 초기 선종(禪宗)에서 매우 중요시되었다.

지금까지 많은 저자들은 유마경의 큰 뜻을 유마힐의 침묵으로 표현되는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두었으나 저자인 무비스님은 오히려 그보다는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생명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산천초목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라는 가르침이 유마경의 대의(大義)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교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아파하는 생명들을 외면한다면 그 심오한 교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으며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유마경은

경전 원문 · 독음 · 번역 · 어려운 한자 풀이 · 넉넉한 필기 공간
수많은 불자님들의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출간!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엄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승적 삶에서 탈피해 남을 배려하고 세상을 먼저 구제하는 대승보살의 정신을 드러내어 밝힌 가르침을 담고 있다.

유마경은 불교공부를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의 편협하고 치우친 안목을 여지없이 깨트리고, 대승불교의 근본과 줄기들을 총망라하여 불교공부의 진실로 돌아갈 바를 남김없이 제시하고 있다.





대학승 성본스님이 『금강경』에서 찾은 긍정의 지혜

『금강경』은 한국불교의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사랑 받는 경전이지만, 그 심오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의 저자 성본스님은 난해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거리감을 좁혀준다.

금강경을 최상(最上), 제일 희유(第一稀有)한 법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공(空, sunya)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아공(我空), 법공(法空), 일체개공(一切皆空)을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이 다른 금강경 해설서와 다른 점은, 난해한 개념을 명확하게 짚어내어, 누구라도 쉽게 금강경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징은 금강경의 개념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모든 대승경전을 꿰뚫어서 함께 강의, 해설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끊어버릴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무상하다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매사의 모든 일이 새롭고 신선하고 진실된 생명활동을 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난관에 부딪쳤을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법하게 진실을 알지 못하고 보질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점과 사유가 부족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로 판단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원력으로 이루는 긍정의 지혜는 중생을 부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과 무기력의 포기에서 희망과 지혜로운 생명활동을 되살리는 힘이다. 선근 공덕을 이루는 원력의 힘은 중생심의 의심을 불심의 신심으로 전환하게 하며, 불가사의한 지혜인 부처를 이루고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의 회향이 된다.

■ 저자 소개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성본스님

경남 거창 출신으로 법주사에서 출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했으며, 일본 愛知學院大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駒澤大學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철학과 및 중앙승가대학교 강사, 현재는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교수 및 한국선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선문화연구원(네이버.zenmaster.co.kr)의 문을 두드리면 스님을 만날 수 있다.
역저서로는 『중국의 성립사 연구』, 『선의 역사와 사상』, 『禪佛敎란 무엇인가』, 『선종의 전등설 연구』, 『참선수행』, 『선불교의 이해』, 『간화선의 이론과 실제』, 『돈황본 육조단경』, 『벽암록』, 『임제록』, 『무문관』 등 다수가 있다.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무비스님

부산 범어사에서 여환(如幻)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였으며, 해인사, 통도사 등 여러 선원에서 안거하였다. 이후 오대산 월정사에서 탄허스님을 모시고 경전을 공부했으며, 탄허스님의 법맥을 이은 대강백으로 통도사 · 범어사 강주,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범어사 한주로 계시면서 많은 집필 활동과 아울러 전국 각지의 법회와 인터넷 카페 염화실에서 불자들을 만나고 있다. 역저서로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한글화엄경』(12권), 『보현행원품 강의』, 『백운스님 어록』, 『나옹스님 어록』, 『금강경 오가해』, 『금강경 강의』 등 다수가 있다. 인터넷 카페 염화실(http://cafe.daum.net/yumhwasil)의 문을 두드리면 시공을 초월하여 스님을 만날 수 있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사회적 현장을 떠난 불교, 그것은 이미 불교가 아니다!

- 올해의 불서 대상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



불교출판인들의 축제의 현장,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에서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김재영 저, 민족사 펴냄)가 올해의 불서 대상에 선정되었다.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불교의 실천적 방향을 초기 불교에서 찾다.

2012년 12월 12일 제9회 올해의 불서 10 시상식이 있었다. 올해의 불서 대상에는 민족사의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김재영 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은 현재 불교계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초기 불교의 전법 개척과 사회적 변혁 과정을 통찰해 한국불교의 역동적 에너지를 복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인 김재영 법사는 붓다의 삶이 시종일관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에 의하여 추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 중심의 접근 방법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이 깨달음의 주인이 되어 생명력이 넘치는 불교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교리가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이 문제라고 말한다. 불교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교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석가모니를 비롯한 사부대중,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불교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교리가 그 중점에 섰다. 사람에 대한 연구는 거의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없는 불교, 불교의 실질적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없는 불교가 무슨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김재영 저자는 사람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그 연구의 결과물이 이 책인 것이다.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은 사회적 실천이라는 의의에 있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고,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불교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역사과, 동국대학교(석사), 동방대학원대학교(불교학박사)를 졸업하였다. 교편을 잡고 있던 동덕여고에서 불교학생회를 창립해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650여 명을 결집하였고, 청보리 학생회 · 청년회를 창립하는 등 청소년 포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 동방불교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장의 불교, 현장의 불교학' 이라는 화두로 새로운 불교운동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은혜 속의 주인일세』, 『무소의 뿔처럼 상 · 하』, 『365일 부처님과 함께』, 『우리도 부처님같이』, 『민족정토론』, 『인도 불교성지 순례기도문』, 『초기불교개척사』, 『붓다의 대중견성운동』, 『광덕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간다』 등이 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김홍도 그림 효자가 현실에…

주요수미(周繞須彌) 소견


주요 수미

1796년(정조 20년) 수원 용주사에서 간행된 단원 김홍도가 그린 판화본 부모은중경을 보면, 두 부모를 어깨에 업고 수미산을 오르는 효자의 모습이 그려진 판화가 있다. 그동안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가 금년 2월에야 보물로 인정받아서 1754호로 지정되었다.

수미산은 불교의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는 산인데, 아홉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겹쳐진 가운데 가장 큰 산을 수미산이라고 한다. 그 중턱에는 사천왕이 살고, 꼭대기에는 제석천이 산다고 한다. 해와 달이 수미산의 허리를 돈다고 하니 그 산의 높이는 불가사의하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지게효자라는 기사를 보고 흥미가 생겨 열어보았다. 아버지를 지게에 업고 금강산을 유람한 아들이란 제목에 함께 간 가족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지게에 노인을 등에 업고 담담한 얼굴로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중년처사의 얼굴이 보였다.

이군익 씨 특수 지게 제작해
아버지 업고 금강산 유람
'부모은중경' 재현한듯 '감동'

글을 읽다가 보니 돌아가신 속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되신 늙은 90세의 부친을 위해 금강산 여행을 계획한 내용이었다.

그는 가난한 농부로서 7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다 키워주시고, 막내인 자신까지 대학공부까지 시켜주신 노부를 위해 형제들과 의논해서 금강산에 가기로 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산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불현듯 어릴 적 지게 지고 산에 올라 나무하던 기억이 떠올라 지게에 모시고 다니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생각해 낸 것이 가볍고 단단한 알루미늄지게였다. 그래서 설계도를 그려 지게를 만들어 줄 기술자들을 찾아 다녔다. 그러나 모두들 못 만든다고 거절하거나 터무니 없는 비싼 제작비를 요구해서 한달 여 동안 제작자를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등산용 지게에 특수용접을 해서 발걸이까지 달린 지게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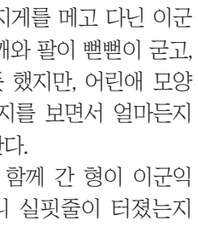
초여름 날씨에 혼자 걷기도 험한 산길을 아버지를 등에 메고 금강산을 오르는 이군익 거사를 보고는 나이많은 관광객들은 다가와 칭찬했다. 함께 금강산에 오른 큰누나와 형도 이군익 거사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 주며 막내동생을 격려했다.

그렇게 천선대로, 귀면암으로, 구룡폭포로, 명경대로 부지런히 다니고 90세의 늙은 아버지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금강산 구경에 흠뻑 취하셨다고 한다. 지게 무게가 15㎏, 아버지가 올라앉으면 60㎏이 넘는 지게를 메고 다닌 이군익 거사. 그의 어깨와 팔이 뻗뻗이 굳고, 허리가 끊어질 듯 했지만, 어린애 모양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한다.

금강산 온천에 함께 간 형이 이군익 거사의 등을 보니 실핏줄이 터졌는지 상반신이 온통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금강산 지게 효자 이군익 거사의 사연은 중국에까지 알려져 공자의 고향 곡부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한국인교포가 이군익 거사 가족을 곡부로 초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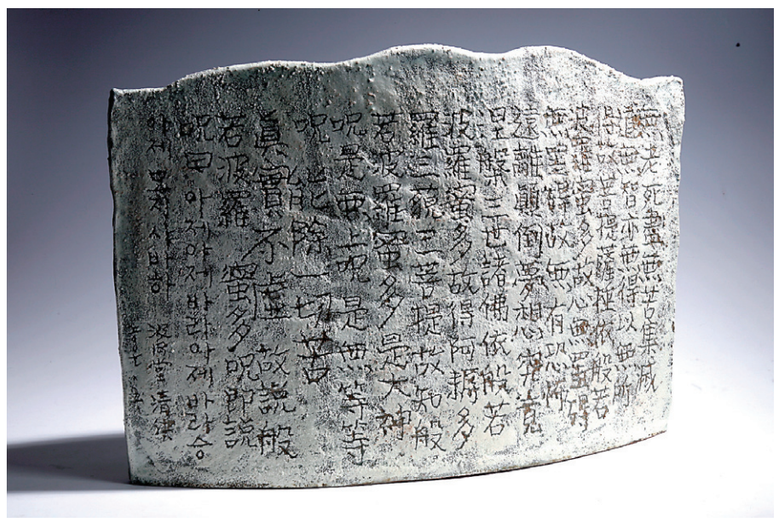
92세의 아버지를 지게에 업고 금강산에 다녀온 한국의 효자가 왔다는 소식에 '효가 사라진 중국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며, 중국전역에 방송되는 산동TV는 저녁 주요뉴스로 여러 번 방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러 찾아왔다고 한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용주사판 부모은중경의 주요수미 삽화가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본 것은 실로 감회가 깊다. 아들 하나가 출가하면 9족이 생천한다는데, 중노릇 제대로 해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극락왕생하실 수 있게 어떻게든 삼학(三學)에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부처님 말씀은 제 창작의 근원이죠"

도예가 윤광조 개인전


윤광조 씨의 전시가 1월 2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조현화랑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산중일기 혼돈, 심경, 선정 등 다양한 도예 작품들을 전시한다. 작품은 반야심경을 새긴 '심경'


윤광조 작가

"제 작업은 늘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도자 몸체에 반야심경을 새기는 도자 작업을 하죠. 한 자라도 틀리면 다 버려야 해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죠. 이는 제 나름의 수행의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두달 정도 시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작품에 임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늘 제 작품 세계를 한 차원 높여주는 기준점이라 할 수 있죠"

분청 예술도자의 길을 걸어온 윤광조 씨의 전시가 2013년 1월 2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조현화랑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산중일기, 혼돈, 심경, 선정 등 분청으로 작업한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그의 작품 8할은 불교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도부터 선보이고 있는 카오스 시리즈 역시 태국여행에서 사찰을 돌며 명상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불교 국가인 태국 여행을 가서는 사찰이 있으면 들러서 명상을 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바로 혼돈의 시대다. 카오스다. 하지만 이것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카오스 시리즈예요. 카오스는 바로 생명 잉태전의 충만한 에너지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에너지를 작품으로 변형시키며 아주 즐거웠습니다"

작가는 원기둥이나 삼각기둥 두 개의 판을 겹친 뒤 그 위에 산, 구름, 바람, 비와 같은 자연을 그려 넣거나, 도자 몸체에 반야심경을 못으로 새겨 작품을 완성한다. 이들은 전통 도자기의 비례 균형 색에 치우친 장식적인 특징에서 탈피한 작품들로 흙의 물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보이는 분청사기 기법으로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자에 반야심경 새기며
매 전시마다 작품 임해
80년대 4만배 정진 등
작가 세계 방향성 찾아

작가의 이런 자유로운 작업이 있기까지는 무수한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 1980년대 작가는 원형의 도자 작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막막하기만 했다. 그 막연함을 오로지 부처님께 맡기고 절을 시작했다. 지리산 정각사에서였다. 하루 3천배씩 열흘, 5천배씩 이틀 모두 4만 배를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물레를 버리자' 물레에 숙달된 성형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물레에 매달리지 않았다. 코일처럼 길게 뽑은 흙으로 타래 쌓기를 하거나, 밟고 두드려 만든 흙판을 마주 보게 하거나, 삼각기둥 형태로 붙이고 다듬어 가마에 구워 작품을 완성해나갔다. 무기교의 기교를 작가는 보여주었다. 이는 회화성 조각성 건축성까지 보여주는 현대도예의 종합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부처님 법 만나 많은 고비를 이겨냈어요. 이렇게 절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를 얻었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불교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예술가란 게 아무도 안 간 세계를 가야되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부처님의 삶과 말씀이 예술가의 삶과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전통의 현대성이다. 그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 고민한다. "도예의 뿌리는 과거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에서만 머물 수는 없죠. 그렇다고 열매만 맺고 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대 도예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합니다. 저는 우리의 전통미를 현대적인 조각성 건축성 회화성을 가미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합니다"

윤광조 작가는 1973 홍익대학교 미대 공예학부를 졸업하고 제7회 동아공예대전 대상 수상, 제4회 공간도예대전 우수상 수상, 2004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8 경암학술상-예술부분을 수상했다. 배쏭갤러리(런던), 필라델피아미술관, 버밍험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시애틀뮤지엄, '분청사기 특별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뉴욕, 미국) 등에서 전시를 열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

김재영의 〈초기불교…〉대상 수상


대상을 받은 민족사의 수상 장면.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스님)가 공동주최한 제 9회 불교출판문화상이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올해 대상에는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김재영 지음/ 민족사)이 우수상에는 〈한계를 넘어서〉(석담스님 지음/ 동국대 출판부) 〈영원에서 영원으로〉(불필스님 지음/ 김영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력과 정진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가려는 불교 출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 상이 우수 작가를 육성하고 불교 출판 기획 ·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시상식 2부에서는 '북&송 콘서트'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가수 김현성과 움직이는꽃이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고 문화부장 진명 스님이 수상작 〈영원에서 영원으로〉를 낭독했다. **정혜숙 기자**

사계절 사찰음식을 만나다

문화사업단, 〈한국사찰음식화보집〉 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제철 사찰 음식을 담은 화보집이 발간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는 최근 사계절을 대표하는 사찰 음식을 담아낸 〈한국사찰음식화보집〉을 발간했다.

화보집에는 봄 음식인 감자 부각부터 겨울의 흑임자두부조림까지 80종의 사찰음식이 사진으로 수록돼 있으며, 상세한 레시피도 함께 정리했다.

특히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리법을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현대적인 계량법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 화보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실제 화보집의 조리법은 김치와 장류 등 대량 조리가 필요한 것은 제외하면, 일반 가정인 4인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료의 표기도 주재료, 부재료, 양념 순으로 알기 쉽게 표기했다.

이를 위해 적문, 정관, 홍승, 선재, 대안, 우관 스님 등 사찰음식 교재편찬위원회는 수 차례 논의를 거쳐 현대인에 맞는 사찰음식 레시피를 정리해 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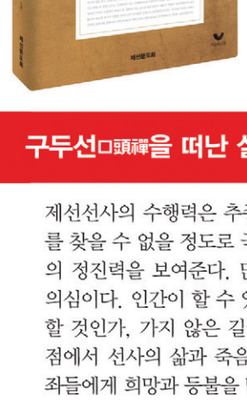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참된 부처님 제자는
이사理事에 걸림 없는 실력 갖춰야!"

한국 무문관 수행의 효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후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선사禪師를 박부영 기자가 발굴 · 추적하다



무문관수행의 전설
《석영당 제선선사》

박부영 · 원철 · 감성우 공저
신국판 · 양장 | 흑백
256쪽 |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구두선口頭禪을 떠난 실참 강조한 수행자의 사표師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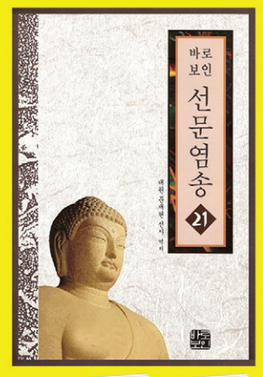
제선선사의 수행력은 추종을 불허하고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이며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진력을 보여준다. 많은 공부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의심이다.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과연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할 것인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 의심을 한다. 그 점에서 선사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경지는 모든 수좌들에게 희망과 등불을 밝혀준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2012 결산
불교 문화

미술 전시 '풍성' 음악은 다양성 '부족'



불교미술 전시는 풍년을 맞았다. 서칠교 작가는 불상에 현대 조각 기법을 도입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

2012년 불교문화계는 현대 예술과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는 창작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면서 불교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사진은 KBS국악관현악단의 공연장면.

미술…현대미술과 접목한 다양한 시도

음악…산사 음악회 축소 체질 개선 필요

사찰음식…수행음식 본래 취지 살려야

공연…역사 가미한 작품들 눈길

올해 문화는 전반적으로 미술 전시가 활성화 된 반면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 공연은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예술과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는 창작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미술 회화 조각 사진 등 그 어느때보다 다양한 미술 전시가 열려 관람객들을 찾았다. 개인전 기획전 등 풍성한 전시가 많았던 해다. 개인전으로 신장식 박상희, 서칠교, 원진 스님, 임남진, 김석곤, 박연희 등의 작품들이 선보였다. 특히 신장식 작가는 불상에 서양회화 기법을 도입 새로운 차원의 불화를 보여주었다. 조각가 서칠교 작가 역시 기존 관념적 불상의 모습에 인체의 비례미를 도입해 새로운 불상 조각의 세계를 열었다.

기획전도 눈에 띈다. 조계종 문화부가 기획한 '지혜의 빛 색으로 전하고 법으로 그리다' 展은 기존 당선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펼쳐주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만하다. 스페이스선+가 주최하는 '연꽃과 붓다 Lotus et BOUDDHA' 전은 동국대 미대 출신 작가 6인이 프랑스 갤러리89에서 전시회를 갖고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렸다.

김창균 동국대 미술학부 교수는 "불교 미술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불교 미술이라고 하면 갤러리에서 전시 자체를 받아주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다양한 전시가 열린다는 것은 이제 불교 회화가 그만큼 대중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 했다.

음악 음악=2000년부터 시작된 산사음악회는 이제 제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동안 우후죽순처럼 산사음악회가 열렸지만 이제는 특색 있는 음악회들이 자리를 잡아 매년 꾸준히 관객들을 모았다. 하지만 산사음악회 외에는 이렇다 할 결과물이 많지는 않았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펼쳐졌던 KBS국악관현악단의 '국악, 불교와 通하다'는 불교의식을 국악과 접목시켜 색다른 무대를 펼쳤으며, 봉축위와 명법사가 주최한 '보현행원송',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진리의 말씀-법구경', 마음치유와 명상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 '유나방송'이 개국 5주년 음악회 등을 열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달 도심에서 만나는 풍경소리의 '붓다콘서트'는 찬불가 보급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힐링음반 발매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효리, 루시드 폴, 이루마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참여한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 앨범 '소중한 만남(Precious Encounter)'을 발매했다. 명상음반 기획사 콘텐츠코리아는 네팔 최고의 국민 가수이자 스님인 아니초잉돌마의 베스트셀러 자선앨범 '타임(시간의 강)', 티베트 대나무 피리 연주자 나왕 케촉의 명상음악 등을 발매했다. 또한 노래하는 행자 도신 스님의 6집 '처음이에요'도 눈에 띈다. 스님은 찬불가와 대중가요 등 12곡을 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교 음악을 활성화 할 수 있을까?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과거 5년전 산사음악회가 붐을 이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각 사찰들에서 음악회를 2~3회 해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감당할 수 가 없어 하나 둘 중단됐다. 이제 대규모 산사음악회를 지양하고 2~3명이 나와 이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도 연주 할 수 있는 하우스식 소규모 공연을 하다보면 비용 부담도 해소할 수 있고 문화포교도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의견을 밝혔다.

사찰음식 그 어느때보다 사찰음식에 대한 열풍이 거셌다. 조계종의 적극적인 사찰 음식 홍보에 힘입어 사찰음식이 곳곳의 행사에 소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템플스테이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사찰음식 우수성 연구 발표회'를 갖는 것은 물론 한국음식 관광축제 '201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WACS Congress 2012 Daejeon)' 등에 참가해 사찰음식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국 · 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한국사찰음식 나눔캠프-아름다운 인연'은 유학생들에게 사찰 음식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음식축제도 주목할만하다. 진관사의 '마을(村)과 마음(心)이 어울리는 진관사 사찰음식 시연회'와 서산 부석사의 '사찰음식 잔치'는 사찰음식을 알리는 문화포교가 됐다. 또한 봉녕사의 '사찰음식 대향연' 역시 지역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찰음식 역시 스님들의 수행식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너무 고급화 패션화 돼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음식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소장 법해 스님은 "지금 우리 음식이 너무 인스턴트화 되고 육류가 식단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생활 문화에서 사찰음식의 대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사찰음식이 대중화되면서 패션화 고급화 돼 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찰음식은 본래 소박하고 담백하며 맑은 마음으로 만들고 먹는 수행식이다. 그 본래의 정신을 잊지 말고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의견을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사진은 '한국사찰음식 나눔캠프' 행사 사진



공연은 다양한 시도들이 주목을 끌었다. 무용가 이철진 씨는 승무의 상설 공연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공연 공연 영화 역시 여전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역사와 접목한 공연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0.27 법난을 소재로 한 한국형 뮤지컬 '2015 선객', 붓다의 일생을 현대무용으로 표현한 파사무용단의 '붓다 일곱걸음의 꽃', 5.18을 계기로 승려가 된 여산 스님의 이야기 연극 '푸르른 날에' 등이 있다.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중 첫 작품인 연극 '꿈',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을 주제로 한 뮤지컬 '쌍화별곡' 등이 모두 역사를 소재로 다룬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승무의 대중화도 눈에 띈다. 한국예술컴퍼니는 춤매는 쌍승무를 선보였고, 무용가 이철진 씨는 화요승무이야기를 통해 상설 공연을 전개 대중들을 모았다. 이밖에도 원담 스님이 극본을 쓴 '지대방'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르기도 했고 부명 스님이 새롭게 시도한 '이뭣고' 공연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양적인 면에서 그다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지는 못했으며 문화적 이슈를 낳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좀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불교를 넘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음악상 대상에 지휘자 이찬우 씨 수상

공로상 박상진 · 정부기, 원력상 강형진 · 이달철



제1회 불교음악상 대상에 이찬우 부산안국선원 지휘자〈사진〉가 선정됐다. 이에 조계종 문화부는 12월 18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상장과 트로피 및 상금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대상 이찬우(청법가 작곡, 부산안국선원 지휘자) △공로상 박상진(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 정부기(중앙대 음대 교수) △원력상 강형진(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 · 이달철(한국불교음악인협회 회장) 등이 선정됐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 공로상 300만원, 원력상 100만원이다.

이번 불교음악상은 17명의 개인 또는 단체의 후보가 접수되어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문화부장 진명 스님, 총무부장 지현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찬불작곡가 반영규 씨, 지휘자 박범훈 씨 등이 참여했다.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2013년
마음다이어리



마음의 흐름을 담는 빈 그릇

2013년도 '마음 다이어리'는 대행 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발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 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담는 빈 그릇, 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2013년 한해 마음의 길 환히 밝혀가길 바랍니다.





● 구입처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 470-3118
• 현불샵 : (02)2004-8213 • 조계종 불교전문서점 (02)2031-2073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지하 1층)
• 한마음저널 공식블로그 '한 그루의 숲'에서도 판매합니다! http://blog.daum.net/hanjournal (숲속가게 클릭!)
● 문의 : 한마음저널편집실 (031)470-3180

“변화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안에 있어”



브레이킹
조 디스펜자 지음
편기욱 · 전서울 옮김
프렘 펴냄/1만4천원

조 디스펜자는 자신의 첫 책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켜 행복과 성공과 건강을 거머쥘 수 있는 원리에 관해 설명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은 전 세계의 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시겠어요?”라고. 이 책은 그 같은 요청에 대한 저자의 화답이다.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 사람들은 말한다. 긍정이 그 해답이라고. 하지만 저자는 잘라 말한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절대 효과가 없다고. 그건 마음속의 돌덩이만 문지르는 것이다. 그 돌덩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긍정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긍정적인 사고와 확언, 자기암시 등 긍정심리학의 그 어떤 도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긍정심리학의 불편한 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의 배신을 넘어설 것인가?

우리는 흔히 말한다. 변화만이 살 길이라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다짐한다. ‘꼭 변하고 말거야.’라고. 하지만 정작 뜻대로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인데도 말이다. 왜 우리는 상자 ‘안’에서 생각하는 걸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일은 꼬이기만 하는 걸까? 왜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해 저자는 말한다. 그건 우리가 환경과 몸과 시간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이 빅쓰리(Big 3)를 극복해야 한다고.

▲브레이킹 1 환경 – 당신은 왜 상자 ‘안’에서 생각하는가

우리 뇌는 주변 환경을 통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조직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각자의 환경, 개인적인 과거의 기록, 살아온 삶의 모습과 대개 동일하다. 그 때문에,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자신의 환경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반응하기 시작한다. 사실상 환경(현실)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환경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당신은 똑같은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브레이킹 2 몸 – 긍정은 왜 당신을 배신하는가

뇌와 몸 사이에는 시시각각 일어나는 ‘동시성’이라는 것이 있다. 뇌는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계속 관찰한다. 몸으로부터 받은 화학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몸의 느낌에 상응하는 생각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은 주로 마음(그리고 뇌)과 관련되고, 느낌은 몸과 관련된다. 결국 몸의 느낌이 특정한 생각에 맞추어 조정이 되면,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 함께 작동하게 된다. 그 둘이 하나가 되면 특정한 ‘존재 상태’를 만든다. 그런데 느껴지는 감정보다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 변화한다는 것은 느껴지는 감정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자 자기 창조의 핵심이다.

▲브레이킹 3 시간 – 당신은 왜 과거 속에 사는가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좋아하던 동물이 바닥에 죽은 채 누워있었다고 상상해보자. 그 경험이 주는 모든 감각적 인상은 뇌 속에 깊이 새겨진다. 그 경험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이후에 하나의 생각이나 외부 세계의 어떤 사건이 우리를 자극하면 그 슬픔의 감정은 다시 올라온다. 그 계기는 기르던 개와 비슷하게 생긴 개를 보거나 추억이 깃든 장소에 다시 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상황은 감각적 자극과 상관없이 감정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감정적 계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비탄, 화, 슬픔이라는 감정적 ? 화학적 상태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 때문에 의식적인 마음을 사용해 그러한 감정적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자신을 통제하기가 힘들다.

만약 운전을 할 줄 안다면 당신은 이미 ‘생각하기, 행동하기, 되기’의 가장 기초적인 예를 경험한 것이다. 우선, 운전을 하기 위한 모든 동작과 도로 규칙에 대해 ‘생각’한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동안 운전에 꽤 익숙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능숙하게 운전을 하게 ‘된다.’ 운전, 스키, 뜨개질, 외국어 등 그 무엇을 배웠든 그것은 제2의 천성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 ‘되는 것’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저자는 말한다. ‘생각하는 것’에서 곧바로 ‘되는 것’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정신적 시연)’만으로 곧장 그 모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창조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이다.

우리는 두 개의 분리된 독립체, 즉 ‘보이는 나’와 ‘진짜 나’를 가지고 양면성 속에 살고 있다. ‘보이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는 모습으로서의 나, 가면을 쓴 나이다. ‘진짜 나’는 내가 느끼는 방식, 특히 외부 환경에 정신을 쏟지 않을 때 내가 느끼는 방식이다. 이것은 외부 환경에 집착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익숙한 감정이며 숨기고 있는 자신의 감정이다. 죄책감, 수치심, 분노, 두려움, 걱정, 판단, 우울, 증오와 같은 습관적인 감정 상태를 기억하고 있으면 ‘보이는 나’와 ‘진짜 나’의 간격은 벌어진다.

시간과 환경과 몸 등 빅3 극복해야 변화돼
내부 진짜 ‘나’ 마주 대할 때 깨어나기 시작
4주 7단계 명상 프로그램 마음훈련 효과적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감정을 필사적으로 감추기 위해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든다. 그래서 새 차를 사거나, 동호회에 참석한다. 성형 수술을 하거나, 실내 장식을 새로 하기도 한다. 색다른 기분을 느끼기 위하여 새로운 것들을 해보지만 이런 노력은 모두 헛수고다. 감정적인 새로움이 사라져버리면 여전히 같은 정체성 속에 빠지게 된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보이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헛된 시도가 오히려 변화를 가두는 덫이 되는 것이다. 이대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야기한다. 오랫동안 내부에 숨어 있던 진짜 나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이때 우리는 깨어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보이는 나’와 ‘진짜 나’의 간격을 줄일 수 있을까? 저자는 말한다. 해답은 바로 명상에 있다고. 명상은 변화의 비법이다. 명상은 환경과 몸, 시간에 대한 관심을 멈추고 자신이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자신의 내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시 말해 명상은 몸과 환경과 시간에 대한 중독을 깨는 것이다.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에만 변화할 수 있다. 이 빅쓰리를 넘어서서 더 크게 생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을 통제하는 무의식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왔다. 명상은 그 통제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자아의 간격을 좁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인식, 자아 관찰이다. 이것은 명상에 대한 짧은 정의이기도 하다. 명상을 하면 삶에 큰 영향을 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마주하게 된다.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자신의 성격을 매우 잘 알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지우기 위해 좀 더 깊이 자아를 관찰하다 보면 그 감정을 더욱 큰 마음에게 넘겨줄 수 있다. 진짜 나와 세상에 보이는 나와의 간격을 좁히면서 말이다.

명상은 ‘나를 경작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낼 새로운 생각과 행동과 감정의 씨앗을 심고 새로운 나를 경작하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마음이라는 정원에 있는 과거의 낡은 흔적들을 깨끗이 치워야만 한다. 경작할 때는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는 자신의 일부를 변화시킬 때 꼭 필요한 조건이다. 알아서 저절로 자라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직접 개입하여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목적은 수확물을 거두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4주 7단계의 명상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행하면 삶의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가지치기하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요가 · 명상 · 자연건강 주제 100문 100답

네 몸의 독립군이 되어라

이승용 지음 | 홍익요가연구원 펴냄 | 9500원



최근 몇 년 동안 요가(yoga)는 다이어트나 몸매 다듬기에 좋은 운동으로 오해받아 오다 사실은 호흡법과 명상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행체계라는 것이 점점 알려지고 있다. 또한 수행에 관해서 혼자 깨달음을 얻어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부처님이나 예수님 등 모든 인류의 성인이 그러했듯이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인식이 점점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한 몫 해온 저자가 정통 요가 · 명상과 자연건강에 관한 100문 100답을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저자가 설립한 홍익요가연구원, (사)홍익요가협회, 국제명상센터 내안의뜰, 그리고 외부강의 등에서 수많은 실수련 현장과 강의, 그리고 저술과 후진양성의 과정에서 겪은 생활 속의 수행에 관한 많은 질문과 잘못된 관행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일반인은 물론 많은 요가 선생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고 있다.

제 I 장 요가가 궁금해요에서는 요가 · 명상, 자연건강 분야의 초보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와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 등에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다.

제 II 장 정통 요가 실수련에서는 요가 수련의 3대 체계인 운동법, 호흡법, 명상의 실수련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나 자칫 현혹당하기 쉬운 기(氣)와 정신세계와 명상에 관한 바른 개념을 심어준다. 나아가 건강과 정신수양을 위해 수련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른 수련의 길을 안내한다.

제 III 장 요가 수행의 정신에서는 요가를 단순한 하나의 다이어트 방법, 많은 운동 중의 하나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음양(陰陽)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요즘 유행하는 명상을 비롯한 각종 힐링과 정신수련은 현실도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앞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가를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명으로 삼아 철저한 생활 속 수행을 해야만 생명력과 경쟁력이 있음을 당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IV 장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요가가 곧 세계적인 요가에서는 ‘요가’하면 인도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고 요가를 하는 사람 중의 일부는 자신의 뿌리를 잊고 인도편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다. 나아가 지은이는 요가와 우리 고유의 정신과 문화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하고 연구하는 점이 매우 독특한데 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외국인 요가 선생님을 배출하고 외국에서 요가 워크숍을 여는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요가가 곧 세계적인 요가’라는 말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많은 후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행자시절 좌충우돌 체험담

산중시트콤

무공스님 지음 | 다각 펴냄 | 1만3천원



산중시트콤은 스님이 좌구에 앉아 근엄한 얼굴로 들려주는 명상록이나 법문이 아니다.

비구니 무공스님이 체면도 경계도 다 내려놓고 걸림 없이 들려주는 수행 도량의 속 이야기이며, 새내기 스님 시절의 좌충우돌 체험담이다. 부제 ‘웃음 속에 깨달음이, 눈물 속에 깨달음이’가 바로 이 책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수행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다만 우리 곁에서 한두 발자국 떨어져 수행에 뜻을 두고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의 또 다른 동반자이다. 우리와 다를 것 없이 갈등도 하고 번민도 하며,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며, 슬픔에도 빠지고 기쁨에 들뜨기도 한다. 다만, 수행을 통해 그러한 흔들림을 통찰하고 성찰하며 다루어 나감으로써 표상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다. 열아홉 나이에 산중의 절집으로 들어간 무공스님이 철없던 새내기 수행 시절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놓은 것은, 우리는 서로 다른 듯 다르지 않은 인생의 길동무임을 전하려 함이다. 이 체면 저 체면을 두루 의식해야 하는 비구니 스님으로서 이런 천진난만한 내용의 책 출판을 결정한 것 자체가 책 내용을 훌쩍 뛰어넘는 천진난만함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는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으로 잘 알려진 책 〈돈 까밀로와 뻬뽀네〉를 연상시키는 무공스님의 산중시트콤은 여자로서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은 비구니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들을 향해 성큼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활짝 웃어준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5~12/11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발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걷지 마라	덕일	작은숲
7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8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밧진	불광출판사
9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김영사
10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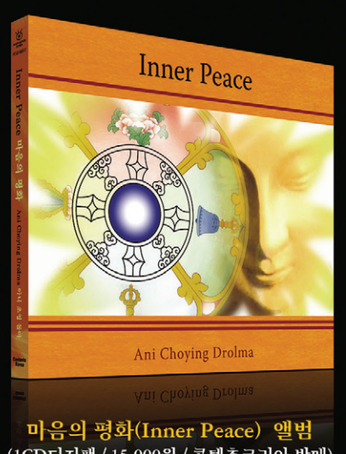


불교음반총판 운주사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음반

네팔 출신 비구니 / 세계적인 뮤지션 / 네팔 최고 국민가수, 아니 초잉 돌마!
네팔 국민가요 “꽃의 눈으로 보면”과 100만 이상 판매한 밀리언 셀러 앨범 〈Inner Peace〉의 주인공!
‘관세음 보살이 현신한 듯 자비심 가득한 천상의 목소리’라는 극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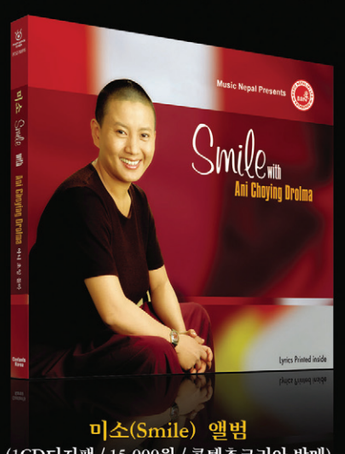


네팔의 국민가요 “꽃의 눈으로 보면”을 부른 비구니이자 국민가수 아니 초잉 돌마! 물 흐르듯이 읊조리며 부르는 사랑과 자비심 가득한 목소리는 명상적이면서도 감미롭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담겨져 있다. 생활 속의 불교 대중화’를 지향하며, 자신이 설립한 ‘네팔 비구니 복지재단(NWF)’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인 사회봉사가 이기도 하다.



마음의 평화(Inner Peace) 앨범
(1CD디지팩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전세계 100만장 이상 판매를 기록한 최고의 베스트 셀러작!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무한한 환희심을 느끼게 하는 마음공부 음악! 불교의 만트라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비주>, <육자대명주>, <아미타불심주>등을 반주리, 타블라, 기타반주에 맞춰 티베트어로 부른 역작



미소(Smile) 앨범
(1CD디지팩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스스로 마음을 일깨우면 미소가 지어지듯, 종교를 초월하는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위무를 주는 미소 같은 음악! 네팔의 국민가요 “뿌꼬 아카마”에 비견되는 타이틀곡 “마뚜와(나그네)” 포함 10곡 수록



지복의 순간
(Moments of Bliss) 앨범
1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각종 시상식에서 <최우수 여성보컬>, <올해의 노래와 레코드>상 등을 휩쓴 명반! 자신의 몸을 사르는 촛불같이 천상의 음성으로 지혜와 자비의 불을 밝히는 음악! 네팔 최고의 인기곡이자 국민가요 “뿌꼬 아카마(꽃의 눈으로 보면)” 포함 9곡 수록



시간의 강
(Time) 앨범
1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Image Channel Awards>상 수상앨범! 무한한 자비심과 종교를 초월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치유, 위안을 주는 음악! 타이틀곡 “혼자 말라이 비한(나의 새벽)” 포함 11곡 수록



구입처 : 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반야참회… 번뇌론과 선정론 적용한 새 수행법



반야참회
혜룡스님 지음
불광 펴냄
1만3천원

저자가 새 수행법으로 주장하는 '반야참회'란 어떤 개념일까?

저자에 따르면 '반야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저자는 이 반야참회 수행을 통해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반야참회(般若懺悔)'는 '참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존 참회와는 그 내용이 매우 다르다.

반야참회는 전통적인 불교의 선정 수행론을 참회에 응용했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선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참회를 통해서 수행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참회 수행을 계속하면 망상이 줄어지고 집중력이 강화돼, 참선과 같이 높은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어려운 수행도 쉽게 가까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자가 이 참회법에 '반야참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것이 반야 지혜의 체득을 향해 나아가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반야(般若)란 공성(空性)을 통달하여 일체의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힘과 자비를 갖추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보살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한다.

반야참회가 기존의 참회와 다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야 참회는 참회 방법이 구체적이다. 참회가 수행이 되려면 그 방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반야참회는 어떤 행위가 악업에 들어가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참회 대상), 그러한 행동이 왜 악업이 되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참회 기준). 그리고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서 참회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참회 방법).

반야지혜 체득 위한 바탕 제공
수행 목표 필요… '해오'로 설정
참회하면 괴로움의 요인 소멸

둘째, 반야 참회는 체계적인 수행법이다. 반야참회의 전체적인 체계는 초급·중급·고급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에는 그 수준에 맞는 참회 대상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포함되어 있다. 참회 대상의 배열은 불교의 번뇌론과 수행론에 따라 신업(身業), 구업(口業), 의업(意業)의 순서로, 그리고 의업 중에서도 탐욕과 성냄 등 알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 점점 깊이 들어가는 체계로 되어 있다. 셋째, 반야 참회는 수행과 현실의 갈등을 해결한다. 반야참회는 불자들이 흔히 겪는 수행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악행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어리석음도 극복할 수 있다.

넷째, 반야참회는 수행의 당면 목표가 있다. 반야참회는 비교적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당면 목표를 제시한다. 수행의 당면 목표는 수행자로 하여금 의욕을 잃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달성했을 때 강한 성취감을 갖게 하여 이후 수행을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회 수행에서는 이 당면 목표를 '해오(解悟)'로 설정한다.

저자에 따르면 '반야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저자는 이 반야참회 수행을 통해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또한 반야참회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반야참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이 편해진다. 참회 수행을 하면 마음이 아주 편해지고 안정된다. 지난날 했던 잘못을 하나하나 되새겨서 부처님께 참회를 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괴롭히는 요인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의미의 업장 소멸이다.

둘째, 지혜와 힘이 생긴다. 참회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 바탕 위에 과거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반성적 사유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결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되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 또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어 복잡한 현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갖추게 된다.

셋째, 복의 토대가 쌓이고 소원이 성취된다. 참회 수행을 하게 되면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게 된다. 악업을 짓지 않으니 고통의 과보를 받지 않고, 선업이 쌓이니 행복의 과보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참회는 복의 토대가 된다.

넷째, 수행의 진전이 이루어진다. 참회 수행은 불교의 수행 체계를 갖춘 종합적인 수행법이다. 따라서 참회 수행을 계속하면 저절로 본격적인 수행과 연결된다. 그리하여 높은 단계의 수행도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한다. 때로는 위기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병이 낫기도 하며,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부처님과 호법신장들의 은근한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반야참회의 수행 체계에는 삼배, 독경, 참회(108배), 염불, 발원 등이 있다.

여기서 발원이란 참회와 염불 등 위의 수행 과정이 다 끝나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앉아서 수행 공덕을 회향하며 자기의 소원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축원과 자신의 원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삼배는 꼭을 절을 하는 의미보다도 시간이 있을 때는 그대로 앉아서 마음속으로 부처님과 대화해도 된다. 또는 자리에 편히 앉아서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것도 좋고, 요가나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가 필요한 것은 통합 리더십

쟁점을 파하다

법륜 스님 지음 | 한겨레출판 펴냄
1만1500원



오래전부터 사회적 쟁점들, 서로 싸우고 풀지 못하는 문제들, 서로 상처받고 손해를 보면서도 풀지 못하는 현안들에 대해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이야기를 엮어보고자 했다는 스님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을 앞두고 국민 대통합의 리더십을 열고자 하는 이들에게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의 변화를 촉구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생긴 문제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의 원하는 바를 잘 정리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바탕으로 그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정해나가면 되는데, 정치권 자체가 자기들의 이익만 좇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다. 해군기지가 필요한 해군,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지역 주민. 이 둘 사이에서 소통하고 조율해도 모자를 정치권이, 한쪽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을 비난하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지역 주민을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무리라며 비난하기만 한다. 국회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국회는 우선 공사를 중단하도록 관련 예산을 동결하고,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정말 적합한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강정마을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이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 되고, 재검토 결과 강정마을이 최적의 입지라면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상처 입은 마음들을 달래줘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강정마을, 4대강, 원자력발전소, 비정규직, 학교폭력, 다문화가정 문제에서부터 경제민주화, 개헌, 지방분권, 남북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까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 특유의 시원한 논리로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통일한국의 모습을 비전으로, 현 단계에서 남한 내의 국민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국가시스템 개혁에 대한 제안이다. 대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임기 문제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님은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국가비전이라고 역설한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그리고 이와 함께 진행될 한중일을 잇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비전 속에서 필요한 법체계를 정비해나가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사적으로 민족과 국가의 독립이 지난 세기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분권과 통합이 시대적 과제이기에, 이에 맞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체의 권한은 강화하고,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이 주도해서는 균형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 중요성 강조와 변화 촉구
공동체 이익으로 갈등조정해야
현대는 화쟁적 통합 모색 절실

이런 큰 틀의 비전을 두고 이에 맞게 국내의 정치시스템을 바꿔가야 할 텐데, 이를 위해 스님은 8도연방제,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내각제(혹은 대통령직선제와 내각제를 합친 모습의 이원집정부제) 등을 제안한다.

스님은 우리 사회에 복잡다단한 여러 갈등이 얽히고설켜 있지만,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답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이전과는 다른 안목과 지혜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 스님은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대적 대립을 넘어서, 새로운 세력들을 정치의 장에 끌어들이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한다. 경쟁이 아닌 공존의 길,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화쟁적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올바른 수행 자세 설명한 해설서

참선요지

허운 스님 지음 | 월서 스님 엮음
아침단청 펴냄 | 1만2천원



참선은 수행자뿐 아니라 일반인에도 쉽게 다가가야 한다.

한국의 선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아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만 1천여 개의 한국선원이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도심에 시민 선방이 많이 개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선수행에 힘쓰고 있다. 이제 참선은 불교에서 승가(僧家)의 한 수행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 매우 좋은 수행의 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참선수행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유익한 지침서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참선요지〉는 승가나 시민들에게 참선의 요체를 설명하고 올바른 자세로 수행에 매진하여 마음의 고요를 찾게 하는데 필수적인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사오십년 전부터 한국의 불교 총림과 유서 깊은 선방에서 암암리에 읽혀져 왔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참선 수행하는 사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주해를 달아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의원인 월서 스님은 사회의 대법원장 격인 호계원장을 12년 동안 역임했다. 오늘날 승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승가의 본래 목적인 수행을 게을리 한 탓으로 여기고 이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 것이다.

참선이란 한마디로 마음공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칫 참선수행의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게 되면, 참선의 진면목을 체험하지도 못한 채 쉽게 포기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 의미가 크다.

김주일 기자

초조대장경 육로 운반 그린 소설

부용화

허수정 지음 | 고즈넉 펴냄 | 9천원



〈부용화〉는 고려시대 몽골군의 공격이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때, 왕권 회복의 전략으로 초조대장경의 과감한 육로 운반을 단행하는 사람들의 역경과 사랑, 음모와 모험을 그린 역사 팩션이다.

몽골 침략과 실권을 쥔 최우에 눌려 무력하기만 한 허수아비 왕은 비밀 계획을 세운다. 전소된 줄 알았던 초조대장경을 세상에 밝혀 민심을 얻으면 왕권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전에 거란 군사도 단숨에 몰아냈던 대장경이었으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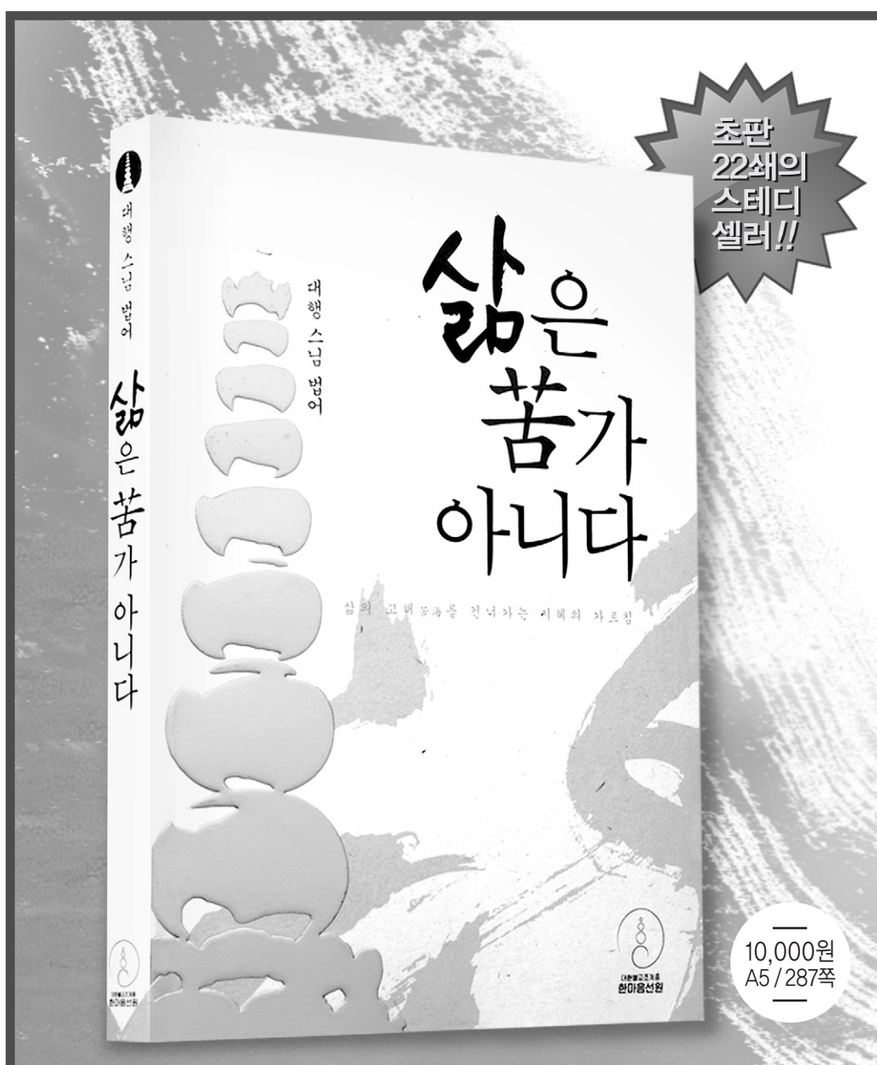
왕의 법사인 우송이 대장경 운반의 총 책임을 맡고, 대장경이 불탈 때 목숨을 걸고 일부나마 빼낸 감무의 여식 부용과 학승 진오가 동참한다. 그리고 뒤늦게 출현한 왕의 그림자무사 양무가 호위를 맡는다.

경주 황룡사에서 출발한 이십여 명의 운반대는 금산에 이르러 몽골군의 침략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첩보에 따라 가까운 성으로 피신한다.

다음날, 수만 명의 몽골군이 성을 에워싸고 대장경 반환을 종용한다.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네 사람의 정체는 일련의 상황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성을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주인공들은 제각각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며 충돌한다.

몽골군의 대공세가 임박하자 중과부적인 성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다. 오직 사랑만이 기적을 이루어내겠지만 그런 기적을 믿는 사람은 아직 성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주요 줄거리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10,000원
A5 / 287쪽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월명사가 '도솔가'와 '제망매가'를 지은 까닭은?

범성梵聲 울리는 방편으로 향가 유통

1. 불교의 생사관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갈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한 부분으로서 죽음을 내세운다. 이를테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합과 어머니의 임신주기가 맞는 미래의 후보들을 찾아간 내 업식이 향기 코드를 맞추어 태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처럼 생명의 탄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부모가 주체가 아니라 태어날 내가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태어남[生有]-죽어감[本有]-죽음[死有]-죽음 이후[中有]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호흡과 의식과 체온이 유지될 때 비로소 생명체라고 부른다. 비록 의식이 없더라도 호흡과 체온이 유지될 때에 비로소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숨을 마시고 내뱉는 즉 호흡의 과정이 존재의 가장 커다란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는 총 14편의 신라 향가가 전해져 온다. 이들 향가 14수는 형식면과 내용면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형식면으로는 4구체·8구체·10구체로 나눠볼 수 있다. **(도표 참조)**

여기서 '구'는 '줄' 혹은 '행'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4구체인 「서동요」·「풍요」·「헌화가」·「도솔가」는 구전되던 민요나 동요가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8구체인 「모죽지랑가」·「원가」·「처용가」는 4구체에서 10구체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과도기적 형식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10구체인 「혜성가」·「원왕생가」·「제망매가」·「찬기파랑가」·「안민가」·「도천수대비가」·「우적가」·「보현십원가」는 향가 중 가장 정제된 형식으로 평가된다. 이들 10구체는 대체적으로 매우 세련되고 격조 높은 서정시이며 기교나 서정성이 대단히 뛰어나다.1)이들 14편의 작자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는 각기 두 편씩을 남기고 있는 월명사와 충담사이다. 특히 당대 최고의 풍류 가객으로 불렸던 월명사는 피리를 잘 부른 풍류인이었다. 어느 날 달밤에 문 앞의 큰 길을 지나다가 피리를 불자 하늘의 달이 달려와 그를 위해 멈추어 섰다고 전한다.

월명의 저술은 알려져 있지 않고 그가 지은 「도솔가」와 「제망매가」 두 편의 향가만이 남아 있다. 월명의 「도솔가」에는 그의 법력 혹은 가풍이 투영되어 있다. 그는 경덕왕에게 불려 와 '열흘 동안 없어지지 않은 두 해'를 물리치도록 명을 받았다. 월명은 단을 세우고 기도문을 지은 뒤 "신승은 다만 국선의 무리에 속하여 단지 향가만 알 뿐 범성(梵聲)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고 아뢰었다. 왕은 "이미 인연 있는 승려를 불렀으니 비록 향가라 할지라도 좋다"고 하였다. 월명이 「도솔가」를 지어 부르자 '이윽고 두 해의 변괴가 사라졌다'[既而日怪即滅]. 왕이 기뻐하자 차 한 상자와 수정염주 백팔 개를 하사하였다.

2. 주술가적 성격의 향가들

종래 일부 연구에서는 '두 해'를 경덕왕 당시 신충(信忠) 등을 중심으로 한 왕당파와 김양상(金良相)을 중심으로 한 반왕당파의 갈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두 해' 그 자체를 놓고만 보면 일리가 있는 해석이지만, 승려낭도인 월명에게 두 왕당파의 물리적 충돌을 해결할 힘이 있었을 리 만무한데도 그를 불러 물리치게 했다는 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월명이 주술적 치유에 의해 두 해를 물리쳤다는 점은 정치적 해석으로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에 대해 살펴보자 "오늘이에 「산화가」를 불러/ 뿌린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부림이니/ 미륵좌주를 모셔라." 이 시를 두고 종래 연구에서는 "머리구의 산화장량(散花唱良)은 본가(本歌)가 「산화가」로서 지어진 것을 말한다. 요컨대 산화가는 긴 것과 짧은 것 두 노래가 있었다"고 하여 이 「도솔가」를 「산화가」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연구자들은 「도솔가」와 「산화가」를 분리해 왔다. '도솔'이란 말은 '도살'의 의미인 '회생'(回生), '복원'(復元), '환생'(還生), '재활'(再活)의 뜻이며, 「도솔가」는 유리왕대의 것이나, 월명왕대의 것이나를 막론하고 그 어의면에서 고찰할 때 '도살'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곧 동명(同名)동의(同意)의 회생(回生)노래인 것이며, 불교 수입 이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말인데 후에 한자를 차용하여 그것을 '도솔'이라고 표기했을 뿐이라고 보기도 했다. 또 이 「도솔가」는 유리왕대의 「도솔가」와는 다른 노래이며 특히 "미륵좌주라는 말은 미륵세존이나 미륵보살과 같은 순(純)불교적 표현이 아니고, 낭(郎)·불(佛) 융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 독특한 용어이며, 화랑의 고유한 신(神) 관념에다 불교의 화생(化生)적인 미륵사상을 융화시킨 표현이라는 연구도 있다.

이와 달리 「도솔가」는 「산화가」에 앞서서 가창된 서사적(序詞的) 노래이며, 의식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선 「도솔가」보다 「산화가」에 더욱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동시에 「도솔가」는 치리가(治理歌)적 성격과 주가(呪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이해되어 진다. 특히 주가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은 향가 자체가 '왕왕 천지 귀신을 감동시킴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往往能感動天地, 鬼神作非一]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일연은 이 「도솔가」가 불리워지는 상황을 "임금 계신 누각[龍樓]에서 오늘 「산화가」를 불러/ 푸른 구름에 한 조각 꽃을 뿌려 보낸다/ 은근하고 정중한 곧은 마음이 시킴이니/ 멀리 도솔천의 부처님을 맞이하라"는 7언 4구의 한시를 덧붙이고 있다.

일연은 「산화가」가 번다하여 싣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월명의 노래를 조목 명에서 「도솔가」라고 하여 싣고 있다. 그러면서 이 「도솔가」를 「산화가」라고 일컫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비정하고 별도의 「산화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문장이 번다하여 싣지 않는다고 한 「산화가」는 어떤 것이었을까. 종래 연구에서처럼 '상단배송' 의식의 게송(「산화가」)을 한 뒤에 '산화락'(散花落)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추해 보면 상단배송의 의식 게송이 「산화가」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이다. '두 해의 괴변'을 물리칠 때 다른 인도승이 부른 것도 '꽃을 뿌리는 노래'였다는 점에서 '꽃'은 중요한 기제가 된다. 동시에 '미륵좌주를 모셔라'는 이 명령어 내지 지시어도 꽃과 미륵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예쁜 꽃'[善花]으로 장식한 화랑(花郎)과 원화(源花)과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한다.



경주 사천왕사지 당간지주. 사천왕사는 경덕왕 때 향가인 '도솔가', '제망매가'를 지은 월명이 머물렀던 곳이다. 신라인들은 경주 낭산(狼山)을 수미산으로 보고 그 중턱은 사천왕이 지키며 꼭대기에는 부처의 나라인 도리천이 있어 불국토가 시작되는 곳이라 믿었다.

3. 떠난 누이를 보내는 노래

향가의 내용면에서 보면 먼저 떠난 누이를 보내는 월명사의 「제망매가」는 충담사의 「찬기파랑가」와 함께 향가 중 백미로 이해되고 있다. 현전하는 다수의 신라 향가는 붓다를 찬탄[佛讚]하는 데에서 기원했다는 견해가 있다. "삶과 죽음의 길은(生死路隱)/ 여기 있음에 두려워지고(此矣有阿米次儞伊遣)/ 나는 간다는 말도(吾隱去內如辭叱都)/ 못다 이르고 갔느냐?(毛如云遣去內尼叱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於內秋察早隱風未)/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한 가지에 나서(一等隱枝良出古)/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去奴隱處毛冬乎丁)/ 아아, 미타찰에 만나볼 나는(阿也 彌陀剎良逢乎吾)/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道修良待是古如)." 월명은 승려의 신분으로 이 시를 지었다. 그는 출가 전에 여동생을 두고 있었다. 그는 동생을 떠나 출가했고 재가에 있던 동생은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제망매가」는 죽음에 대한 진솔한 인식을 보여주는 순수 서정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깊이 체득한 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누이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슬픔을 잔잔한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월명은 「산화가」와 같은 불교 의식[梵聲]에 능통했던 승려라기보다는 향가에 익숙했던 풍류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가 쓴 이 시에는 삶과 죽음의 공존(1행),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2행), 삶에 대한 덧없음과 허무함(3~6행), 한 부모로부터 비롯된 혈육의식(7행),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알 수 없음(8행)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시에 나타난 월명의 태도는 그의 인간 됨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미타 신앙에 의지하여 훗날 극락세계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고려 후반기의 대표적 문화인이었던 일연 역시 월명의 심경을 이해하여 「도솔가」와 「제망매가」를 아울러 7언 4구의 시를 덧붙이고 있다. "바람은 종이돈을 날려 죽은 누이동생의 노자를 삼게 했고/ 피리 소리는 밝은 달을 흔들어 달속 선녀[姮娥]가 발을 멈추었다/ 도솔천이 하늘처럼 멀다고 말라/ 만덕화 한 곡조로 즐겨 맞았다." 산 월명과 죽은 누이를 매개하는 '노자'와 피리소리와 달을 매개하는 '항아'는 산 자와 죽은 자, 인간과 자연, 지상과 천상 사이를 이어주고 있다. 결국 일연은 월명을 대신하여 그가 못다 부른 노래를 시로 형상화 하여 다시 부르고 있다.

신라 향가는 내용상으로는 민요계 향가와 사뇌가계 향가로 구분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초기의 4구체에서부터 최종 완성형인 10구체로, 그리고 사뇌가인 향가로 발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현전 향가의 몇몇 맥락을 고려해볼 때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점차 개인 창작시로 발전한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가장 최종적인 형태로 알려진 10구체는 6세기에 창작된 첫 작품인 「혜성가」로부터 균여의 「보현십(종)원(왕)가」가 지어진 10세기까지 활발하게 지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2세기에 창작된 「도이장가」는 10구체의 마지막 잔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10구체 향가에서 낙구(落句, 혹은 隔句·後句)의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된다. 이것은 후대에 발생한 시조의 종장終章 첫 구에 흔히 나타나며, 가사의 낙구에도 이러한 형식이 나타난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향가의 형식은 시조나 가사의 후대 시가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설사 새로운 형식이 나타나더라도 기존 형식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어느 시기에는 세 가지 형식이 공존하기까지 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두와 향찰을 빌어 표기한 이들 신라 향가에서 '번역'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 한 문화를 다른 문화로 옮기는 과정으로서의 번역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향찰로 표기한 균여 향가를 한자로 번역한 최행귀의 한역 향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총 14편 향가 전해져

당대 신앙·민심 담아 널리 불려져

〈도표1〉 신라 가요 목록

번호	작품명	작가	창작연대	형식	출전 조목	표기
1	서동요薯童謠	薯童	진평왕대	4구체	武王	향찰
2	혜성가彗星歌	融天師	진평왕대	10구체	融天師 彗星歌	향찰
3	풍요風謠	未詳	선덕왕대	4구체	良志使錫	향찰
4	원왕생가願往生歌	廣德?	문무왕대	10구체	廣德 嚴莊	향찰
5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得烏谷	효소왕대	8구체	孝昭王 竹旨郎	향찰
6	헌화가獻花歌	失名老翁	성덕왕대	4구체	水路夫人	향찰
7	원가怨歌	信忠	효성왕대	8구체	信忠掛冠	향찰
8	제망매가祭亡妹歌	月明師	경덕왕대	10구체	月明師 兜率歌	향찰
9	도솔가兜率歌	月明師	경덕왕대	4구체	月明師 兜率歌	향찰
10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忠談師	경덕왕대	10구체	景德王 忠談師	향찰
11	안민가安民歌	忠談師	경덕왕대	10구체	景德王 忠談師	향찰
12	도천수대비가禱千手大悲歌	希明	경덕왕대	10구체	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	향찰
13	우적가遇賊歌	永才	원성왕대	10구체	永才 遇賊	향찰
14	처용가處容歌	處容	헌강왕대	8구체	處容郎 望海寺	향찰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고영섭, 『한국불학사: 신라시대편』(연기사, 2005).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주), 2012).

각주)

신라 향가 14수 가운데에서 서정성이 깊이 투영되어 있는 月明師의 『祭亡妹歌』는 忠談師의 『讚耆婆郎歌』와 함께 가장 빼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58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요즘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저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장애에 부딪칠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

– 보왕삼매론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정선문 미래연구소
사 작 택
주 명 일
사주명리학 수강생 모집
실전 강의
02)733-8889
017-402-7848
종로 견지동 조계사 바로 옆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40~60세 이하)
011-875-6317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전수생 모집
사주 명리학, 천고비전 육임학
기초에서 실기까지
육임은 백법까지
성심껏 지도해 드립니다.
031)642-6011
011-729-6011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화림 황토, 상황 氣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 뜸,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특허번호 제10-2011-011722호
상표번호 제40-2011-0070302호
디자인번호 제30-2011-0053572호
웰강 www.wellgang.co.kr
가맹점 개설문의
011-573-4438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
나비, 회심곡
010-6569-10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제한 없음)
055)835-8656

빙의,영가,영적장애
몸, 마음, 영혼 치유
해 드립니다
용음사 주지 합장
051)724-6869
010-5538-5570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나이 40~60대)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예천)
010-4901-492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심 와 기 도
• 운을 바뀌게 하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주지스님 및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 원함
–약력 : 동국대대학원 법학과 졸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전직 교수 역임
– 각종 법률, 자녀교육, 행정, 인권 문제 외
사주, 관상 등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010-5012-527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대전)
가족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010-5209-7420

청정한 **남해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와 **멸치액젓(맑은 액젓)**을
자신있게 불자님과 모든 분들께 직거래로
소개하여 드립니다.
055)867-2259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북갤러리출판
값 13,000원 (전국서점판매)
전화 주문 031-842-8023. 011-772-4606
농협 552-01-047918(대한불교비룡정사)
내용 (1)마음의 치유 (2)빙의퇴마 (3)무당 (4)사주팔자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근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점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청룡사
• 주 지 : 혜안(조순자)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643-1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9일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개강일시 : 12월 16일 오전 11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1박 2일 실습위주 집중교육)
■ 모집인원 : 장소관계로 선착순 10명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보 금 정 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당뇨 고혈압 당뇨 천연인슐린 개발
10여년간 당뇨로 고생한 김성용 대표가 직접 체험해 보고 모모르디카(여주)환 개발. 직접체험 보다 더 정직한 건 없어 곧바로 이름 걸고 개발 성공, 당뇨부터 고혈압까지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집중!
식물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문의 : 080-598-9832
희소식
기적의 나무 모링가 (MORINGA)
모링가는 적어도 49가지의 천연식물성 영양소 합성물 부작용이 없는 240가지의 노화방지체, 36가지의 항염증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자연 그대로의 것들이다.
모링가는 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 분자 집합체인 피이토케미컬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출처 : Faizi et al 1992)
장(腸)은 인체의 거울이다.
쾌변(숙변)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쾌변(숙변)할 수 있지요!!!
맥스모링가로 대장(大腸), 소장(小腸), 쾌변(숙변)
체지방 감량(비움) 해독작용 영양 발란스!!!
변비와 설사의 교대증세 산성체질이나 질병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개선 시킬 수 있다.
www.maxbio.co.kr
사무실 02)875-8858 / 공장 031)534-9835
맥 스 생 명 공 학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양평
- 법당자리 최고
- 요사 : 50평
- 부지 : 1400평
- 약수물, 명물
- 가액 : 7억 5천

- 위치 : 금산
- 법당 : 20평
- 요사 : 40층
- 총 : 560평
- 가액 : 1억8천
- 최고 보시면OK

- 위치 : 서울
- 인법당 : 25평
- 가액 : 1억 3천

- 전세. 월세 급구 연락 주세요.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포교당 안내 -
- 위치 : 경기 양평
- 법당 및 요사 : 60평
- 임대금 : 1000/60만원
- 시설비 3,500마원
- ※즉시법회가능

- 위치 : 경남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2억

- 위치 : 전남
- 법당 : 20(목조)
- 요사 : 10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235평
- 법당(2층) 30평, 요사채(2층) 80평
-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 6억 3천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평(관리지역)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근
- 대지 : 385평, 건평175평(2층건물 2동)
- 법당 52평, 종무소 52평, 요사채 71평
- 4차선 국도인접, 전망좋음
- 가액 : 6억 5천만원

016-874-8885/053)853-5539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곳
- 가액 : 15억
- 신축도 가능합니다

011-372-774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51)506-4038

사찰안내

- 위치 : 양산 사송리
- 대지 : 300평
- 법당 30평, 요사 40평
- 보증금 5천만원, 월 50만원
- 주차 30대가능

011-556-5830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3209-04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황금동에서 차편 약 15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8백만원

054)435-1259

창건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 섬진강 회문산
- 평수 : 법당 2동(대지 300평)
- 종교용지 허가 대지, 총 5000평 중 300평
- 부처님 세분 모셔져있음. 현대식 입식 한옥 목조 기와 시설. 섬진강 명당 위치
- 비구니 스님 환영(일체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호남 최고의 명당
- 보증금 3천만원 / 월 50만원 (총 건축비 2억 1천만원 소요)

010-9647-0723

도심속의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 3억 3천만원 (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10-3732-52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 26평
- 법당 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3662-55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전철역에서 2분거리, 대로변
- 최고시설, 좋은 위치
- 5층 건물 중 3,4,5층 총 1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50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3198-898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밀양 암자 안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주위
- 자연경관 수려함 (폭포 , 계곡 등산로)
- 면적: 8000평(종교용지 25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7억 (협의)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공항에서 10분거리 아름다운 사찰
- 평수 : 340평
- 집은 3동
- 가액: 7억

018-590-3583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대현동
- 4층건물중 4층(총65평)
- 법당(25평),방,화장실, 거실,공양간(옥상사용가능)
- 삼존불,영단
- 탱화(산신, 신중, 용왕)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2542-22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전세가능)

010-2610-9997

포교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 평수 : 2층건물 38평
- 1층 : 공양간및 주방 방 3칸, 2층 : 법당
- 그린상가지역, 도시가스 설치
- 지하철 1~2분 거리
- 가액 : 2억 2천만원(시설비 없음)

010-3578-499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대지 175평(법당 20평, 요사채 22평)
- 아미타불 도량, 산신용왕
- 백년 된 대추나무, 은행나무 돌탑
- 비구니 스님, 안주하기 적합한 도량
- 가액: 1억 1천만원

010-8503-5769

도심과 산속의 만남 포교원

- 위치: 대구 (역 도보 5분거리, 시장 5분)
- 현재 법회중이며 3층 건물(50평) 옥상(50)
- 법당(20평) 방2, 친견실1, 주방(집기일체)
- 부처님(金)삼존불, 신중, 칠성각, 영가단, 각단후불도, 부처님 지신사리
- 모두(5천) 부족하더라도 오세요
- 불사관계로 양도합
- 토지 및 사찰 교환도 가능

010-6892-39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시내IC10분거리
- 대지 : 500평. 등기필
- 주변 산세좋음
- 대웅전, 요사채, 황토방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 8천만원

054)337-3687
017-517-36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내
- 6층 건물 중 3층
- 실평수 118평(분양 190평)
- 가액 : 4억(융자 1억 포함)
-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6328-39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IC 10거리
- 토지 340평
- 법당 23평(30평 사용가능)
- 요사채 1동, 삼성각
- 석가모니대불, 500성중 도량
- 가액 : 2억5천만원(조절가능)

010-4910-63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역 시장 안
- 평수 : 14평
- 삼존불, 신중단
- 보증금 500만원 / 월16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5402-1003

포교원(급)안내

- 대구시내 아담한 단독 주택
- 법당, 방3, 주방2, 다용도실
- 보증금 3백만원, 월 25만원
- 현대시설 그대로 양도함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운영
- 시설 양도금 1400만원

011-458-29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개금3동
- 평수 : 30평. 3층건물의 1층
- 종무실 1, 스님방 1, 법당, 화장실 내외 각 1개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001-2494
011-846-274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정읍 근교
- 대웅전 25평, 지장전 25평, 삼성각 4평
- 요사채 3동, 약 80평, 방 11칸, 종각 4평
- 대지 500평, 전 1300평
- 조건, 관등록을 전재로 함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함
- 싯가 4억 상당의 사찰을 사정상 반값에 양도하려합니다

010-7149-63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불심이 깊은 대구(송현동) (남대구 IC에서 10분거리, 주차장완비)
- 2층 중 2층 70평, 옥상 70평 사용가
- 법당, 방 3개, 화장실 3칸, 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시설비 2800만원(절충가)
- 큰행원 및 시장, 서부정류장 (유동인구 많습니다)

010-3672-8424
010-9431-495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맞은편
- 평수 31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주방가구 일체. 방2, 주방, 샤워실
- 가액: 보증금 6백만원, 월 59만원
- 시설비 1천만원, 주방기구 일체

010-2208-7749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터미널에서 3분거리
- 대지 : 총 1320평
- 대웅전 1동, 요사채 3동
- 부속건물 등등,관광버스 6대 주차 충분
- 방10개, 심야보일러, 경비시스템
- 가액: 2억 9천 500만원 (대출 7500포함)

010-2775-3373

도심속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초읍동 성곡상가아파트 3층
- 평수 : 18평
- 가액 : 8천만원

010-3570-24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토굴
- 부지 : 2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양도 : 5천만원

- 위치 : 인천
- 부지 : 7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 : 9억

※ 사철전문 4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고불,석불, 골동품,위탁 알선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포함 사용면적 약 500평
- 총 2억 7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가까운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상역 시외터미널 건너편
- 건평 60평, 시설 멋짐
- 전세 1800만원, 월 45만원
- 비품대 1500만원 4층건물에 2층

010-3590-6329
010-8548-860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금호읍
- 경주. 포항 20분대 대구 15분시내 IC 3분거리
- 평수: 203평. 인법당. 삼성각. 용왕당. 기도방
- 요사채 방 4, 욕실1, 수세식화장실2, 현대식주방
- 300년 고목 약나무 지하온천수매장. 개발가능
- 비구니스님 거쳐로 용이함
- 양도가액은 만나서 협의를 원함

010-7473-688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구청 건너편
- 4층 전용면적 45평
- 교통편리, 주차가능
- 올수리, 즉시 입주가능
- 보증금 : 5,000만원(조정가능)
- 관리비포함 월 150만원

010-3772-75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동래전철역 도보 5분거리 대로변 아파트 단지 및 금정시장
- 3층 건물 중 2층 40평
- 극락전, 지장전, 나한전, 시왕전, 산신용왕전. 시설완벽
- 큰절 소임관계로 (급)양도 또는 전월세 가능

010-2531-1961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5.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진실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보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얽매여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 우다나 · 이타붓타카 –

자기치유

조순희 (약사 · 철학박사)

〈3〉 치유와 마음의 작용

자신과 소통할때 몸안의 감지기가 신호 보내

현대의학에서 명상의 의의

현대의학에서 명상의 심리적 · 생리학적 의미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계기는 허버트 벤슨의 〈이완반응〉 출간 이후다. 명상은 본질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한 정신상태와 함께 긴장이 완전히 풀어진 생리적 상태를 말한다. 명상의 반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진대사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인데,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비율이 낮아지며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수와 호흡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명상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뇌 활동은 줄어들지만 주의집중과 관련 있는 뇌 부위와 자율신경계 활동을 조정하는 뇌 부위에는 활동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뇌 활동은 안정 상태를 보이지만, 주의집중과 자율신경계 조절중추는 활성상태를 보인다.

벤슨은 〈나를 깨라, 그래야 한다(The Breakout Principle)〉에서 건강에 유익하고 생산적인 역동성은, 명상 도중 통찰과 같은 브레이크 아웃이 일어날 때 나타난다고 했다. 브레이크아웃은 이전부터 지속돼 오던 정신적 패턴, 다시 말해 심한 스트레스나 정서적 외상과 충격까지도 완전히 깨부숴지고 새로운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강력한 심신충격을 말한다. 벤슨에 의하면 브레이크아웃은 건강 · 정신능력, 그리고 신체적 수행력을 극대화시키는 자연의 힘을 동반한다고 한다.

마음 한 번 바꾸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성인병으로서의 심장병 즉 동맥경화 때문에 일어나는 허혈성 심장병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증가의 배경으로는 포화지방이 높은 식사 · 만성적인 운동부족 · 비만 · 스트레스의 증가 · 흡연 · 식습관이나 생활양식의 서구화와 그 외에도 인구의 고령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심장발작 대부분은 월요일, 그것도 오전 8~9시 사이에 집중돼 있다. 이런 월요일 아침의 심장발작은 직업에 대한 불만족과 즐거움의 결여라고 하는 두 핵심적 심리요인과 관련이 있다.

기쁨이 없이 전력투구 한다는 느낌은 일종의 체념이고,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소중한 생명에너지를 소진하는 것과 같다.

창조성이 발휘되거나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분돋워 그의 창조성 발휘를 도와 줄 때 삶의 에너지는 충만해진다. 꽃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시를 지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림을 그리고, 멋진 옷차림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때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 창조성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며 또한 우리의 창조성으로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마음이 지닌 치유력은 고정된 마음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을 알아차린 후에, 창조성을 제한시키는 마음의 상(相)을 알게 된 후, 마음 한 번 바꾸어 새로운 선택을 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받아들이기 나름

자신의 삶에 자신이 감당하기 힘겨울 정도의 상황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은 침착해진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나쁜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알게 되며 불행의 원인은 늘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근본적으로 행복과 불행은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작은 것도 커지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처리 해 버리나,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만 불행을 확대해서 큰 고민 속에 빠진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만약에' 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몸에 조그마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라는 생각은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렸으며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죽은 후의 가족들에 대한 걱정까지 그 상상의 날개는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만약에' 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명상하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완하고 듣는 것에 집중하다보면 자신의 마음과 몸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이미지가 오래된, 그리고 근거가 없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창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깨어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보다 큰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러한 고난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의 힘 (제3시대 의학)

현대의학을 시대별로 구분한다면 세 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시대의학은 19세기 후반부터의 미숙한 상태인 과학적 의료시대를 말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의학이었다. 매독을 비로소 치료할 수 있음을 발견했고, 괴혈병에 비타민C를 이용해 치료했으며, 인슐린요법은



명상

중증의 당뇨병환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었다.

제2시대의학은 심신접근 시대다. 심신의학에서는 실제로 뇌와 몸의 연결성을 연구하고 있고, 여전히 마음을 뇌 활동의 국소적이고 변화하는 작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1시대의학의 한계를 점차 깨닫게 되자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의학이다.

그리고 제3시대의학은 제1시대의학과 제2시대의학의 유용하지만 불완전한 패러다임으로부터의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다.

제1시대에서는 몸을 기계로 보았고, 제2시대도 기계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3시대 의학은 이런 모형에서의 급격한 이탈,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세계로의 진입으로, 기도를 통한 치유는 멀리 있는 신체에, 전체성 마음이 작용하는 것 등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의학적인 직관력과 신비주의로 유명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작가 캐로린 미스의 원거리 진단기록도 제3시대의학의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의학은 세 가지 시대 의학 모두를 포함한다. 그것이 화학요법 · 기도 · 에너지의학[氣] 혹은 심상법을 포함하는지에 관계없이 오직 연구의 결과를 중시한다. 전형적인 대체요법 선호자는 평균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가장 효과적인 치유법을 선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사람은 제1시대 의학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사용하면 가장 좋은지, 혹은 언제 다른 치료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적절하게 제1시대 의학과 제2시대의학을 병용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서는 제3시대의학까지도 치유를 위해 응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1시대 의학 이외의 치유법을 대체요법이라기보다는 보완요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치유로 나아가는 최상의 길은 흔히 '둘 중 하나' 가 아니라 '함께' 이기 때문이다.

치유를 향한 몸의 현명한 선택

과학이 때로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이 직접 혹은 나쁜 카르마를 통한 벌로 불치병에 걸리게 했다는 환상까지는 치료해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치료하는 것은 종교도 과학도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 즉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의 현실로 나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인간이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물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우주가 친절한 곳인가, 아닌가"라고 대답을 대신했다고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아인슈타인의 대답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아가지만, 병에 걸리게 되면 자신의 신념과 직면하게 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 비극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낼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몸 안의 지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우리 몸 안의 지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신호가 다양한 방식으로 희미해진다. 담배 · 술 · 기타 약물 · 설탕과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 등이 우리 몸의 신호에 대한 반응을 둔하게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고통을 부정하는 것도 심신과 의식적 지각 사이를 가로막는다. 결국 정서란 몸 안의 감지기나 다름없다. 불안하면 위가 거북해지고 심장박

직관과 의례적 공포감은 달라
믿음 · 희망, 치료의 핵심요소
창조성 · 만족감은 삶의 에너지
현명한 사람, 큰불행 작게 처리

동은 빨라지며 근육은 긴장한다. 평화감은 깊이 이완되는 느낌이며 사랑이란 심장과 목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고통스런 느낌을 억압하면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도 사라진다.

만약 몸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한 의식적 지각이 줄어들게 되면 무의식을 통해 정보가 들어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막연한 감(感)을 통해서 처음으로 질병의 암시를 받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직관과 심기증(心氣症: hypochondria)은 다르다. 심기증은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말한다. 무의식적 마음에서 오는 중요한 정보와 그냥 의례적인 공포감은 훈련을 받아야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관리는 도움을 줄 전문가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혜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치유는 자신과의 소통의 회복을 의미한다.

치료의 핵심을 이루는 믿음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티베트의학은 불교라는 신앙에 바탕을 둔 믿음이라는 심리치료체계와, 천연약재에 바탕을 둔 약물체계가 결합된 독특한 의학이다. 티베트의사들은 환자의 개인적인 믿음을 더 중시하고, 환자의 소변검사를 직접하며, 환자와 인간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다.

이처럼 친절한 티베트 식 의술은 놀라운 치료효과를 보이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요소가 치료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환자는 의사가 처방해 주는 치료법을 믿고, 의사도 이런 치료법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환자와 의사 사이에 서로 긍정적이며 진실한 믿음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뿐 아니라 실제 임상현상에서의 체험에 의하면,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이나 조증(燥症) · 불안증세 등의 질환도 현저히 적게 발생하며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률도 훨씬 적다. 그뿐 아니라 잘 낫지 않는 질환에서의 예후도 눈에 뜨일 정도로 효과적이다. 허버트 벤슨은 병의 치료에 있어서 믿음은 놀라울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모든 병의 50~90%를 믿음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이완반응(The Relaxation Response)〉 속에 기술하고 있다.

난치병환자에 있어서 희망이나 믿음은 자신에게 직면한 고통을 바로 바라보고 그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준다. 혈액순환과 호흡을 돕고 통증을 완화시키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더 건강해졌다고 느끼고 믿으며 힘든 치료를 견뎌낼 힘과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생각된다.

희망은 가장 강력한 플라시보 중의 하나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특히 미래가 불확실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그것은 희망은 때때로 그들에게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정신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희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자들 자신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 · 장벽 · 장애물을 바로 바라보고, 그 고난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심리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을 토대로 믿음과 기대를 갖는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물질은 동기유발 · 목표추구와 관련이 있다. 뇌에서 도파민의 경로는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의 경로와 연결돼 있으며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고통도 경감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올해의 불서' 에 선정된 〈자기치유〉(정우서적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 1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과목
● 초급반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불공, 관음시식
● 중급반 : 49제의식, 사다라니, 다비편(매장, 화장)염불,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염불, 구병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별의식 작법
● 천수바라,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도량게(나비춤), 오공양작법, 사물타법, 화청

교육과정
초급반
● 일반 : 6개월 (주1회 2시간) 매주 :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속성 : 3개월 (주1회 3시간) 매주 :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급반
● 일반 : 12개월 (주1회 2시간) 매주(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속성 : 6개월 (주1회 3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 작법(6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

모집인원
● 35명(선착순) ※ 개강 이후 1기 졸업시까지는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요.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수강일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요.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제2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승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전통범패단을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으로 이름 짓고 창단하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먼저 청강해 보시고 접수는 뒤에 하셔도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분은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에 단원으로서 인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향수해례, 사성례,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사물.
2. 중급 : 주 둘째시간 ~셋째시간 : 천도재의식, 시련, 대령,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짖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 칠 귀명정례긴소리, (짧은소리) 화청
3. 상급 : 매주 넷째시간 : 범패의식-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4. 고급 : 2년이상 된 자로서 시다림, 다비, 점안식, 방생, 생전예수재, 종사이운, 불상이운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 10만원 (1년 선불 10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원에 비치)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현우경' 이야기 (51)

선사 태자와 악사 왕자 ④

왕은 공주와 장님을 궁밖으로…

이 나라의 공주는 고집불통으로 유명했다. 성격은 천방지축에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궁궐은 온통 시끄러웠다. 시녀들은 늘 공주를 찾아다니느라 여념이 없었다. 왕 역시 공주가 왕자로 태어났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터였다.

그날부터 공주는 선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계속 그의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옆을 지켰다. 시녀들이 아무리 처소로 돌아가자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시녀들과 실랑이를 벌이니 선사의 거문고 소리도 멈추었다.

"누구십니까?"

선사가 물었다.

"나는 이 나라의 공주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선사라고 하옵니다만… 공주님.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너의 음악소리가 좋구나. 너는 어디서 이런 재주를 익혔느냐?"

"아주 오래전 어머니께서 이 음악을 가르쳐 주셨죠"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분이셨구나"

선사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깊이 올라왔다. 선사의 눈물은 공주의 마음을 울렸다. 공주는 선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선사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 다시 눈물이 올라왔다.

"너는 참으로 묘한 재주를 가졌구나. 나를 자꾸 울리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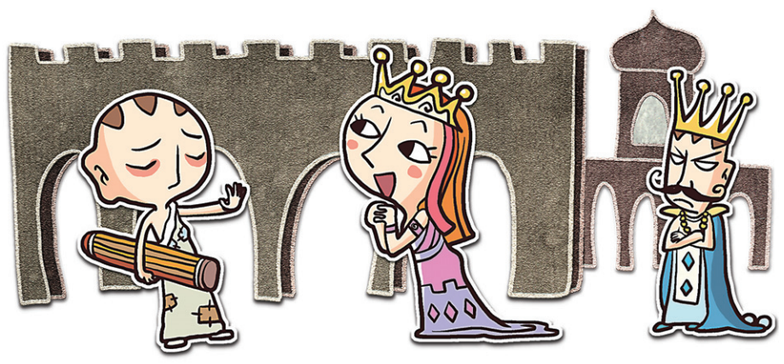
이제 시녀들은 공주 앞에 밥상을 놓고 갔다. 그런데 밥이 한 그릇 뿐이었다.

"왜 밥이 하나밖에 없냐. 이 자의 밥은 없는 것이냐?"

"어찌 거리의 부랑자와 밥을 같이 드시려 하십니까?"

"허허 무엄하다. 부랑자라니. 앞으로 이 자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선사와 공주는 매일매일 밥을 같이 먹게 되었다. 선사와 공주는 산책도 하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태자는 공주가 걱정 되었다. 공주는 선사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삽화 · 강병호

"공주님! 이제 더 이상은 이곳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싫어진 것이냐?"

"어찌 제가 감히..공주님 같은 분을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공주님은 이 나라 왕의 따님이시지요. 그런데 저 같이 미천한 놈과 가까이 하시다가 화를 입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는 거지가 아니다. 너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계속 너의 옆에 있을 것이다"

"공주님은 정말 고집불통이시군요…"

공주에 대한 선사의 마음도 깊어 갔다. 선사 역시 공주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공주에게 선사는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그리고 선사를 궁에서 쫓아낼 것을 명령했다. 문지기 두 명이 선사의 처소로 들어와 선사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공주는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왕께서 이 자를 왕궁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공주가 양팔을 벌려 선사를 막아냈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나도 같이 쫓아 내거라"

문지기들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왕이 그 앞에 나타났다. 왕은 공주의 행동에 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이놈. 거리에 떠돌던 장님을 거두어 주었더니 공주를 홀리다니! 내가 너의 목숨을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공주는 왕의 다리를 잡으며 빌고 또 빌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죽는다면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왕은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키운 딸이 맞는지 의심이 갈 지경이었다. 분노가 마음속에 일었다. 하지만 차마 딸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선사를 공주와 함께 궁에 살게 할 수는 없었다. 왕은 오랫동안 고심했다. 이제 결정만이 남았다.

"그럼 선택을 하거라. 이 궁에 남을 것이냐. 저 자를 따라 갈 것이냐"

"저는 선사를 따라 갈 것입니다"

"그래? 그럼 공주의 신분을 버리겠느냐? 그럴 만큼 이놈이 대단하단 말이냐?"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저는 저 분이 더 소중합니다"

왕은 너무나 화가 났다.

"여봐라. 저 둘을 궁 밖으로 쫓아내거라. 저들을 도와주는 자가 있다면 내 엄벌에 처하리라"

둘은 그렇게 왕궁에서 쫓겨나 길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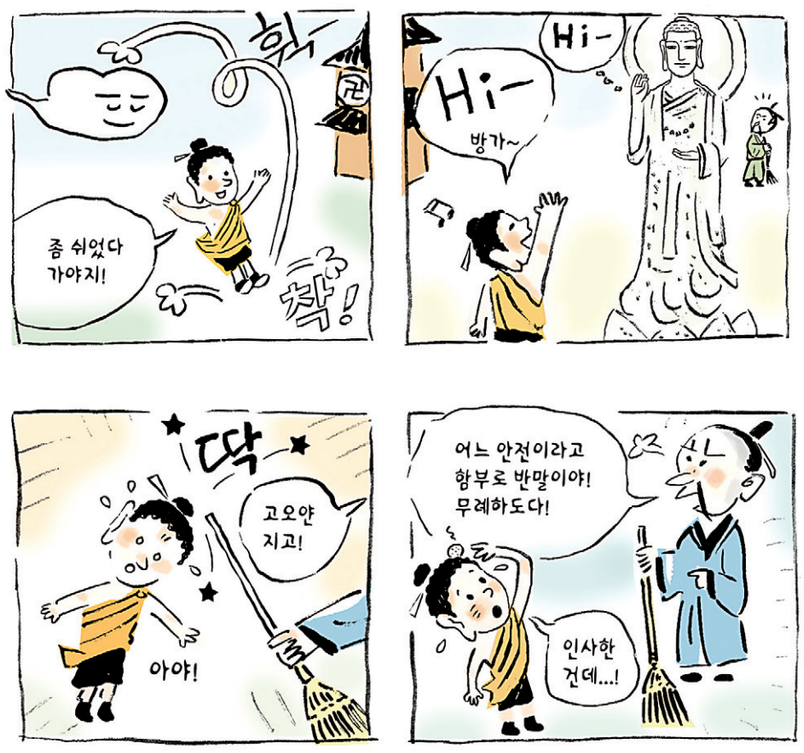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팔만대장경 속 우화 53

"법(法) 조차 버려야한다."

구성-김흥인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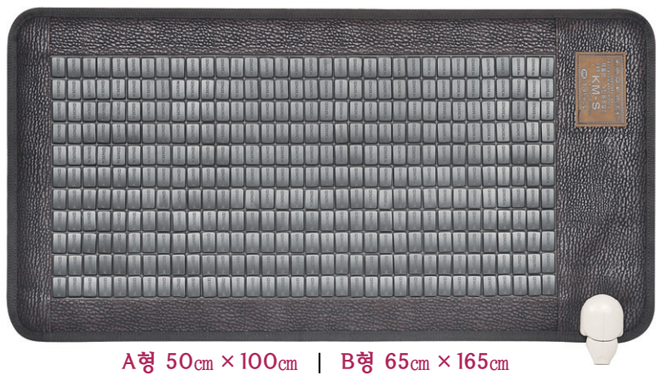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 (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 (전자파 차단)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피부속 50㎜까지 침투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여러분의 종문서를 태워버리고 자유스럽게 사세요

오늘 점안식을 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되었습니다. 창건주 되시는 윤 선생님께서 불심이 강하고 또 마음의 불씨가 너그러우셔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설법을 한다기보다는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 모르는 것은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부처님을 참되게 모시고 이렇게 점안식을 거행했는데, 여러분이 부처님을 모셨다고 해서 그 모습을 딴 몸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있기에, 또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으로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없다면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사륜 소생이 아니라면 우리 몸속에 사생(四生)이 들어 있지 않고, 사생이 들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움죽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셔 놓으면 우리 마음에 부처님을 모셔 놨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한 마음이 있고, 한생각을 일으킬 수 있고, 한생각 일으킨 그 자체가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뜻을 확신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이는 만날 저런 말만 해!'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항상 끄달리니까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이 뜻을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편리하게, 살림살이 그대로가 부처님의 법이며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끄달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저 부처님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님으로써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닙니다. 어떤 거든지 생명 없는 게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하다못해 이런 법상도 움죽거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떠한 거든지 살아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돌아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찰나찰나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이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수십억 마리가 지금 꿈틀거리면서, 은하계의 별성이 돌아가듯 우리 몸뚱이 속에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한생각을 잘못 낸다면 이 동네가 망합니다. 이 몸도 한 집이자 한 동네이자 한 우주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벌써 이 세상에 나와서 우주가 있다는 걸 알고 지구가 있다는 걸 알고,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부처님이 49년 설해 주신 걸 알고,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세상을 알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없겠습니까. 우주보다 내 마음이 더 크다고 봐야 옳겠습니다. 크다기보다는, 작다고 할 수도 없고 크다고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너무도 광대무변하니 여러분은 마음을 좁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저께도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말이에요, 집들이 전부 성냥갑 같고 쓰레기통 같아요. 쓰레기장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내고 보수를 하고 그러는 걸 가만히 볼 때, 개미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그 콩나물 시루의 콩나물 하나와 같은 내 몸뚱이가 '나만의 나'인 것입니까? 내 몸이 공하고 내 사생이 다 공해서 모두가, 사대 오온(四大五蘊)이 다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의에 끄달리거나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거나 이런다면 어떻게 나를 내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좁다면 고독하고 편안치 못하고 끄달리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부처님 모셨다는 걸 알듯이 그렇게 하나를 알면 열 가지 백 가지 천 가지, 끝간 데 없이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을 모셔 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아침마다 무슨 주문을 외우고 염불을 하고 또 삼천 배를 하고 백팔 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한생각만 잘하면, 한 번 손을 합장하고 한 번만 마음을 잘 먹으면 삼천 배를 할 수도 있고 삼만 배를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체를 들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건만 어째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도 그렇게 복잡하게 갖습니까?

바깥으로 찾다 보니 이름 찾아야지, 또 일일이 높은 사람 찾아야지 낮은 사람 찾아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눈 따로 찾고 귀 따로 찾고, 코 따로 찾고 입 따로 찾고, 바른팔 왼팔 모든 걸 따로따로 찾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여러분 각각이라면 그 헤아릴 수 없는 수효대로 그걸 곳곳이 찾아야 하니 그걸 어떻게 다 찾습니까? 그러니 그냥 '머리' 하면 전체가 들어가지만 '머리카락' 해 보십시오, 헤아릴 수가 있나.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내는 거는 천차만별로 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의 잠재의식 카세트로부터 그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얽히고설킨 그 자체가 바로 각본대로 나오는데, 그 나오는 대로 거기에다 그저 맡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담아지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채워지면서 우리 지금 실생활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실 때에도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습니다. 현실의 여러분은 잠재의식 카세트를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종 문서예요. 종 문서를 짊어지고 나오셨으면 그 종 문서를 태워 버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스럽게 살아야죠. 여러분이 먹고 싸고 잠자고 가고 오고, 이것이 그대로 자연스럽고 그대로 법이에요.

여러분은 '고가 있다.' 또 '업보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얼마나 죄가 많기에 이런가.' 하시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죄인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끝간 데 없는 그 법의, 바로 법음과 더불어 자력, 광력, 전력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만 가지로 닥치는 것을 못이나 쇠부스러기에 비유한다면, 자석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는 대로 자석이 돼 버리고 마는 그런 형국이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신다면, 그대로 시대를 잘 검토한다면 그대로 견성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고집하고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 업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 내가 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두를 또 들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공했는데 들고 있을 건 뭐 있습니까? 내 나무에서 내 실과를 무르익혀야 제 맛이 나고, 바로 내 나무 속에서 생산처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수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고, 수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다면 수만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 그러한 생산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한번 실행을 해 보기보다는 부처님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마음으로써 항상 끄달린다 이겁니다.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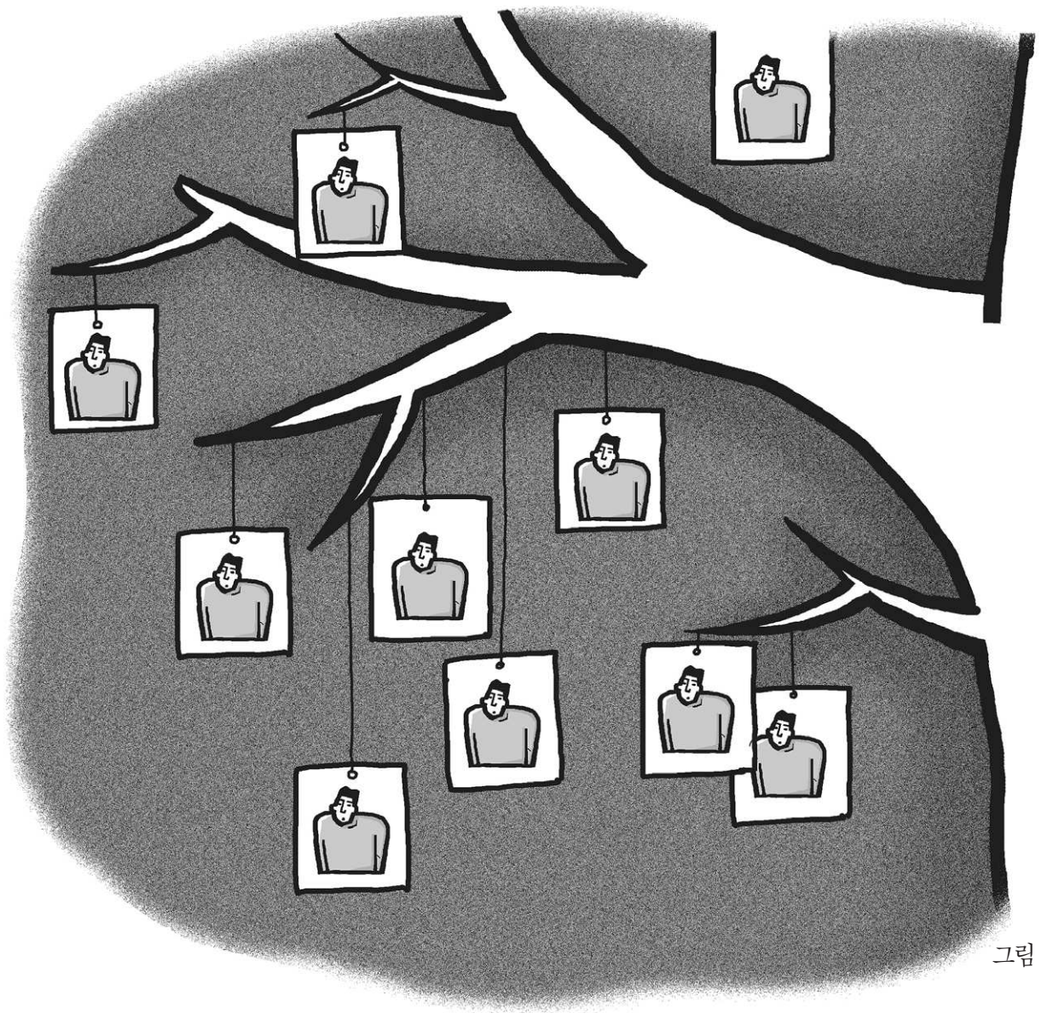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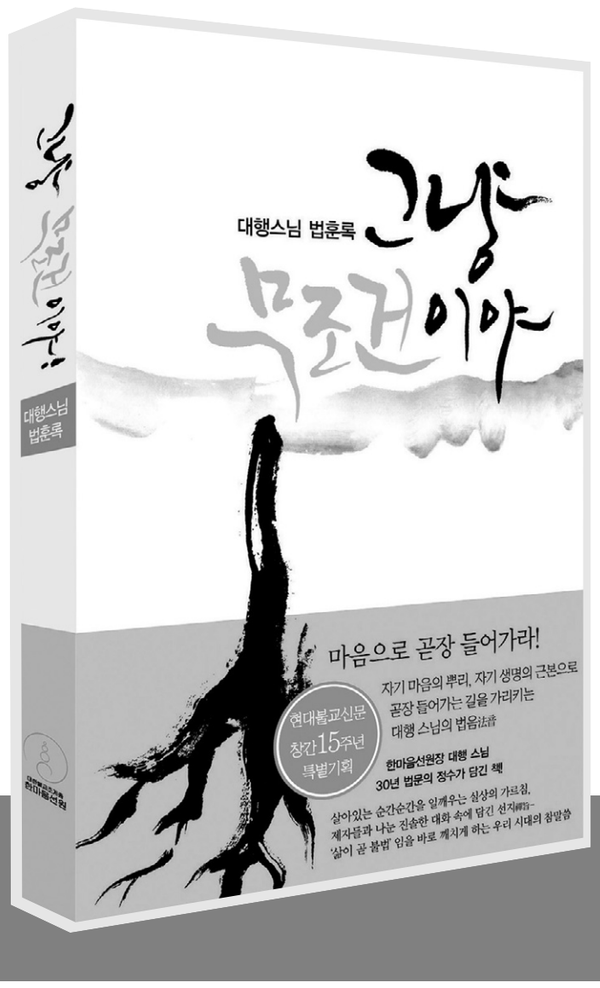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고에서 벗어나겠습니까

☞ 29면에서 계속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노스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노스님이 몸이 약해지고 너무나 들피가 나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더랍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바둥바둥하고, 한 제자는 '내가 계율을 못 지켜서 만약에 벌레가 된다 하더라도 스님은 살려야겠다.' 하고 가서 지렁이를 캤습니다. 지렁이를 캐고 캐서 말갛게 씻어서 폭폭 고아서는 그걸 꼭 짜서 스님을 봉양을 했더니 스님이 건강하게 일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모든 것을 자기한테 그냥 놔 버렸습니다. 자기가 죽든 살든 어떻게 되든 그걸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무(無)의 법으로써 유(有)의 법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행할 수 있는, 영체와 유체를 따로 보지 않고 같이 합쳐서 중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올바른 계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질로만 계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물질 본위로만 나가야겠습니까?

사람사람이 마음 하나를 잘 먹어서 세상을 올바르게 해 놓을 수도 있고 마음을 잘못 먹어서 세상을 올바르지 못하게 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내 몸으로부터 '나'를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을, 내 집을 망가뜨리는 이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있고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라는 것이 부처라면, 바로 부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어째서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상구보리(上求菩提) 하면 하화중생(下化衆生)이고 하화중생 하면 상구보리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에 의해 바로 몸속에 있는 그 생명체, 모습들이 다 한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넓고 건강하게 쓰면 바로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중생들도 다 같이 건져집니다. 내 한생각을 잘하면 수십억 마리가 그냥 건져지지만 내 한생각을 잘못하면 수십억 마리가 건져지지 못하는 거죠. 깨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수천 알의 깨가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생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알로 낳거나 태로 낳거나 습한 데서 낳거나 화(化)해서 낳는 것이 다 내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나 외부나, 사생은 항상 지수화풍으로 뭉쳐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안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가 많고 왜 그렇게 못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중생이 돼서 못한다구요? 중생이라고 자기가 이름지어 놓고 자기가 중생 노릇을 하는 거지, 누가 중생 노릇을 하랬나요? 부처 노릇을 하랬나요?

옛날에도 그런 점이 있었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 고려 때는 불교 문화가 발전이 되었었는데 조선에 이르고부터 불도를 배척했습니다. 불도를 배척한 것이 불자를 배척한 것이고, 불자를 배척한 게 자기 마음을 배척한 겁니다. 자기 마음을 배척하고야 어찌…. 물질 본위로 살면서 항상 쫓고 쫓기고, 낮은 놈은 찌들리고 높은 놈은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가 역사다웠습니까, 어디?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부처님을 모셔 놓은 법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누가 가는 걸 보면 붙들어다가 볼기를 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뺏고 부수고…. 보고 듣는 게 이런 거였으니 이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숭상하고 계발하고 물리가 트이게 해서, 즉 물질과학과 정신과학을 한데 합쳐서 우리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마음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요새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뒤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뛰는 거 있죠? 요새도 가만히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왜 위태위태한가? 사람이 첫째, 세계를 보면서 우리 분단된 반쪽 조국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둘째는 요새 이렇게 모두 날뛰고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면 그 사상이 어떤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정해서 찍으면 그뿐인 것을, 그렇지 않아도 분단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를 왜 부수고 때리고 난동을 부리느냐 말입니다.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찍으면 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누구 손해냐 이겁니다, 네?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하는 노릇입니까? 이게 지식층들이 하는 얘깁니까, 어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향내가 나고 발 한 번 한 번 떼 놓는 그 움죽거림이 모두 향내가 나야죠. 그런데 얼마나 몰상식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화 민주화' 이렇게 말로만 합니까?

"스님은 어째서 정치 얘기를 합니까?" 이러시겠지만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한자리입니다, 부처님 자리고. 세계적으로 보거나 우주적으로나 보거나 생명 없는 게 없어요. 생명 빼놓고 마음 빼놓은 게 어딨어요? 그러니 전체가 부처님 자리죠. 그러니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중이라고 왜 할 말을 못해요? 중은 목탁만 두들겨야 중인가? 여러분과 다 같이, 우리가 일요일에는 쉬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생각을 내서 일을 나갑니다. 화요일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 한 행을 하고 있는 이 생활이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그런데 말할 게 없어요?

월남전 때 어떤 사람이 월남에 싸우러 갔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스님, 여기 와서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무기들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튿날이면 그 무기들이 다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는지를 검토해 보니까 그냥 전부 저쪽에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싸우는 겁니까? 이건 역성을 들어 줘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는 더 이상 못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돌아서야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 스님, 전 인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죽는 걸 가리지 않으니까 그저 지뢰도 밟지 않고 그냥 그 사이사이로 통과했고, 거기를 넘어갔다 왔는데도 모가지 안 잘리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죽을 각오하고 머리카락 베어 놓고 손톱 잘라 놓고선 그냥 악수하고 울면서 헤어졌는데, 이렇게 와서 싸우다 보니까 외려 몸을 아끼는 사람은 죽고, 그냥 이때 죽으나 저때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각오를 하니까 오히려 죽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합디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발견할 수 있나?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 필연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육체를 가지고 이 도리를 모른다면 거듭거듭 이런 고난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죽는 것이 열반이 아니죠. 육체를 살려 놓고 저승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승 저승이 없이 회전을 할 수 있어야만 그걸 이름해서 열반경지라고 그럽니다.

고(苦)·집(集)·멸(滅)·도(道)의 사제법 중에서 고가 고인 줄 아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 그 습이 많기 때문에 수없이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한데 모인 거거든요, 수십억 마리가 인연 따라서. 사생이 인연 따라서 여기 다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인연 따라서 온 나 자체의 그 마음이 꽁지에 꽁지를 물고 자꾸 나오는 걸 나오는 데에다가 다시 놓는다면 좋은데, 고가 고인 줄 안단 말입니다. 내가 공해서 없는데 고라는 것이 어디에 붙을 자리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수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苦)가 고가 아니죠.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진화시킬 수 있고 성숙시킬 수 있고 나를 해탈시킬 수 있는 과정이 고란 말입니다. 그러면 고가 고가 아니고 그게 수련 과정이요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내가 그렇게 다지고 다지면서 수행을 시키니 이 감사함을 어쩌나!'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고가 없으니 집도 없죠? 집착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고가 없으니까. 모두 놓고 돌아가니까. 집착이 없는데 멸이 어디 있습니까? 멸이 없는데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니 내가 나를 믿지 않고는 안 되죠. 여러분은 지금 한 군데만 움죽거리지 않게 해도, (다리를 짚으시며) 여기를 한 치만 뻣뻣하게 해도 걸음을 못 걸을 겁니다. 그렇게 움죽거려 주는 내 속의 내 중생, 이 자체가 소중한 줄 알아야 여러분은 성한 다리로 성한 몸으로 다니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뚱이 속의 생명체들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한 마음 한 몸이지 두 몸이 아니에요. 그 수십억 마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 거기에서 다 들이고 내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잘되는 것도 감사하고 안되는 것도, 고가 고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공부입니다, 인제. 말을 하자면 그때부터 이승 저승을 마음대로 회전하면서, 왕래하면서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체험하면서 숙달시키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당장 앞에 닥치기만 하면 그저 팔자 타령을 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해도 "아이고, 내 팔자야!" 또, 남편이 속을 좀 썩여도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래?" 몸이 조금만 아파도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러냐." 이러거든요.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지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도 해 보시고요.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데서부터 있는 것이지 큰 데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조그마한 마음속에서부터 큰 우주를 덮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는 것이지….

질문자1(남): 스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큰스님: 예.

질문자1(남): 스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이, 그리 좋은 게 어째서 있을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째서 그런 게 있습니까?

큰스님: 지금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일이 어디서 그렇게 생길까요?

질문자1(남): 글쎄 말입니다.

큰스님: 네, 그렇죠! '어디서 생길까요?' 하는 그 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모두가 수십억 마리가 한데 합쳐져서 인연이 돼서 몸뚱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내놓으려 해도 내놓을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한의 진리라고 합니다. 끝간 데가 없습니다, 그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7년 12월 13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공해서 없는데
고라는 것이 어디 붙을 데가 있겠습니까.
나를 진화시킬 수 있고 성숙시킬 수 있고
해탈시킬 수 있는 과정이 바로 고란 말입니다.
고가 없으니 집착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놓고 돌아가니까.
집착이 없는데 멸이 어디 있으며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니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희담석 稀潭石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불자 세상보기

복지정책과 고액체납자



김준환
A+에셋 자산관리 연구원

인간이 평생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던가? 우리 불자들은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11월 14일 '유럽 행동의 날'로 포르투갈, 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등지에서 수 백만 명이 긴축 반대의 총 파업과 거리 시위를 벌였다. 정부 재정적자가 위협적인 수준으로 오르고, 각국 정부가 복지정책 축소와 세금 확대 정책을 내어 놓자,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불황으로 수익이 줄어든 영국과 미국의 대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적은 아일랜드, 스위스, 두바이 등으로 본사를 옮기고 있다.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국가에선 조세회피 움직임에 대한 비난과 함께 기업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좀 더 우호적인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부자증세'의 움직임도 있다. 워렌 버핏의 '버핏세' 발언을 시작으로 독일의 사업가·의사 등 50명으로 구성된 '자본 과세를 요구하는 부자들'이란 단체는 "빈곤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긴축 정책이 아닌 부유층에 대한 증세만이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식 있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걷어 국가의 빈 곳간을 채우자는 흐름이다.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희망하는가? 지금까지와 같은 모습의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경기부양과 중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투자되었다고 하는 4대강 사업과 점점 늘어가는 복지예산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89조, 민주당은 164조의 큰 폭의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가 2011년 34%에서 2030년 106%로 예상되는 빚더미에 묻혀가는 나라살림에서 세금을 안 올리고는 가능할지 의문이다. 당장 세수확보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9일 고액, 상습 체납자 721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수억에서 천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의 세금만 11조777억원으로 이는 올해 예상 국세수입의 5.4%에 달하며, 내년도 0~5세 무상보육 정부예산(5조5000억원)의 두 배 수준이기도 하다.

국세청에서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면서도 국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반사회적 부유층 체납자' 색출에 본격 나섰다.

고액체납자의 시중은행 '대여금고'에 대해 압류해서 열어보니 골드바, 귀금속이 들어 있었고, 집과 사무실 등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고가 미술품이 대거 발견됐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지난 2월 전국 지방국세청에 신설되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을 막아 세수확보를 시작했다. 중점 관리대상은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신종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 자력으로는 신종, 첨단화하는 탈세 수법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을 가동해 온오프라인 탈세감시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게 되고, 금융권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 나오게 되자 중간 부자들은 절세법을 찾기 위해 비과세 상품 가입이 폭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기 회복'을 위해,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증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평생을 부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며 모아온 자산 그리고 따라오는 세금. 우리 불자 신도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는 식의 절세우선주의의 행태를 지양하고, 아름다운 나눔의 선택을 통해 행복을 얻는 인생길 되기를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불교평론'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허우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장
경희대 교수

〈불교평론〉은 게재된 글 하나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면서 2012년 9월경 급히 폐간되었고, 석 달 뒤 불교계 안팎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되살아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교평론〉이 벌여온 가을학술세미나, 경희대학교 비폭력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열린 논단, 올해의 논문 시상 등 모든 활동도 내년부터 정상화될 것이다.

〈불교평론〉의 충격적인 폐간과 복간을 두고 편집위원장으로서 만감이 교차했다.

첫째, '승가와 재가 학자들이 둘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느낌이었다. 복간되지 않았다면 세상은 〈불교평론〉과 수덕사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을 것이다.

승속 불이는 또 재가 불교학자들과 승단이 곳곳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학자들에게 주 연구 대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하여, 인도, 중국, 한반도에서 살아갔던 기라성 같은 고승대덕의 인생과 그들이 남긴 말과 글이 아니던가. 그들의 삶과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교의 진실성조차 의심했을지도 모르고, 연구는 아주 빈약했을 것이다. 선양회가 승가 외부 사회와 재가 신도들의 보시에 의존해 있다면, 〈불교평론〉은 그야말로 승속의 합작품인 것이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비판의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승속이 둘이 아니니까 비판의 대상을 아프게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의 자유가 타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파계의 문제는 승가 내부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계율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출가자가 불음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보자. 그런 문제는 '불사음' 계율을 좀 지키는 재가학자들이 지적하기 전에 출가 공동체가 확인하고 자정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외부에서 문중의 인물을 비판하는 경우 문중은 이에 대해 열려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자유 결사의 시대에 각 문중은 자유롭게 특정인을 대표 인물로 세워서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현창할 수 있다. 하지만 문중 인물 중에는 이미 역사의 반열에 오른 분도 있다. 그런 경우 외부인의 자유로운 연구와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 비판에 오류가 있다면 반박하면 될 것이 아닌가. 예컨대 한용운과 비구 법정은 위대한 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나 다른 불교를 실천했다. 불교학자는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각자의 특성과 차이를 드러내고 한계를 비판할 수 있다. 실제 경허 스님에 대해 제자 방한암과 송만공의 평가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이는 세상이 아는 일이다.

넓게 보면 세계불교사도 한국불교사도 복수의 인물로 구성된다. 복수의 인물이 있어야 불교는 다양해지고 풍부해진다. 이런 다양함과 풍부함은 장차 더욱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섯 째, 속간에도 불구하고 깨달음과 행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깨달음은 사람을 파계의 결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가? 아니면 모든 깨달음은 행위 규범을 반드시 요구하거나 수반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대답하는 데는 청정한 고승대덕이 제격이다.

굳이 필자가 대답해야 한다면, 초기불교 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분에게 니르바나는 탐진치가 다 끊어진 경지이고,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면 계율의 준수는 저절로 따라온다.

그 분은 또 승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범수제(隨犯隨制) 정신으로 계율을 제정해 나간 것을 보면, 모든 행위를 덮어준다는 깨달음의 신비 장막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리라.

계간지 〈불교평론〉은 1999년 11월 창간 이래 독자들에게 약속해온 것이 있다.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역사 정치 사회현상을 분석 조명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물론 앞으로도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속간으로 필자는 〈불교평론〉을 일으킨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그것들이 우리의 힘 바깥에 있다는 점도 새삼스레 깨달았다.

우리는 〈불교평론〉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저 약속으로 돌아가련다. 추운 겨울에도 욕망, 분노, 무지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으로. 우리는 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불교와 현대 사회가, 승과 속이 함께 있는 곳으로. 거기 가면 경허와 만해도 만날 수 있으리라.

社說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에 거는 기대

조계종 문화부가 12월 14일 '불교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 좌담회'를 열고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장기 정책 방안을 소개했다. 비록 초안이라 거친 면이 있지만 조계종 문화부가 제시한 로드맵은 분명 큰 의미를 가진다.

문화부가 제시하는 추진 과제는 △정책·제도 △보존 △활용 △무형문화유산 등 4개 분야로 나눠진다. 정책 분야에는 종단 문화유산 행정체계와 국가 정책 방향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보존 분야는 전통사찰 전수 조사부터 방재, 사지 보존, 북한 불교유산까지 방대한 숙제를 제시했다. 특히 활용 분야에 있는 전통문화원형 개발과 이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콘텐츠 개발은 주목할 만 하다.

현재 국보의 57%, 보물의 62%가 불교 문화재인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정책은 아직도 국유 문화재에 예산이 편중돼 있고, 불교계 역시 이에 대한 종책 방향이 설정돼 있지 않다.

사실 조계종 내 성보위원회는 회의 한 번 하지 않는 허울 뿐인 존재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불교인은 그리 많지 않다. 스님과 불자, 국민들도 국가와 종단의 불교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도 실천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문화부가 추진하는 '불교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은 장기적인 정책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주먹구구식 직흥적 정책에서 탈피해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나간다는 것은 불교의 문화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 조계종의 숙제는 다양한 의견들을 숙의해 제대로 완성된 '불교 전통문화 진흥 로드맵'을 대중들에게 내놓는 것이다. 그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쌍용차 국정 감사 약속 환영한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바로 대선 직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정 조사가 진행하겠다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약속한 것이다.

불교 등 5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종교계 33인 원탁회의'는 12월 10일, 11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잇달아 방문해 쌍용자동차 문제의 사회통합적 해결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의 주요 관계자들은 △노사정 외 정치권과 종교계까지 참여하는 협의테이블 구성 △대선 후 첫 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이를 위한 여야 협의진행 △정부의 적극적 역할 모색 등에 뜻을 같이했다.

사실상 종교인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모든 사안들을 약속한 것이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같은 협상 테이블들을 불교계가 주도해 왔다는 점이다. 올해 10월 조계종은 노동위원회를 출범하고 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왔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을 중심으로 종교계 33인 원탁회의도 구성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에 동참했다. 현재도 대한문 앞 쌍용차 천막 농성장에서는 지난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108배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불교계의 꾸준한 노력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가장 후발 주자임에도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공과(功過)를 떠나 종교인들은 훌륭히 정치인들의 약속을 이끌어 냈다. 이 뜻에 동참한 주요 정당들에게도 박수 보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이행 여부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들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존재로 보는 것은 그들이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약속만이 남았다. 그들이 '공약(公約)'을 '헛된 약속(空約)'으로 만들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현불샵 추천 상품 대잔치

다향정 캐릭터 차걸이 핸드폰걸이


부엉이걸이



다향정 제품은 100% 수공에 작품이고,
모든제품을
다향정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옴자차걸이 4종류

종 류	가 격	제 조
옴자차걸이(4색)	33,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大)	20,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中)	15,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小)	10,000원	국내제작
목어걸이	15,000원	국내제작
부엉이 향낭	15,000원	국내제작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 27,000원 (배송비포함)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산 김선원


청곡 이한동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선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 (높이 37Cm× 둘레 10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도자기 선물 SET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할인가 ₩ 99,800원

1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낮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 소품 연화 다기 5P



짙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3 용달마 순금카드 1점



달마 순금카드를 남편 지갑에 넣고 다니게하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기 : 직경 10mm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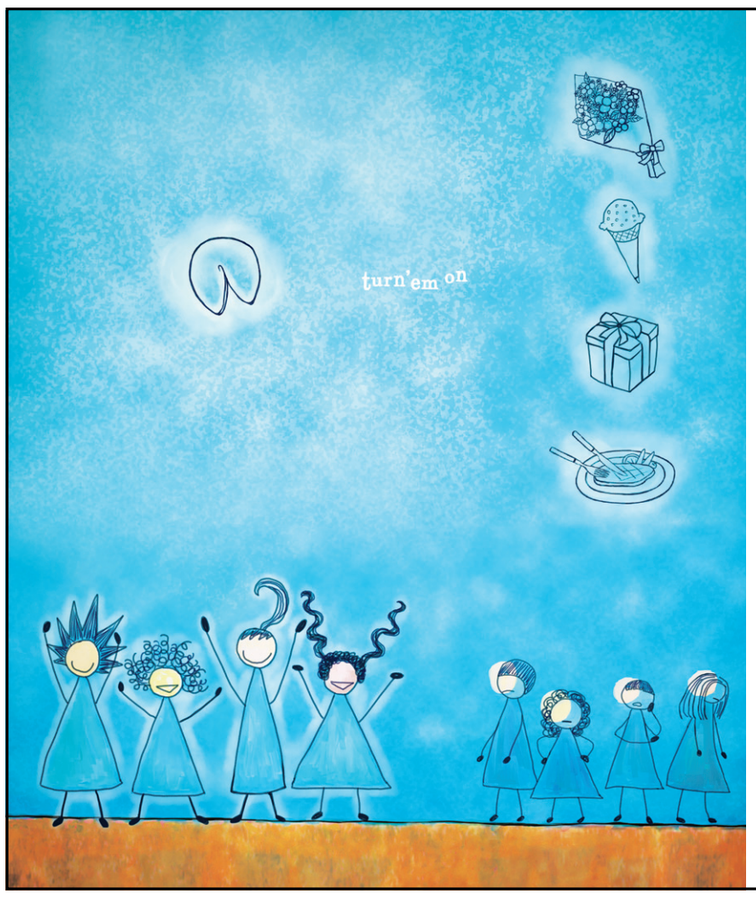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 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What is Buddha Cookie !!

법法 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